

2019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

Analysis and Implication of Young Artists
Support Program in Seoul

서울연구원 | 서울문화재단

연구책임

백선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연구진

라도삼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정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최재훈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기획팀장

배소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기획팀 대리

연구협력

이수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강기정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기획팀 행정스태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실태에 맞는 지원체계를 당사자 주도로 수립 필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청년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

2011년 1월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및 생활여건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표면화됨. 이에 정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을 2012년에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예술인의 육성 및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을 수립함. 특히 청년예술인의 상황은 전체 예술인 가운데에서도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예술인플랜> 조사 결과, 청년예술인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3점, 생활만족도는 2.60점으로 상당히 낮으며, 수입 규모는 월 50만 원 미만이 86.0%로, 수입이 없는 경우도 43.9%에 이를 정도임.

이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인플랜>에 기초하여 청년예술인들 육성 및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하고 있음. 2016년 ‘비즈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35세 이하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예술지원’과 작은예술지원금인 ‘소액다کم’ 등을 진행했고, 2017년부터는 ‘최초예술지원’을 비롯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19년 들어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9%로 늘어난 9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지원 구조를 다각화함.

기존 ‘청년예술단’ 사업과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을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총 68억 원)하고, 신규 기획형 사업으로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단 지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제휴/매칭형 청년예술 지원’ 등을 신설함(총 22억 원).

지원사업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으나, 청년예술인의 실태와 성장을 고려한 정책수립에는 한계를 노출

지원사업의 규모는 크게 늘어난 반면, 청년예술인들의 실태나 현안의제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기보다는 서울시 예술인 지원사업의 사업체계나 목적에 맞춰 지원되어 온 상황임. 실제로 청년예술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다만 2017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한편, 청년청 등에서 시행하는 여타 청년지원사업은 청년 당사자의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성장이나 이해에 맞춘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2018년도부터 서울청년예술단 운영단을 구성하고, 예술가 선정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나 청년예술인 스스로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 형성은 미흡한 상황이었음.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여 당사자 주도의 정책설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정책을 주도할 중심으로서 당사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적 담론구조가 필요함.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이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체계 형성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

청년예술인의 여건에 맞는 지원과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체계를 형성하고자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이 SeTTA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함. 이 연구의 목표는 첫째, 청년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 및 정책을 구성하며, 둘째 청년예술정책 수행을 위한 당사자 기반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임.

우선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예술인 대상 의견조사를 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음. FGI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인 27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서울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실태와 예술계에 대한 인식,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또한 청년예술정책을 주도할 당사자의 주체성 형성을 위한 공공적 담론구조를 전문가와 청년예술인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의 포럼과 논의테이블, 공개토론회 등을 설계하여 운영함. 청년예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청년예술인이 참여하는 정책주체 형성 준비모임을 7회 운영하였음. 그리고 준비모임의 논의 결과를 청년예술정책 방향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공공적 토론회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 성과로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과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개최함.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은 열악한 생활창작 여건과 새로운 예술의 실험도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2018 예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생활 및 창작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지만, 청년예술인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업예술인의 임시직 종사 비율이 전국 예술인은 30.5%, 서울 예술인은 35.3%인데 비해, 전국 청년예술인의 46.5%, 서울 청년예술인의 57.0%가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 여건이 매우 불안정함. 또한 예술활동 수입의 경우도 서울 청년예술인은 891만 원으로, 전국 평균 1,281만 원, 전국 청년예술인 평균 1,246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청년예술인 및 예술정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서울 청년 예술인 정책을 청년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에만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전체 예술생태계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청년예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청년예술인을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임.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년예술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앞으로 가능성’(32.1%)과 ‘기성예술과는 다른 새로움’(22.5%)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청년예술인 정책은 청년예술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되, 단순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예술인들이 청년예술정책 수립의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청년예술 지원사업 혁신방향의 핵심은 청년예술인 당사자 거버넌스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통한 정책추진체계 형성

지금까지 청년예술 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등 지원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청년예술인이 사업 시행의 대상에 머물러 있어 당사자성이 취약한 상황이었음. 이에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에서는 당사자인 청년예술인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 형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함. 이는 일회적 회의나 모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예술인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중심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단계의 논의 과정을 설계하였음. 그 결실로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이자 공론장인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만들어짐. 현재 구성된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향후 더 많은 청년예술인들의 참여 확대가 보장되는 진행형의 열린 거버넌스 구조임.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서울문화재단〉의 협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예술정책은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요구 및 예술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청년예술인의 생태여건 개선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형성

새로운 예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청년예술 정책방향을 제안

향후 청년예술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중심의 정책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 이를 전제로 향후 청년예술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로운 예술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으로 제안함. 지금까지 청년예술정책이 세대론적 관점

에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예술론의 관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정책대상 기준은 연령 범위와 청년예술인의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19세~39세 사이의 예술가로서 예술인 등록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신진 예술가, 경력단절 예술가,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위해 장르를 변경하는 예술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지원내용은 창작지원금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술가로서 활동을 위한 충분한 정보 지원, 즉 예술노동권 관련 정보, 일자리 정보, 기업이나 민간의 지원정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지원체계는 청년예술가와 전업예술가 지원체계의 두 트랙으로 제안하며, 청년예술가 지원을 거쳐 전업예술가 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함. 청년예술가 지원은 예술가로의 진입 지원 및 새로운 도전과 실험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 과정 중심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전업예술가 지원은 예술가로서의 자립 및 전문예술가로서의 성장과 활동 지원을 목표로 성장지원, 자립지원, 사회적 활동 지원 등 3단계 지원체계를 제안함.

기존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가성예술과 분리 미비한 당사자 거버넌스	지원방식	〈서울청년예술인 회의〉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하에
36세 이하 또는 33세 이하 등 사업마다 다른 기준	지원대상	19세~39세 이하 신진, 경력단절, 장르변경 예술가
분산된 지원체계	지원방향	새로운 예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지원
분명치 않은 목표체계	지원내용	창작과 생활 자금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술가로서 활동을 위한 성장과 필요 정보 제공 주력

지원의 목적성, 체계성, 내용적 풍부성, 거버넌스 재고
청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정책 구조 형성

[그림 2]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향후 방향(종합)

목차

01 연구개요	1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4
3_보고서의 구성	6
1부 현황	
02 예술인실태조사로 읽는 서울 청년예술인	11
1_개요	12
2_서울 청년예술인의 특징	14
03 지원사업 현황	25
1_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26
2_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현황	42
04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혁신방안 논의	47
1_지원사업 만족도 논의	48
2_지원사업 혁신방안 논의	58
2부 논의	
05 전문가 포럼	73
1_개요	74
2_1차 포럼: '청년예술(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75

3_2차 포럼: 낯설고 어려운 예술현장, 청년예술인의 난관과 현실	77
4_3차 포럼: 청년예술의 당사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81
5_4차 포럼: 청년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	86
6_5차 포럼: 청년예술의 주요 쟁점과 의제	91
06 청년예술인 당사자 논의	95
1_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96
2_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15
3_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156
4_서울청년예술인회의	171
3부 조사	
07 FGI	189
1_개요	190
2_주요 결과	192
08 설문조사	209
1_개요	210
2_예술활동 실태와 여건	213
3_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220
4_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226
5_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	230
4부 결론	
09 청년예술정책 방향 제언	239
1_연구 결과 종합	240
2_정책 방향 제언	246
참고문헌	257
부록	259

표 목차

[표 2-1] <2018 예술인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 지역별 청년예술인 분포	13
[표 2-2] 응답자 특성	13
[표 2-3] 주 예술활동 분야	14
[표 2-4]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 여부	14
[표 2-5] 문화예술 교육 활동 경험 여부	15
[표 2-6] 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 활동 경험	15
[표 2-7]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16
[표 2-8]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	16
[표 2-9]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16
[표 2-10]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17
[표 2-11] 겸업 예술인 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형태	18
[표 2-12] 예술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	18
[표 2-13] 프리랜서 종사 여부	19
[표 2-14] 예술 관련 계약체결 경험	19
[표 2-15] 예술 관련 계약체결 경험	19
[표 2-16] 예술 관련 부적절한 계약체결 경험	20
[표 2-17] 가구 및 개인의 1년간 수입과 지출	21
[표 2-18] 예술활동 주 수입원	21
[표 2-19] 저작권 보유 여부	22
[표 2-20] 4대보험 가입 형태	22
[표 2-21] 업무상 상해 경험	23
[표 2-22] 예술경력 단절 경험, 횟수, 기간	24
[표 2-23] 예술경력 단절 이유	24

[표 3-1] 2019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현황	31
[표 3-2] 서울문화재단 경력단계별 지원사업 로드맵	42
[표 3-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운영 흐름(2016~2019)	43
[표 3-4] 청년예술지원사업 예산 및 선정 규모(2017~2019)	44
[표 3-5]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중 공모형 사업	44
[표 3-6]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 관련 간접지원	45
[표 3-7]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중 기획형 사업	45
[표 4-1] 2017 최초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개요	49
[표 4-2] 2017 청년예술단 만족도 조사 개요	52
[표 4-3] 2017 청년예술단 만족도 조사 개요	55
[표 4-4] 서울문화재단의 현 지원체계(2018년 기준)	59
[표 4-5] 2020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혁신 방안 - 트랙별 지원	67
[표 5-1] 전문가 포럼 개요	74
[표 5-2] 1차 전문가 포럼 개요	75
[표 5-3] 2차 전문가 포럼 개요	77
[표 5-4] 3차 전문가 포럼 개요	81
[표 5-5] 4차 전문가 포럼 개요	86
[표 5-6] 5차 전문가 포럼 개요	91
[표 6-1]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97
[표 6-2] 1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98
[표 6-3] 2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100
[표 6-4] 3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102
[표 6-5] 4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105
[표 6-6] 5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107
[표 6-7] 6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110
[표 6-8] 7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113
[표 6-9]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16
[표 6-10] 1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18
[표 6-11] 2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23
[표 6-12] 3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27
[표 6-13] 4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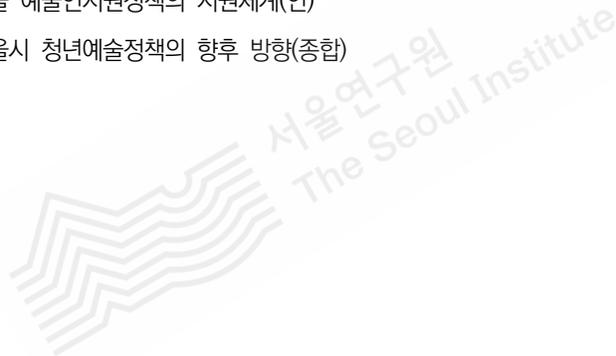
[표 6-14] 5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40
[표 6-15] 6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44
[표 6-16]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구성 논의	145
[표 6-17]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역할 및 담당 논의	145
[표 6-18] 7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46
[표 6-19] 8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48
[표 6-20] 9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51
[표 6-21] 10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53
[표 6-22] 11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154
[표 6-23]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프로그램	157
[표 6-24]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변화 방향 제안	166
[표 6-25] 서울청년예술인회의 프로그램	172
[표 7-1] FGI 개요	190
[표 7-2] FGI 참여자	191
[표 7-3] 1차 FGI 참석자	192
[표 7-4] 2차 FGI 참석자	193
[표 7-5] 3차 FGI 참석자	196
[표 7-6] 4차 FGI 참석자	199
[표 7-7] 5차 FGI 참석자	202
[표 8-1] 조사 개요	211
[표 8-2] 조사 내용	211
[표 8-3]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212
[표 8-4] 주 활동 및 주 장르(활동 중심)	214
[표 8-5] 주 활동 및 주 장르(장르 중심)	215
[표 9-1] 청년예술 당사자 주체 형성 과정	244
[표 9-2] 청년예술지원 정책 방향 비교: 세대론 VS 새로운 예술론	248
[표 9-3] <쌩수야 어딴니> 구술기록 지원 운영방법	254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3
[그림 1-2] 연구 추진 단계 및 일정	6
[그림 4-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방향	66
[그림 4-2] 서울문화재단 2020년 예술지원사업 구조도	68
[그림 4-3] 서울문화재단 2020년 예술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	69
[그림 5-1] 1차 전문가 포럼	75
[그림 5-2] 2차 전문가 포럼	77
[그림 5-3] 3차 전문가 포럼	81
[그림 5-4] 4차 전문가 포럼	86
[그림 5-5] 5차 전문가 포럼	92
[그림 6-1]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1차 회의	98
[그림 6-2]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2차 회의	100
[그림 6-3]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4차 회의	105
[그림 6-4]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5차 회의	107
[그림 6-5]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6차 회의	110
[그림 6-6]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7차 회의	113
[그림 6-7]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차 회의	118
[그림 6-8]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2차 회의	123
[그림 6-9]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5차 회의	140
[그림 6-10]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6차 회의	144
[그림 6-11]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7차 회의	146
[그림 6-12]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8차 회의	149
[그림 6-13]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9차 회의	152

[그림 6-14]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0차 회의	153
[그림 6-15]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1차 회의	154
[그림 6-16]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156
[그림 6-17]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주제 발표	173
[그림 6-18]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인의 생활자원	179
[그림 6-19]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의 공공성	183
[그림 6-20]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의 창작자원	184
[그림 6-21]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	186
[그림 8-1] 청년예술인 활동 형태 및 소속된 단체/기관	216
[그림 8-2] 청년예술인 고용 형태	216
[그림 8-3] 청년예술인 고용 계약 형태	216
[그림 8-4] 지난 1년간 참여한 예술활동	217
[그림 8-5] 작업실 사용 여부	217
[그림 8-6] 사용하는 작업실 유형	218
[그림 8-7] 주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 경험 여부	219
[그림 8-8] 주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 경험 이유	219
[그림 8-9]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여부	220
[그림 8-10]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	220
[그림 8-11] 본인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221
[그림 8-12] 본인 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222
[그림 8-13]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222
[그림 8-14] 예술의 변화에 대한 동의도 및 관심도	223
[그림 8-15] 예술계에 대한 평가(현재 및 미래)	224
[그림 8-16]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225
[그림 8-17] 예술활동 중 부당한 경험	226
[그림 8-18] 공공지원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기관	227
[그림 8-19] 공공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기관	227
[그림 8-20] 공공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27
[그림 8-21] 우리나라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228
[그림 8-22]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인지도	228
[그림 8-2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229

[그림 8-24]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231
[그림 8-25]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의 충분도	231
[그림 8-26] 청년예술인의 이미지	232
[그림 8-27] 청년예술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	232
[그림 8-28] 청년예술인 별도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청년예술인 기준	233
[그림 8-29] 청년예술인 범주에 학생 포함에 대한 의견	233
[그림 8-30]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	234
[그림 8-31] 예술 관련 정보의 인지도 및 필요도	235
[그림 8-32] 청년예술인 정책 및 지원심사에 있어 청년당사자 참여의 필요도	236
[그림 9-1]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청년예술청의 관계	245
[그림 9-2]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형성	246
[그림 9-3] 청년예술정책의 기본 정책방향	249
[그림 9-4] 청년예술정책의 정책대상(청년예술인의 범위)	250
[그림 9-5] 서울 예술인지원정책의 지원체계(안)	256
[그림 9-6]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향후 방향(종합)	256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및 목적
- 2_연구내용 및 방법
- 3_보고서의 구성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 2011년 1월, 최고의 작가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및 생활여건의 실상을 알린 계기
 - 이에 2012년 11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예술인복지법>을 제정
- 그러나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로도 예술가들의 자살이 이어져, 여전히 예술인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남. 특히 청년예술인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실정
 -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해 서울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3점, 생활만족도는 2.60점, 수입 규모는 월 50만 원 미만이 86.0%에 이르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음. 특히 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43.9%에 이룸
- 이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인플랜>에 기초하여 청년예술인들 육성 및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
 - 2016년 '비기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청년예술인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
 - 2016년에 추진된 '비기너스 프로젝트'는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35세 이하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예술지원'과 작은예술지원인 '소액다کم'으로 구성
 - 2018년 한 해 총 70억 원의 사업 추진

- 2019년 들어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9%로 늘어난 9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지원 구조를 다각화
 - 기존 ‘청년예술단’ 사업과 ‘최초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을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총 68억 원)하고, 신규 기획형 사업으로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단 지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제휴/매칭형 청년예술지원’ 등을 신설(총 22억 원)
- 그러나 크게 늘어난 지원사업 규모나 방안에도 불구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실태나 현안 의제에 대해선 조사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
 -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 수립 당시, 서울연구원이 청년 85명을 대상으로 조사
 - 2017년부터는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주로 정책만족도에 대한 조사로 청년들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른 한편, 2018년도부터 서울청년예술단 운영단을 구성하고, 예술가 선정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당사자주’를 강화하였으나,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 형성’엔 미흡
 - 청년청 등에서 시행하는 여타 청년지원사업은 청년 당사자의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당사자의 성장이나 이해에 맞춘 지원이라기보다는 재단의 사업체계나 목적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현실
 - 청년예술정책을 주도할 중심으로서 당사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나,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적 담론구조가 필요



[그림 1-1] 청년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 이에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의 여건에 맞는 지원과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체계를 형성하고자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이 연구의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됨
 - 청년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 및 정책구성
 - 청년예술정책 수행을 위한 당사자 기반의 거버넌스 형성
- 특히 청년예술정책을 주도할 중심으로서 당사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이는 당사자 몇 명이 모인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적 담론구조가 필요.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 초기 단계부터 모색하였고,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포럼과 논의 테이블, 공개토론회 등을 설계하여 운영함

2_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 청년예술인과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조사
 -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서 서울 청년예술인에 해당하는 674명을 추출하여 서울 청년예술인의 특징을 비교 분석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현황과 구조 특성 분석: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중앙정부의 청년예술지원사업 관련 행정자료 분석
- 청년예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포럼 개최
 - 청년예술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형성하고자 예술정책 관련 전문가, 관계자, 청년예술인 주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 개최
 -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포럼 운영하여 주제별 발제와 토론 진행
- 청년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방향 설계를 위해 청년예술인 대상 의견조사 실시
 - 청년예술인 대상 FGI
 - 조사대상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청년

예술인 27명

- 조사기간 : 2019년 8월~9월 간 총 5회 실시
 - 조사내용 : 자기소개 및 지원사업 경험 /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예술계에 대한 인식 / 서울시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미래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 조사방식 : 각 장르를 기준으로 총 5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에 기초하여 FGI 진행
- 청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700여 명
 - 조사기간 : 2019년 10월 17일 ~ 10월 31일
 - 조사내용 : 예술활동 실태(활동장르, 활동형태, 고용상황 등) / 예술계에 대한 인식(예술활동 만족도,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예술계의 현재와 미래 등) /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미래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등
- 청년예술정책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당사자 주체 형성
- 청년예술인 중심으로 정책 주체 형성을 위한 준비모임 운영
- 청년예술인이 주도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관계된 청년예술인이 참여하는 준비모임 형성
 - 참여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등 5인
 - 논의내용 : 청년예술정책 방향과 거버넌스 형성 방향 논의. 공공적 토론을 통해 청년예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협의
 - 추진기간: 2019년 6월 21일 ~ 8월 22일까지 총 7회 운영
- 청년예술인 중심으로 정책 주체 형성을 위한 준비위 운영
-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본격적인 청년예술정책 주체를 형성함을 목적. 라운드테이블 준비모임 및 정책 거버넌스 분과로 나누어 토론하고 매주 회의를 거쳐 진행상황을 공유
 - 준비위 참여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민준(예술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출가),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등 10인

-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포럼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3일 (구)대학로 동송아트센터
 - 개최목적 : 청년예술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던지기 위한 포럼. 전문가 및 당사자 주도로 토론 진행
-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회의: 1인칭 주인공 시점> 개최
 - 개최목적 : 청년예술정책에 있어 당사자 주체 형성 필요성 공유 및 정책 거버넌스 방향 제안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11일 (구)대학로 동송아트센터



[그림 1-2] 연구 추진 단계 및 일정

3_보고서의 구성

- 보고서는 연구 추진과정에서의 논의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
 -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청년예술정책 수행을 위한 당사자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
 - 이를 위한 과정으로 전문가 포럼을 비롯해 준비모임, 준비위원회, 정책포럼, 청년예술인회의 등 다수의 회의 및 포럼을 추진
 - 당사자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추진과정 및 논의 내용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그렇기에 보고서 작성 시 연구진 의견보다는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와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

도록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음

- 연구진의 관점으로 각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연구 추진과정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최대한 당사자의 발언을 그대로 살려서 본문에 신는 방식으로 서술
- 그동안의 논의를 충실하게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더함

○ 이 연구의 보고서는 본보고서와 부록편 2권으로 구성

- 본보고서는 △현황, △논의, △조사, △결론 등 총 4개의 부로 구성

- 1부 ‘현황’에서는 서울 청년예술인의 실태와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 2부 ‘논의’에서는 당사자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전문가포럼과 당사자 논의의 과정을 담았으며,
- 3부 ‘조사’에서는 FGI와 설문조사 추진 결과를,
- 4부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 청년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 부록편에는 당사자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전문가 포럼, 준비 모임, 준비위원회, 정책 포럼, 청년예술인회의 등의 발표 자료를 원문 그대로 실어놓았음

1부

현황



02

예술인 실태조사로 읽는
서울 청년예술인



1_개요

2_서울 청년예술인의 특징

02. 예술인실태조사로 읽는 서울 청년예술인

1_개요

- 서울 청년예술인의 생활과 예술활동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대표적 실태조사인 <예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함
- <예술인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통계
 -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파악으로 예술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등 총 14개 분야별 활동 예술인
 - 조사 모집단: 총 14개 예술 분야 178,540명(아래 ①~③ 으로 한정)
 -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 ③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
 - 2018년 조사 기간: 2018년 6월~11월(응답의 기준시점은 2017년도 1년)
- 구체적으로는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서 서울 청년예술인과 전국 예술인 및 서울예술인, 전국 청년예술인을 따로 추출하여 예술활동, 고용과 근로, 생활 및 복지 현황을 비교하였음. 이 장에서는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서울 청년예술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 <2018 예술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는 총 5,002명으로, 이 중 청년(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1.0%임

- 본 조사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예술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40.0%이며, 이 연구의 주 대상인 서울 거주 청년예술인은 전체 예술인의 14.1%, 서울거주 예술인의 35.3%임. 또한 전체 청년예술인의 45.5%에 해당

[표 2-1] <2018 예술인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 지역별 청년예술인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예술인	청년예술인
서울	40.0	45.5
인천/경기	23.5	25.4
경상권	15.1	12.3
강원/충청권	8.0	6.5
광주/전라권	9.4	6.6
모름/무응답	3.9	3.7
전체	100.0	100.0

- 서울 청년예술인 중 남성은 56.5%, 여성은 43.5%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4%, 대학교 졸업이 59.2%, 대학원 재학 이상이 21.2%로 대졸 이상의 학력이 전체 예술인에 비해 청년세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청년예술인의 가구소득은 3,000만 원 미만이 68.5%, 3,000만원~5,000만 원 미만 사이가 15.2%, 5천만 원 이상이 16.3%로 다른 예술인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 3,0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2]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성별	남성	61.5	55.9	61.2	56.5
	여성	38.5	44.1	38.8	4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0	15.9	18.6	18.4
	대학교 졸업	50.8	61.8	47.1	59.2
	대학원 재학 이상	28.3	21.3	31.7	21.2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48.6	55.8	59.1	68.5
	3~5천만 원 미만	22.1	19.0	19.3	15.2
	5천만 원 이상	29.3	25.3	21.6	16.3

2_서울 청년예술인의 특징

1)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 주 예술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미술(디자인), 무용, 방송, 문학의 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서울 청년예술인은 무용 분야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방송 16.0%, 미술(디자인) 11.0%, 대중음악 9.8% 순으로 나타남

[표 2-3] 주 예술활동 분야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문학	8.1	2.0	6.1	2.1
미술(디자인)	25.4	11.7	19.3	11.0
사진	2.3	1.2	1.8	1.5
건축	6.5	0.9	3.3	0.9
음악	2.3	0.1	3.2	0.1
대중음악	6.8	9.3	6.7	9.8
국악	7.8	5.3	9.8	5.4
무용	14.2	28.2	16.7	26.7
연극	5.0	5.5	5.7	5.6
영화	3.5	6.9	4.3	6.8
방송	10.7	16.7	13.7	16.0
영화	4.2	7.8	6.3	9.1
만화	1.1	2.0	1.2	1.8
기타	2.1	2.3	2.0	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은 서울지역,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국 예술인의 23.1%, 전국 청년예술인의 22.1%가 외국에서 예술활동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서울 예술인의 27.2%,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28.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

[표 2-4]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	23.1	22.1	27.2	28.4
아니오	76.9	77.9	72.8	7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서울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교육활동 경험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예술인 전체 중 38.3%가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경험한 데 비해,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33.7%가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경험
 -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국 전체 예술인에 비해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활동 경험률이 높은 데 비해, 서울의 경우는 서울 전체 예술인에 비해 서울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활동 경험률이 낮음

[표 2-5] 문화예술 교육 활동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	36.1	38.3	36.8	33.7
아니오	63.9	61.7	63.2	6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예술 분야 관련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전국과 서울 모두 전체 예술인에 비해 청년예술인의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전국 예술인보다는 서울예술인의 경험률이 높은 편
 - 전국 예술인의 51.2%가 예술 분야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서울 예술인은 이보다 높은 수치인 59.5%가 응답
 - 전국 청년예술인이 47.5% 경험률을 보인 것에 비해 서울 청년예술인은 52.4%의 경험률을 보임

[표 2-6] 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 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있음	51.2	47.5	59.5	52.4
없음	48.8	52.5	40.5	4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우리나라 예술인의 과반수는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창작여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청년예술인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로 전국 청년예술인의 58.8%, 서울 청년예술인의 54.4%가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표 2-7]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있음(집안)	22.5	19.2	23.1	23.4
있음(집밖)	27.0	22.0	27.7	22.3
없음	50.5	58.8	49.3	5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는 경우, 월세 임대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 예술인의 44.5%가 이에 해당
 - 특히 청년예술인의 월세 임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청년예술인 전체의 64.6%, 서울 청년예술인 65.9%가 월세로 창작공간을 보유함
- 이에 비해 자가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의 비중은 15.4%로 전국 평균 37.3%(서울의 경우 3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12.3%로 낮은 편
- 한편, 서울의 경우 무상임대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8]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자가	37.3	15.4	31.0	12.3
임대_전세	13.5	13.7	13.2	15.0
임대_월세	44.5	64.6	49.9	65.9
무상임대	4.7	6.3	6.0	6.8
전체	100.0	100.0	100.0	100.0

2)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 전국 예술인의 과반수가 조사 시점 동안 전업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함
 - 서울 청년의 경우 54.1%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

[표 2-9]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전업)	57.4	56.6	55.7	54.1
아니오(겸업)	42.6	43.4	44.3	45.9
전체	100.0	100.0	100.0	100.0

-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과 임시직(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정규직은 8.0% 전후에 머무름
 -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자영업(고용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종사가 43.2%, 서울의 경우 39.2%인데 비해 청년예술인 전체의 30.5%, 서울 청년예술인의 27.4%가 자영업으로 예술활동 수행
- 특히 청년 세대의 임시직 종사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 임시직은 자영업과 정규직을 제외하고, 계약직(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 일용직, 파트타임/시간제를 합한 것으로 파악
 - 전국 예술인의 30.5%, 서울 예술인의 35.3%가 임시직 형태로 전업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국 청년예술인의 46.5%, 서울 청년예술인의 57.0%가 임시직의 형태로 전업 예술활동을 수행 중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높음을 엿볼 수 있음

[표 2-10]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4	2.8	7.3	3.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6.8	27.7	31.9	24.3
정규직	7.0	8.0	8.8	7.2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	19.8	29.3	21.6	32.9
일용직	3.7	7.3	6.0	10.5
파트타임/시간제	7.0	9.9	7.7	13.6
기타	19.4	15.0	16.7	8.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전국 예술인 기준으로 2,872명 응답(전업 예술인)

-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 정규직 비중이 전업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시직의 비중이 다소 높아짐
 - 겸업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 전체 중 40.3%, 서울 예술인의 35.2%가 그리고 청년예술인의 53.1%, 서울 청년예술인의 54.0%가 임시직 형태로 종사하여 전업예술인에 비해 임시직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표 2-11] 겸업 예술인 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6	3.0	4.6	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4.3	20.3	31.0	22.5
정규직	3.5	3.1	4.2	3.7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	24.9	29.1	18.5	25.5
일용직	2.9	6.2	5.7	10.5
파트타임/시간제	12.5	17.8	11.0	18.0
기타	28.3	20.6	24.9	1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전국 예술인 기준으로 1,816명 응답

- 예술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현재 예술활동에서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예술인일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예술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을 꼽은 비중은 전국 예술인의 46.5%, 서울 예술인의 44.0%인데 비해, 청년예술인 전체에서는 52.8%, 서울 청년예술인에서도 50.7%가 낮은 소득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을 이유로 꼽은 경우는 전국 예술인의 27.1%, 서울예술인의 27.5%에 비해 청년예술인 전체의 29.9%,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29.2%로 청년 세대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2-12] 예술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46.5	52.8	44.0	50.7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27.1	29.9	27.5	29.2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10.7	9.0	10.8	8.9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2.4	2.5	1.4	2.4
기타	13.3	5.8	16.3	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전국 예술인 기준으로 2,130명 응답

-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음
 - 조사 기간 동안 전체의 72.5%, 서울의 경우 71.6%가, 그리고 청년예술

인 전체의 81.7%, 서울 청년예술인의 83.1%가 프리랜서로 종사했다고 응답함

[표 2-13] 프리랜서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	72.5	81.7	71.6	83.1
아니오	27.5	18.3	28.4	1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전국 예술인 평균에 비해 청년예술인의 경우 예술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많음.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계약체결 경험이 58.8%로 다른 예술인 집단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예술 관련 계약체결 경험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	42.1	54.2	51.5	58.8
아니오	57.9	45.8	48.5	4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 또한 서면으로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는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4.7%, 서울 청년예술인의 51.4%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서면계약 중 약 절반 정도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표준계약서 양식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응답도 30%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33.6%가 모른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임

[표 2-15] 예술 관련 계약체결 경험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표준계약서 양식이다	44.7	50.5	44.2	51.4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니다	24.9	19.6	23.2	15.0
모름	30.4	29.9	32.7	3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예술활동과 관련된 계약 중 서울 청년예술인이 특히 부적절한 계약 경험률이 높음
 - 계약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전체의 9.6%가 부적절한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지역 예술인의 경우 경험률이 11.4%로 높아짐.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11.8%가 부적절한 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예술 관련 부적절한 계약체결 경험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	9.6	10.3	11.4	11.8
아니오	90.4	89.7	88.6	8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3) 생활 및 복지

- 서울 청년예술인의 가구당 평균 수입과 지출 수준은 다른 예술인 집단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상황
 - 전국 예술인의 가구 총수입이 평균 4,225만 원이고 서울지역의 경우 4,446만 원인데 비해 청년예술인 전체는 3,677만 원으로 전국 예술인 평균에 비해 약 550만 원 가량 적음
 -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가구 총수입이 평균 3,406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개인의 총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수입이 891만 원으로 전국 평균 1,281만 원, 전국 청년예술인 평균 1,246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서울지역은 예술과 관련된 개인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서울지역 예술인 전체의 경우 예술학습훈련 지출이 518만 원, 예술활동 지출이 357만 원 수준인데, 이는 전국 평균 예술학습훈련 341만 원, 예술활동 310만 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수준
- 이와 같은 경향은 서울의 청년예술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예술 학습 훈련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
 - 예술 학습 훈련에 전국 청년예술인은 242만 원을, 서울 청년예술인은 269만 원을 지출함

[표 2-17] 가구 및 개인의 1년간 수입과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가구 총수입	4,224.7	3,676.8	4,446.0	3,405.9
가구 총지출	3,411.4	2,895.6	3,546.2	2,742.1
개인수입-예술활동 수입	1,281.2	1,245.6	1,450.5	890.5
개인수입-예술 관련 수입	754.4	712.5	814.7	754.7
개인수입-비예술 수입	777.2	511.4	555.6	448.8
개인지출-예술 학습 훈련	341.2	242.2	517.6	269.1
개인지출-예술활동	309.7	217.8	356.5	213.2

- 예술활동의 주 수입원은 전체적으로 출연료와 급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전국 평균으로는 출연료의 비중이 높으나, 서울지역은 급여의 비중이 다소 높음
 - 서울을 기준으로는 급여가 24.3%로 가장 많고, 출연료가 23.3%임. 또한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출연료 29.5%, 급여 23.5% 순임
- 다만 예술활동 주 수입원이 없다는 응답이 3위권 이내에 들어온다는 점은 살펴보아야 하는 대목임
 - 전국 예술인의 22.5%, 전국 청년예술인의 14.1%가 예술활동의 주 수입원이 없다고 응답
 - 서울의 경우 전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서울 전체 예술인의 17.6%, 서울 청년예술인의 12.9%가 주 수입원이 없다고 응답

[표 2-18] 예술활동 주 수입원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원고료	5.8	4.6	6.3	5.1
출연료	20.9	31.4	23.3	29.5
작품판매	18.0	9.6	12.4	9.6
저작권 수입	6.2	10.7	8.0	14.5
급여	18.6	22.9	24.3	23.5
보조금 및 지원금	7.3	6.1	7.8	4.1
기타	0.6	0.7	0.4	0.8
없음	22.5	14.1	17.6	1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전국에 비해 서울지역 예술인의, 그리고 전국 평균에 비해 청년예술인의 저작권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36.6%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19] 저작권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예	25.0	33.0	29.3	36.6
아니오	75.0	67.0	70.7	63.4
전체	100.0	100.0	100.0	100.0

- 4대보험 가입률은 예술인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편
 - 전국 예술인의 경우 공적연금은 47.0%, 건강보험은 6.5%, 산재보험은 73.0%, 고용보험은 75.9%가 해당사항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공적연금 46.3%, 건강보험 10.6%, 산재보험 66.0%, 고용보험 71.4%이 미가입
-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들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가입률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적연금은 58.1%, 건강보험은 22.5%, 산재보험은 72.3%, 고용보험은 76.2%가 해당사항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0] 4대보험 가입 형태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장	22.3	21.0	27.4	21.6
	국민연금 지역	27.4	26.8	22.7	19.8
	공무원연금	1.8	0.4	1.5	0.3
	군인연금	0.1	0.0	0.1	0.1
	사학연금	1.5	0.3	2.0	0.1
	해당없음	47.0	51.5	46.3	58.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3.1	19.8	25.5	19.7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7.6	17.8	14.1	15.8
	지역가입자	43.5	34.2	41.5	31.1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7.6	12.5	5.7	9.2
	의료급여 1종	1.1	0.5	1.3	0.8
	의료급여 2종	0.7	0.5	1.3	0.9
	미가입자	6.5	14.7	10.6	22.5

[표 계속] 4대보험 가입 형태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산재보험	직장에서 가입	23.7	21.8	28.6	23.5
	본인이 가입	3.3	2.5	5.4	4.1
	가입하지 않음	73.0	75.6	66.0	72.3
고용보험	가입함	24.1	23.4	28.6	23.8
	가입하지 않음	75.9	76.6	71.4	7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예술인은 전국 6.2%, 서울 8.1%로 나타남.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은 11.4%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임
- 상해를 경험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국 예술인의 85.2%에 이르고 있음. 다만 서울지역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고, 그중에서도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74.6%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근소하나마 양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2-21] 업무상 상해 경험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상해 경험	있음	6.2	8.0	8.1	11.4
	없음	93.8	92.0	91.9	88.6
피해 보상 방법	보상을 받지 못함	85.2	76.8	82.4	74.6
	고용주 측 개인 비용으로 보상	5.3	6.1	4.6	5.4
	고용주 측 보험으로 보상	7.5	12.7	9.7	13.2
	기타	2.0	4.4	3.4	6.8

-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전국에 비해 서울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국 예술인 평균 23.9%가 예술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데 비해, 서울예술인은 30.8%가 단절 경험을 함. 특히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38.4%가 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경력 단절 횟수와 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전국 평균(2.5년)에 비해 단절 기간이 다소 짧음을 알 수 있음. 서울 청년예술인의 경우 전국 청년예술인에 비해 단절 횟수는 2.9회(전국 청년예술인의 경우 2.5회)로 약간 많으나, 평균 기간은 1.9년으로 유사한 수준임

[표 2-22] 예술경력 단절 경험, 횟수, 기간

(단위: %, 회, 연)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단절 경험	있음	23.9	29.7	30.8	38.4
	없음	76.1	70.3	69.2	61.6
단절 횟수	1	42.9	48.5	35.6	39.5
	2	19.1	20.4	21.8	21.8
	3	15.5	16.0	21.2	20.5
	4	4.3	2.2	4.5	2.9
	5	8.6	6.8	6.4	6.7
	6	0.6	0.7	0.6	0.8
	7	0.5	0.3	0.7	0.5
	8	0.6	0.3	0.6	0.5
	9	0.1	0.0	0.1	0.0
	10	5.2	2.7	5.6	4.0
	12	0.1	0.3	0.1	0.3
	15	0.6	0.5	0.4	0.8
	20	1.8	1.4	2.4	1.7
	평균	3.0	2.5	3.2	2.9
단절 기간	평균	2.5	1.9	2.2	1.9

주: 전국 예술인 기준으로 1,196명 응답

- 예술경력 단절의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압도적임
 - 전국 예술인의 68.2%, 서울 기준 71.8%, 전국 청년예술인 68.6%, 서울 청년예술인 70.5%

[표 2-23] 예술경력 단절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예술인		서울 예술인	
	전국 전체	전국 청년	서울 전체	서울 청년
학업	5.8	8.4	4.0	7.5
출산/육아	7.2	6.6	3.4	4.2
질병	7.3	5.6	6.0	5.7
예술활동 수입 부족	68.2	68.6	71.8	70.5
기타	11.6	10.8	14.9	12.1
전체	100.0		100.0	100.0

주: 전국 예술인 기준으로 1,196명 응답

03

지원사업 현황



1_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2_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현황

03. 지원사업 현황

1_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¹⁾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창작(자) 지원, 창업 지원, 해외교류 지원, 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창작(자)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예술가’ 사업 추진
 -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 지원자격은 △만 39세 이하,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예술가, △개인²⁾
 -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하며, 지역에서 일정 비율을 선정해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예술가’는 차세대 예술가의 창작 및 기획 역량을 높이고, 소재 확장과 아이디어 실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5세 이하의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사업 진행
 -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실내외 다중 밀집지역에서 버스킹이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

1)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현황은 2019년에 추진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함

2) 단체는 지원 불가

- 연간 3회 지원하며, 팀별로 1회 최소 70만 원~ 최대 210만 원 지원

② 창업 지원

- 청년예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컨대 프로젝트’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
 - ‘예술가와 컨설턴트의 대화’의 줄임말로 예술 분야 창업팀을 선발하여 창업활동지원금,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기업후속연계 등 창업의 전반적인 사항 지원

③ 해외교류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청년예술인의 해외 교류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 네트워크 구축’,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사업 추진
 - 청년예술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구성원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예술창작 혹은 프로젝트 기획 작업을 지원
 -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 준비 작업을 지원

④ 복지

-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한국장학재단의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등을 추진
 -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³⁾’ 기존 입주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여 추진
 - ‘예술활동증명’을 재직증명으로 인정,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은 행복주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충족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금융지원 사업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운영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청년예술인(만 39세 이하)에게 가점을 부여

3) 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함.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활동기간이 7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임

2) 광역시·도 문화재단 지원사업

- 지역 청년예술인의 인프라 확충과 지원 확대를 위해 17개 광역시·도(경상북도 제외)의 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광역시·도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창작(자) 지원, 활동 지원, 창작 기반 지원, 창업 지원, 연구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창작(자) 지원

- 각 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준비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
 -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적거나 혹은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지원금 지급
 - 인천문화재단의 ‘청년생애처음’은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적은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 지원
 - 대구문화재단의 ‘스타트업지원’과 강원문화재단의 ‘생애최초지원 프로젝트’는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⁴⁾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다수의 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 부산문화재단은 공연·시각·문학 분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사업’과 청년연출가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추진
 - 광주문화재단은 공연·시각·문학 및 출판 분야의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
 - 대전문화재단 또한 공연·시각·문학 분야의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차세대artStar’ 추진. 선정 1년차는 역량강화비와 창작활동비에 최대 600만 원을, 선정 2년차는 창작활동비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⁴⁾ 대구문화재단의 ‘스타트업지원’ 사업은 최대 300만 원을, 강원문화재단의 ‘생애최초지원 프로젝트’는 최대 500만 원 지원

② 활동 지원

- 활동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활동비 혹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급 형태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
 - (발표/연습)공간, 교육, 홍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간접지원을 함께 진행
- 부산문화재단의 ‘청년문화활성화 사업’, 대구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강원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등이 있음
 - 부산문화재단의 ‘청년문화활성화 사업’ 중 커뮤니티운영형은 한 달 운영비 최대 100만 원씩 10개월 지원
 - 대구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은 공연 및 시각 분야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월 80만 원씩 지원
 -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 강원문화재단의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월 25만 원 이내의 창작지원금과 직접 사업비(최대 1,000만 원)를 함께 지급하는 형태로 최대 2년간 지원

③ 창작 기반 지원

- 창작 인프라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공간을 우선 대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간의 대관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남
 -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인 ‘사상 인디스테이션(CATs)’은 청년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대전문화재단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청년예술가의 작업, 발표, 연습 등을 위한 창작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추진
 - 대전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단체)이 추진하는 시각-공연다원 분야의 전시 및 공연 활동에 대해 건당 최대 300만 원(연 1회) 지원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청년예술창작 공간 임대료 지원’은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월 동안 최대 500만 원 지원

④ 창업 지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포털서비스_아트노크’와 ‘콘텐츠 펀딩’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과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대중에게 콘텐츠를 알려 자생적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⑤ 교육(인력양성) 및 연구 지원

- 청년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지원사업 추진
 -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부산문화재단은 ‘청년문화 인력양성 교육’을 대구문화재단은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
 - 대전문화재단은 공연예술 분야 청년예술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 프로젝트’ 추진
 -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문화예술대학-청년예대’를 운영

⑥ 해외교류

- 광역 차원에서 청년예술인의 해외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음.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국제교류_캄보디아 ARTUK’ 사업이 유일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
 - ‘청년예술가 국제교류_캄보디아 ARTUK’은 캄보디아 대표 교통수단인 ‘툽툽(TukTuk)’을 부산만의 독창적인 ‘툽툽’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작품(ArtWork) 제작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부산지역 청년시각예술 작가를 대상의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에 당선된 7명의 작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서 작품을 제작하고 프놈펜 예술대학교와 교류 네트워킹을 진행
 - 숙박, 식비 등의 현지 체재비와 왕복교통비, 작품 제작 재료비 등을 지원

[표 3-1] 2019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현황

기관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국도교통부	행복주택	복지	·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인정을 위해 (젊은) 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대상 포함	· 예술활동경력을 완료하고, 소득활동기간이 7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또는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사업 대상에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제직증명으로 인정하여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충족
한국영화재단	예술체육 비전정학금	복지	· 전공분야별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육성	· 국내 4년제 대학 예술 또는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별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 원 추가지원 ·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 (직전학기 성적 4.5점 만점 기준 3.5이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복지	·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금융지원사업	· 청년예술인(만 39세 이하)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정 부여	· 최소 50만 원~최대 500만 원 · 개인별 대출신청조기내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상환기간 3년, 조기상환가능하며 상환 수수료 없음 ·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예술융합종 8팀 내외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창업 애간대 프로젝트	창업지원	· '애간대'는 '예술가와 컨설턴트의 대화'의 줄임말로 가능성 있는 예술 창업 팀을 선발하여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및 예술창업을 활성화	· 한어종 재학생 및 졸업생(5년 이내)으로 구성된 청년창업 팀 (3명 이상, 타 대학 지원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한어종 학생 포함)	· 창업활동지원금 최대 2,000만 원 · 창업 기본교육 및 집중 컨설팅 · 예술 창작 활성화 세미나 및 워크숍 · 스타트업 브랜드 컨설팅, 창업 교육 아카데미 · 홍보·마케팅 및 회계·세무 지원 · 투자 활성화 IR데모데이 및 결과발표회 지원 · 네트워킹 기관, 기업 후속연계 지원 및 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창작(자) 지원	·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	· 만 35세 이하 청년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기금 비수혜자	· 분야: 문학, 시각, 다원, 공연, 전통 · 지원: 500만 원~최대 3,000만 원으로 분야별로 세부지원 내용은 상이 *2019년 신규 사업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지원	· 차세대 신진예술가의 창작 및 기획역량을 높이고, 소재 확장과	· 만 35세 이하 차세대 예술인	· 분야: 창작(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획, 무대예술(무대, 조명, 음향, 영상,

기명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차세대 예술가 공모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지원		공연 분야 · 지원: 총 49명 · 조사, 연구 지원, 최종발표 지원 등 세부지원 내용은 분야별 상이
	청년예술네트워크 구축	해외교류 지원	· 글로벌 예술창작 및 프로젝트 기획 환경에서 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젝트 기획경험 제공 ·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 및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국제예술교류 분야 전문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협력기반을 구축	· 만 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 3~7인의 모임	· 장르: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인, 융·복합 분야 · 예술 및 인접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 가능 · 2019년 동안 모임 구성원 협업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예술창작 혹은 프로젝트 기획 작업 · 지원: 항공료, 숙박비 및 발간비, 행사진행비 · 권역별 1인당 지원금액 정액 책정
	청년예술교류 역량강화	해외교류 지원	·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의 목표와 대상이 명확한 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장기적 지원의 국제교류 준비 작업을 지원 · 해외 기관 및 예술가와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우수 프로젝트 발굴의 기반을 조성	· 만 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 및 단체	· 장르: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분야: 예술가(단체), 예술기획자(큐레이터 등), 엔지니어 등 · 2019년 동안 추진하는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 준비 작업 · 지원: 항공료, 숙박비 및 발간비, 행사진행비 (최소 500만 원~최대 2,000만 원)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 청춘마이크	창작(자) 지원	·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행사) 기회 부여 및 지원을 통해 전문 문화예술기회의 성장 발판 제공 및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 정책 확산	·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예술가 · 1인~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 대상, 5인 이상도 신청 가능 (5인 초과 시 지원은 5인으로 한정)	· 연간 5회 지원 · 팀당 1회 70만 원(최소)-210만 원(최대) / 팀별 인원수에 따라 차등 · 구성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팀 인원 5명 이상인 경우 인원에 상관없이 1회 공연 당 최대 지원액은 210만 원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활동지원	·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체계를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미술, 음악, 무용, 연극,	· 경기도 청년예술인 20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300만원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제작비,

기관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지원	조성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민회의 11개 분야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사업성을 갖춘 자립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인천문화재단	경기도 예술인 상담사업	활동지원	·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속적 창작활동 보장	· 경기북부 거주자 및 대학 재학생/직장인으로 문화참여를 준비 중인 청년 또는 단체 (만 19세 ~ 39세)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부터 계약, 저작권,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과 컨설팅
	청년생애처음 지원사업	창작(자) 지원	· 인천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 인천 연구 기준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적은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예술인 또는 프로젝트팀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분야 · 선발된 개인 또는 팀의 공연 및 전시, 출판 등 사업결과물을 일정 형식 제한 없이 진행 가능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우대
비로 그 지원	활동지원	창작(자) 지원	· 신진예술가 발굴 및 지원 · 사람-공간-자원과의 연결을 돕는 소규모 지원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 만 39세 이하 · 청년예술가	· 심사위원 참여자와 관객이 선택한 개인 및 팀에게 지원금 300만 원 이내 지급 · 동료예술가와 함께 작업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 마련 ·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참여와 전문가 리뷰 등
				· 청년기획자: 만 39세 이하 독립큐레이터, 독립프로듀서, 기획자, 독립출판기획자, PD 등	·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 원 이내 ·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참여 · 결과 발표 등에 따른 홍보 지원 · '바로 그 지원' 참여 작가 풀 제공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창작(자) 지원 활동지원	·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문화도시 부산을 조성	·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공고년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 있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팀	· 기획형 : 팀당 최대 4,000만 원 · 커뮤니티 운영형 : 한 달 운영비 기준 최대 100만 원(10개월 지원) · 공통적으로 인건비, 제작비, 여비, 기자제 및 시설임대료, 홍보비 등

기원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창작(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 지원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젊은이 넘치는 활기찬 문화도시 부산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거주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부산에서 활동한 증명자료 제출 가능한 자 · 2019년 부산에서 예술활동 발표를 계획한 단체(팀) 및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분야(음악, 연극, 무용, 전통, 국악 등), 시각예술 분야(미술, 사진, 영상 등), 문학 분야 · 최소 300만 원~최대 1,000만 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창작(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중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지원 별도 편성 · 공연예술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들의 공연예술 분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 최근 2년 이내 활동한 증명자료 제출이 가능한 공연예술 분야 연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지원: 3명의 연출가 선정 후 700만 원 지원 · 2차 지원: 최종 심의 통과한 1명 5,000만 원 지원
	시상인디스테이션(CATs) 운영	창작기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음이 넘쳐나는 청년 인디문화 중심지로, 다양한 청년 인디 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지역 문화·예술 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동 : 다목적 홀과 전시 쇼케이스, 야외무대, 야외전망대 · 도관동 : 스튜디오, 레지던스, 사무실, 다문화센터
	민력인디트레 이닝센터	창작기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디문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자생력 향상과 인디문화 전문 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예술가 협업을 통한 다 장르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거점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연습실1, 다목적연습실2, 밴드개인연습실, 밴드합주실, 사무실
	청년문화 인력양성 교육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중심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청년 문화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수요자 실무능력 향상 및 일자리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거주 청년 30여 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청년문화 예비기획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 진행 · 교육과정 수료 후 우수 콘텐츠 선정(멘토링), 특별 프로젝트 수행 및 수료

기원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청년, 예술교육 헤커톤	교육	·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과 문화예술 융합으로 다양성과 창의성 창출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팀은 2인-5인 이하	· 총 11팀을 선발. 상금 및 후속개발비 지원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_캠보디아 ARTUK	해외교류 지원	·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청년문화 육성지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부산지역 청년 시각예술 작가 · 최근 2년 이내 부산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일정기간 캠보디아 체류 가능자	· 선정인원: 7명 선정 · 지원내용: 캠보디아 현재 체재비(숙박, 식비 등), 왕복교통비(비자), 작품 제작 재료비 지원 · 특유의 개별 디자인 작품 제작(Artwork) 및 캠보디아 파넬 예술대학 교류
대구문화재단	스타트업 지원	창작(자) 지원	·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예비 예술인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경력 향상을 통한 지역의 미래 가능성 발견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35세 이하의 예비 예술인 · 단독 전시회 및 연주회 등 개인 발표 이력이 없는 자 · 재단 및 공공 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자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 혹은 문학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총 300만 원 지원 · 문학 분야의 경우 개인 작품집 발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 개인예술가의 학위 청구용 및 기발표 발간물 제외 · 역량강화 워크숍 및 네트워킹 등의 간접지원 별도 추진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개인예술가만 지원 · 장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 · 재정지원: 선정예술가 상금 월 80만 원 · 활동지원: 교육 및 워크숍, 발표 및 연습공간 지원, 활동 모니터링 등 · 홍보지원 : 홍보자료집 발간 및 언론보도 지원 등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활동지원	·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예술인력의 발굴, 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청년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 청년예술가 육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역동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현장의 창작 저변 확대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35세 이하의 개인예술가 · 최근 3년 대구 내 활동실적 3회 이상 *2018년 선정 청년예술가 지속 지원으로 2019년 추가 공모 없음	· 기초 과정 30명, 심화 과정 20명 · 문화예술공동, 공연, 전시, 마을만들기, 축제, 시장활성화 총 6과목(각 6주 36시수) · 기획의 경험이 없는 입문자를 위한 기초 교육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교육	·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예술시장을 매개하는 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구 문화예술계 창작-매개-소비	· 20, 30대 (1998년생~1979년생) 기획의 경험이 없는 입문자 혹은 기초기 기획자	

기관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광주문화재단	청년문화실태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의 균형발전, 문화기획자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 청년세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문화기획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광주형 청년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문화적 관심과 정책 이슈를 확인하는 청년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지역의 다양한 청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의 경합이 걸지 않은 초기 기획자를 위한 심화 청년세대의 문화적 욕구, 문화 활동, 지원정책, 취업희망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문패널, 특정그룹 인터뷰, 정책포럼, 설문조사 실시 등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창작(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청년예술인의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 예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출판 공연예술 분야: 미술, 사진, 영상, 서예, 공예, 영화, 민화 등의 전시회 및 학술, 연구, 발간물 시각예술 분야: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예술 분야의 공연 및 학술, 연구, 발간물 문학·출판 분야: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작품집 및 기타 발간물 - 최소 300만 원~최대 500만 원(총 지원규모 1억 2천만 원)
대전문화재단	차세대 artiStar	창작(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예술가의 창작·발표 활동 지원으로 지역 대표 예술인 육성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전문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 문학, 시각, 공연(음악, 전통, 무용, 연극, 예술일반)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일부 지원 - 1년차(2019년 선정자) 400만 원~600만 원 (역량강화비/창작활동비) - 2년차(2018년 선정자) 500만 원~1,200만 원 (창작활동비)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 지원사업	창작(자) 지원 창작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역 내 갤러리 및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청년예술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역 내 소극장 공연 시 건당 최대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기관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세종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 프로젝트	지원	결과물을 공연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여 발표기회를 확대	· 청년예술인의 교육 및 공연 워크숍 등 운영에 대한 대전지역 문화예술관련 단체(위탁)	예술일반-대중, 연예), 다원
		교육	· 대전지역의 공연예술 분야 청년예술인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을 통하여 전문 예술가로 양성하고 정착하여 예술활동 여건 마련		
	청년예술가 육성	창작(자) 지원	· 세종시 내 청년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지원	· 세종시 지역의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며, 데뷔 10년 이하의 전문예술가	· 1개 단체에 시범 위탁 · 청년예술인 대상 공연예술 분야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공연 워크숍 운영비 최대 2,800만 원
울산문화재단	울청 (울산청년) 아티스트지원	창작(자) 지원	· 지역 청년예술가의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만 35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 문학(등단자), 공연예술(무용, 전통, 음악, 연극, 다원), 시각예술(미술, 사진, 영상 등) 분야의 전문예술인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자	· 개인 또는 단체 500만 원~800만 원 지원 · 문학, 시각, 공연(음악, 전통, 무용, 연극)예술 분야 분야별 학술연구, 창작, 발표, 활동 등 창작 역량 강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 · 단, 예술활동이 개인 창작이 아닌 단체 사업과 연계된 경우 지원 제한
		울청(자) 지원	· 지역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문화콘텐츠의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	· 만 35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 문학(등단자), 공연예술(무용, 전통, 음악, 연극, 다원), 시각예술(미술, 사진, 영상 등) 분야의 전문예술인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자	· 개인 500만 원~800만 원 지원 · 전문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활동 지원 · 책자 발간 및 전시·공연 등의 발표 지원 · 젊은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워크숍 및 멘토링 진행
강원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창작(자) 지원	· 강원도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 발굴, 지원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 저변 확대	· 만 35세 이하 강원도 거주 예술인	·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프로젝트 지원 · 장르 제한이 없는 청년문화 콘텐츠 지원 · 청년문화단체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비용 지원 · 총 8,000만 원(5개 내외 단체 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창작(자) 지원	· 강원도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 발굴, 지원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 저변 확대	· 만 35세 이하 강원도 거주 예술인	· 장르 : 문학, 시각,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 · 창작지원금(월 25만 원 이내)+직접사업비 최대 1,000만 원

기원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생애최초지원 프로젝트	창작(자) 지원	· 도내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예술경력 개발 기회 제공으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활동 도모와 진입 장려	· 강원도에 거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공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가	· 최대 2년 지원 ·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학, 시각, 공연예술(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 최소 200만 원~500만 원 지원 · 전시, 공연, 출판 등 창작 발표를 위한 사업비 지원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창작(자) 지원	· 도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창작환경을 만들어 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	· 만 35세 이하 도내거주 또는 지역 연구 예술가로 5년 이내 활동실적 있는 자	· 문학, 시각, 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예술 분야 · 최소 400만 원 ~ 최대 800만 원
충남문화재단	신진예술창작 지원사업 START	창작(자) 지원	· 장래성과 독창성을 갖춘 지역의 신진예술가와 신진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	· 총남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만 35세 이하 예술가(학생 제외)	· 지역의 신진예술가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신진예술가 교류협력 및 페스티벌 개최 등 최대 1,000만 원 지원 · 문학, 시각, 공연예술(음악, 전통, 무용, 연극) 분야
	생애최초 창작지원	창작(자) 지원	· 지역예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망인력(청년예술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창작, 발표 기회 활동 지원	· 총남에 연고를 둔 자로서 공공지원금 수혜 경향이 없는 만 29세 이하 개인	· 500만 원 이내 · 기획, 공연예술, 시각예술
	신진예술가 창작지원	창작(자) 지원	· 장래성과 독창성을 갖춘 지역의 신진예술가를 지원하여 지역 대표 예술인 육성 지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39세 이하 개인	· 1,000만 원 이내 · 분야: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_ 신진예술가	창작(자) 지원	· 창작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젊은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집중 지원	· 전복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하 예술인 · 최소 1회만 지원 가능	·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영역의 발간,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창작 활동 경비 지원 · 최소 200만 원~최대 2,000만 원 · 신창예산 중 직접경비 일부 지원 원칙 · 권역별 단채 1개 이상 선정 · 단채별 1,200만 원 내외 차등지원
	청년문화예술 대학_청년에대	교육	· 도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 문화예술프로젝트 기획, 운영경력 및 역량 있는	

기관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 - 청년예술가 활동지원사업	창작(자) 지원	청년문화예술인력 교육 프로그램 · 우수한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예술가로 육성 * 19년부터 2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진행 · 청년예술가의 창작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단체(공모)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개인, 팀 구성 참여 가능) · 18년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사업 수행자는 창작발표(2년차) 분야로 지원 가능	· 지원항목: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교욱진행비, 대외적 성과공유 발표 및 행사비, 결과물 제작비(단, 인건비 항목 및 단체 운영경비 사용 불가) · 창작준비(1년차) : 1,000만 원 이내 · 창작발표(2년차) : 1,500만 원 이내 - 창작준비(1년차): 창작준비 및 역량 강화 - 창작발표(2년차): 창작활동, 발표 및 역량 강화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차세대 유망예술인 지원	창작(자) 지원	· 경남 미래 문화예술을 선도할 신진 예술인 지원	· 최근 2년간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5세 이하 신진 예술인	· 총 10명 선발, 지원(1인 8,500만 원, 2회 분할교부) · 평가를 통해 차기연도 지원여부 결정 ·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시각예술(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분야의 예술활동 및 창작비용, 작품발표비용 지원
제주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_최초예술인 청년문화예술 '아티스트' 프로그램	창작(자) 지원 창작(자) 지원	· 사회 초년 예술가의 데뷔 및 창작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계로의 진입과 성장을 도움 · 제주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및 운영 지원하여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 공공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제주 청년 예술인 중 만 24세~34세 예술인 · 만 19~39세 청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청년문화예술인)	· 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1건 당 300만 원) · 주제 별 우수 2팀 선발하여 총 400만 원 상당의 프로젝트 후속 지원 연계(프로젝트 실행비 지급) ·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총 3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급 · 활동 종료 후 참가자 대상 수료증 수여
	청년예술 처음발표지원	창작(자) 지원	· 단독/개인 발표회 경력이 없는 예술전공의 청년예술가의 첫 단독/개인 발표회 기반 마련	· 만 19세~만 30세 도내 청년예술가 · 공고일 기준, 제주에 거주	· 최대 500만 원 · 선정된 예술가를 대상으로 단독/개인 발표회(개인전, 독주회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지원

기원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사업	활동지원	· 경쟁력 있는 지역 청년예술 인력의 발굴 및 육성 · 지속적인 재정 지원으로 창작 집중 기반 마련	등록된 자 · 단독/개인발표회 경험이 전무한 자 (2017년~2019년 예술 전공 졸업자 우선 고려) · 만 19세~만 39세 도내 청년예술가(학생 제외) ·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 등록 2년 이상의 전업 예술가(4대보험 미가입)	· 최대 1,000만 원 (5명 내외) · 매월 100만 원 활동비 지원 (원천세 8.8% 포함) · 월간보고서(당월 활동결과보고서 및 내달 활동계획서)를 근거로 매월 분할 지급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창작기반 지원	· 증가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공공창작 공간 수요에 부응하여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예술가의 창작의욕 고취	· 만 19세~만 39세 도내 청년예술가(대학 재학생 제외) ·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 등록자	· 최대 500만 원 (6명 내외) · 청년예술가의 작업, 발표, 연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2019년 3월~12월, 10개월 동안의 임대료 지원) · 지원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에 한해 연습실, 공연장, 갤러리, 공방, 창작직업실로 신청 가능)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지원	창작(자) 지원	· 청년문화예술인 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 생태 활성화 유도	· 만 19세~만 39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대학생 가능) · 도외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의 경우 반드시 도내 활동계획 필수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대 2,000만 원 (5명 내외) ·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주체가 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제주대표 청년문화 사절단 지원	문화기획	· 제주의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향상	· 만 19세~만 39세 · 공고일 기준 제주도 거주 등록자 · 공연분야 청년예술단체	· 전문기획사를 통한 도/내외 공연 섭외 및 매니징 (총 5회 공연지원) · 사업기간 내 5월~12월 중 7개월간, 매월 70만 원의 공연활동 지원비 지급 (원천세 8.8% 포함) - 사업지원 시 명기된 인원만 지원, 변동된 인원은 지원 불가

기관명	사업명	구분	목적	대상	지원내용
	포털서비스_이트노크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작품을 기록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홍보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매개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만 39세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마다 개인 도메인 부여 재단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지원 협약기관 및 다방면 통한 매개지원 온라인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콘텐츠 편당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대중에게 콘텐츠를 알리고, 자생적 자원 조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과 관련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만 19세 ~만 39세 청년(개인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컨설턴트 1:1 매칭 및 컨설팅(기획단계에서 완료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록 상품 촬영(사진 및 영상) 지원 온라인 플랫폼 등록 후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유료광고) 펀딩 관련 교육 진행(펀딩운영 및 홍보방안) 배송비 지원 프로젝트 창작자 간 네트워킹(워크숍)

자료: 각 기관 사이트 재구성

2_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현황

1)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흐름

- 서울문화재단 경력단계별 지원사업 로드맵
 - ‘태동기→진입기’: 예술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청년예술지원’
 - ‘진입기→성장기’: 잠재력과 수월성을 갖춘 예술가를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
 - ‘성장기→안정기’와 ‘안정기→지속기’: 안정된 창작역량을 가진 예술인(단체)의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과 창작역량을 갖춘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협력을 통해 창작품을 보급하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표 3-2] 서울문화재단 경력단계별 지원사업 로드맵

단계	태동기 → 진입기	진입기 → 성장기	성장기 → 안정기	안정기 → 지속기
관련 지원사업 및 사업방향	청년예술지원	유망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계 진입하고자 하는 신진예술가 지원	잠재력과 수월성을 갖춘 유망 예술가 지원	안정된 창작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의 작품제작 및 발표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안정된 창작역량을 갖춘 단체와 공연장의 협력을 통해 창작품 보급·확산	

- 2016~2019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운영 흐름
 - 2016년 시범운영했던 ‘비기너스 프로젝트’가 최초의 사업. ‘최초예술지원’과 ‘소액多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1억8천만 원
 - 2013년부터 운영했던 ‘소액多컴’을 차용하여 운영. 자유발표 및 동료심사제의 열린 심사, 소액을 지원하고 정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 2017년은 청년예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 예산이 총 75억 원으로 급증. ‘최초예술지원’,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등을 추진
 - 서울청년예술단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 2018년에는 총 7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최초예술지원’, ‘서울 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을 추진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이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
 - 2017년에 추진했던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원’ 사업은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청년예술공간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 2019년에는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기획형 청년예술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90억 원
 - 기획형 청년예술단은 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창작공간, 미디어, 지역 문화, 메세나 등)을 연계·협력하여 운영

[표 3-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운영 흐름(2016~2019)

구분	연도	사업명	예산 총액	세부내용
시범 운영	2016	비기너스 프로젝트 1. 최초예술지원 2. 소액모کم	1.8억 원	-2013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운영 중인 ‘작은예술지원사업 : 소액모کم’의 운영모형을 차용하여 ‘최초예술지원’의 시범사업으로 ‘비기너스 프로젝트’ 시행 => 자유발표+동료심사제의 열린 심사, 소액지원 무정산 등 적용 -2016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청년예술지원사업> 사업 설계 진행(하단 첨부 참조)
신설	2017	청년예술지원사업 1. 최초예술지원 2.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원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75억 원	-<청년예술지원사업> 본격적으로 시작 -‘서울청년예술단’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은 서울문화재단 타 부서(지역문화팀)에서 운영
계속	2018	청년예술지원사업 1. 최초예술지원 2. 서울청년예술단 3.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명변경)	70억 원	-‘서울청년예술단’ 서울문화재단으로 사업 이관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원’ 사업 수정 보완 후 ‘청년예술공간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예술지원사업에서 지역문화팀 사업으로 이관
계속	2019	청년예술지원사업 1. 최초예술지원 2. 서울청년예술단 3. 청년예술공간지원 4. 기획형 청년예술단	90억 원	-창작지원팀(총괄)+창작공간(운영)=> 예술기획팀으로 통합 운영 -‘기획형 청년예술단 : 000X청년예술단’ 운영 => 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창작공간, 미디어, 지역문화, 메세나 등)과 연계하여 타본부/팀 협력으로 운영

○ 2017~2019 청년예술지원사업 예산 및 선정 규모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을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서울청년 예술단 운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75억 원에서 2018년 70억 원, 2019년 68억 원⁵⁾으로 조금씩 감소세

-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최초예술지원이 37.6억 원(502건 선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년예술단이 22.4억 원(47건 선정),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이 8억 원(26건 선정) 순

[표 3-4] 청년예술지원사업 예산 및 선정 규모(2017~2019)

구분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서울청년예술단	계	
2017	예산	75억 원		(55억 원) *서울시 운영	75억 원
	선정규모	629건	34건	(105건)	663건
2018	예산	70억 원			70억 원
	선정규모	456건	35건	58건	549건
2019	예산	37.6억 원	8억 원	22.4억 원	68억 원
	선정규모	502건	26건	47건	575건

2) 2019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현황

-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사업예산이 총 90억 원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공모형 사업(68억 원)과 신규로 설계된 기획형 사업(22억 원)으로 구성
 - 지원 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기타
- 공모형 사업은 현장 청년예술인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예측가능하고 안정화된 유형의 정기공모로 운영
 - 예산 규모는 총 68억 원
 - 세부사업은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으로 구성

[표 3-5]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중 공모형 사업

구분	대상	세부구분	
최초예술 지원	청년예술인 개인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창작준비형	단년(1년)
		창작발표형	단년(1년)
			다년(2년)
서울청년 예술단	청년예술인 단체 (35세 이하로 구성)	1년간 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단년(1년)
		2년간 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다년(2년)
청년예술 공간지원	민간 공연장/전시장/복합문화공간	발표공간 제공형 (공간운영비 지원)	단년(1년)
		자체기획형 (공간운영비+사업비 지원)	

5) 2019년에는 기존의 공모형 사업(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이 68억 원, 신규 기획형 사업 22억 원으로 설계

[표 3-6]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 관련 간접지원

구분	내용
멘토링	-사전조사 : 지원신청 시 멘토링 희망여부 등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신청접수 : 멘토링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신청 접수
발표공간	-선정된 청년예술공간과 연계 시 대관료 50% 이상 할인 제공
네트워킹 및 워크숍	-선정된 서울청년예술단 대상 <활동공유워크숍> 진행(전 장르)
청년예술포럼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정책의견 제안 및 상호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청년예술포럼 진행
연구·조사	-운영 3년차에 따라 장기 비전을 갖춘 <청년예술지원체계> 구축 연구 준비
홍보	-선정자 발표 작품 통합 홍보(재단 보유 다양한 매체 활용 홈페이지, SNS, 웹진 등) -재단의 청년크리에이터(홍보팀 주관)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의 작품 활동 및 발표에 대한 아카이빙 및 집중 홍보 진행

- 2019년부터 신규로 재단 보유 전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각 영역을 특성화한 기획형 사업 운영
 - 예산 규모는 총 22억 원
 - 세부사업은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제휴-매칭형 청년예술지원’ 등으로 구성

[표 3-7] 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중 기획형 사업

사업구분	내용	관련 전문영역	연계 가능 관련 부서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창작공간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상주형 청년예술인 그룹 구성 -구성 방법은 공모, 추천, 자체 구성 등 공간별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개별 수립	기존 보유 창작공간 인프라 기반 영역	연희문학창작촌 삼일로창고극장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서울예술치유허브
지역형 청년 예술단 지원	-청년예술인 그룹이 지역 또는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환경적 기반 제공 -자치구 문화기관(문화재단/구청)과 청년예술인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견·발전시키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물을 문화예술 창작물로 제작하여 발표	지역 및 사회 이슈 관련 영역	문화기획팀
청년 크리에이터 지원	-재단이 보유한 홍보 매체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의 예술 기반 활동을 아카이빙하고 집중 홍보하는 ‘청년크리에이터’ 발굴 및 지원 -서울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공연/전시/행사 및 재단 공모형/기획형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예술인의 결과물(공연, 전시 등)을 영상콘텐츠로 제작/배포하여 크리에이터의 관심·취향·기호가 실현되는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조성	영상 및 홍보 관련 매체 기반 영역	홍보팀
제휴·매칭형 청년예술 지원	-기업의 예술 후원 장려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재단이 보유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소소한 기부 등)을 확대하여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한 대안적 지원 기반 마련	제휴, 기부, 민간 자원 매칭 관련 영역	메세나팀

04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혁신방안 논의



1. 지원사업 만족도 논의
2. 지원사업 혁신방안 논의

04.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혁신방안 논의

1_지원사업 만족도 논의

1) 2017 청년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⁶⁾

(1) 2017 최초예술지원

① 조사 개요

-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에 따르면, 서울시 약 5만여 명의 예술인 중 청년 예술인은 38%로 약 1만7천 명이며, 대체로 소득이 낮고 불규칙하여 겸업하는 비중이 40.1%에 달함. 특히 예술활동 경력이 짧은 청년 예술인은 기존 지원사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공적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하고 공공 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청년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는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연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사업 대상, 수행 기간, 과정별 체계 등 사업 구조와 운영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최초예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⁶⁾ 「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참여예술가 만족도 조사 연구」, (남은정 외, 2018, 서울문화재단)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표 4-1] 2017 최초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최초예술지원 전체 선정(신청)자(632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이메일)
조사기간	2017년 12월 14일(목)~12월 21일(목)(8일간)
주요 조사내용	1) 최초예술지원사업 참여자 활동 경력 / 참여 배경 2) 사업 인지경로 / 지원동기 3) 사업에 관한 세부 만족도: ①사업 목적별 기여도 ②사업성과 만족도 4) 청년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기반 지원 5) 사업 관련 자유의견 및 건의사항 6) 조사 참여자의 일반사항(사업유형, 성별, 장르, 연령)

② 조사 결과

○ 예술활동 기간

- 응답자의 예술활동 기간은 '3년~5년'(24.9%)이 가장 높았고, '1년~3년'(20.4%), '5년~7년'(15.0%) 순으로 나타남
- 5년 미만의 활동 기간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54.0%였으며, 5년~10년 이하가 27.1%, 10년 이상이 18.8%인 것으로 조사됨

○ 지원사업 신청 경험

- 최초예술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이나 청년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청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원사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가 없어서'(47.7%)가 가장 높게 조사됨. 다음은 '공모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20.6%), '예술활동 경력이 부족해서'(12.6%), '행정 절차가 어려워져서'(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신청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2회 신청 경험이 있는 비율이 55.4%로 절반 이상이었음. 5회 이상 신청한 응답자도 24.0%로 조사됨

○ 최초예술지원사업 인지경로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인지경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39.6%), '지인을 통해서'(38.6%)가 가장 많았고 'SNS를 통해서'(13.3%),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5.9%) 순으로 나타남

○ 지원 동기

- 최초예술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복수 응답 결과)로는 '창작물 발표를 위한 비용이 필요해서'(76.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창작물을 시도하기 위해'(64.4%), '창작물 발표를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21.0%) 순으로 나타나며, '창작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9.9%), '협업 또는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서'(9.9%)가 동일하게 수치를 얻음

○ 사업목적 기여도

- 사업 목적별 기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 사전 준비 지원'의 취지에 '매우 기여함' 46.9%, '기여함' 3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업의 취지를 긍정하고 있음
 -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 취지에는 '매우 기여함' 54.3%, '기여함' 31.0%로 나타남
 - '예술활동 경력 개발 기회 제공' 취지에는 '매우 기여함' 42.4%, '기여함' 39.5%로 나타남
 - '예술계 진입 장벽 완화'에는 '보통임'(32.8%), '기여함'(30.3%), '매우 기여함'(27.1%) 순으로 나타남
 - 사업 목적별 세부 항목에서 참여자 관점으로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항목은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과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 사전 준비 지원'으로 나타남
-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⁷⁾로 환산 시,
 -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 항목이 4.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 사전 준비 지원은 4.3점, 예술활동 경력 개발 기회 제공은 4.2점 순으로 나타남. 예술계 진입 장벽 완화는 3.7점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청년 예술인 창작 기반 지원

- 청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은 위한 기반지원(복수 응답 결과)으로는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82.9%)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고정적인 창작 활동비 지원'(70.2%), '창작물 발표를 위한 공간 지원'(61.0%), '창작물 발표에 도움이 되는 홍보마케팅 지원'(45.9%) 등 순으로 나타남

7) 5점 척도는 전혀 기여 못함(1)-기여하지 못함(2)-보통임(3)-기여함(4)-매우 기여함(5)으로 설정

○ 사업만족도

-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함' 48.6%, '매우 만족함' 36.5%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이 많았으며, 그 외 '보통'(12.2%), '만족하지 않음'(2.5%), '전혀 만족하지 않음'(0.3%) 순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의 공모 자격 요건'은 '만족함' 49.6%로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치보다 높았음
 -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만족함' 40.9%, '지원금의 규모'는 '만족함'이 39.0%로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치보다 낮았음
 -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⁸⁾로 환산 시,
 -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원사업의 공모자격 요건은 4.1점, 지원금의 사용범위는 4.0점으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지원금의 규모는 3.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사업 개선점 및 발전 방안

- 최초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주관식 선택 응답 항목에 대하여 총 220명(49.3%)이 응답함
- 사업 선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최초예술지원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약 70여 건(약 30%) 정도였음. 좋은 경험과 기회, 실험, 새로운 작업을 위한 밑거름 등 긍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뤘음
-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도 약 70여 건(약 30%) 정도 나타남. 사업 일정과 촉박한 기간에 대한 의견, 재단 담당자의 친절한 응대에 대한 감사, 사업 홍보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었음. 특히 사업의 행정 절차와 정산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그중 30여 건(약 14%)을 차지함

○ 기타

- 지원금 이외에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지원받길 원하거나 사업 종료 후 후속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약 50건(약 23%)이 있었음. 선정자 간 네트워킹 강화, 멘토링이 가능한 전문가와의 연계, 선정 작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 공간 연계, 출판·재공연 등 후속 작업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 지원금에 관한 의견은 30여 건(약 14%)이 있었음. 지원금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원금 사용 범위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⁸⁾ 5점 척도는 전혀 기여 못함(1)-기여하지 못함(2)-보통임(3)-기여함(4)-매우 기여함(5)으로 설정

- 평가와 피드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10여 건(약 5%)이 나타남
- 지원 대상 및 범위(나이제한 폐지 등-추가)에 대한 의견도 소수 있었음

(2) 2017 서울청년예술단

① 조사 개요

- 서울시는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나 기회가 부족하여 경력을 쌓지 못하고 공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 및 공공 활동 기회를 제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서울시는 36명 멘토단 운영 및 창작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104개 단체 483명의 서울청년예술단을 지원하였음
- 이에 서울청년예술단 및 멘토단을 대상으로 서울청년예술단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사업 효과나 사업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사업 개선방안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표 4-2] 2017 청년예술단 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청년예술단 316명(응답률: 65.4%) -멘토 28명(응답률: 77.8%)	
조사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7년 10월 23일(월)~10월 30일(월)(8일간)	
주요 조사내용	청년예술인	-서울청년예술단 참여경로 / 참여 동기 -서울청년예술단 전반적인 만족도 / 만족 및 불만 이유 -사업 참여에 대한 세부 만족도 -기대 대비 만족도 / 재참여 의향 / 추천의향 -사업 운영을 위한 향후 우선 중점사항 -사업 관련 자유의견 및 건의사항
	멘토	-서울청년예술단 참여 동기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의 효과 여부 / 사업 효과가 있는 이유 -서울청년예술단 전반적인 만족도 -사업 운영 관련 의견 -내년 재참여 의향 -향후 우선 중점사항 -사업 관련 자유의견 및 건의사항

② 조사결과

- 주위 지인에 의해 참여한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21.2%)를 통해, 인터넷(16.8%)을 통한 경우 순
- 서울청년예술단 참여 동기(중복응답)
 - 청년예술단은 창작활동비 등 일정한 지원 때문인 경우가 80.7%로 가장 많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경험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서(51.6%), 멘토단과 청년예술인 인적교류를 위해(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멘토단은 예술활동 경험이나 경력을 조인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으며(71.4%), 신규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7.1%), 관련 다른 멘토 등과의 인적 교류를 위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의 효과
 - 멘토 모두 본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이 젊은 예술인들이 경력을 쌓아 예술인으로 진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4.8%
 -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만족도가 85.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 및 지원 기간에 대한 만족도(80.7%), 멘토 지원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79.4%), 서울시의 청년예술단 요구사항 이해에 대한 만족도(78.2%), 행정 및 회계처리 절차 만족도(5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의 만족·불만 이유
 - 만족의 이유로는 창작활동비 등 직접적 지원이 94.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멘토링 등 간접적 지원(48.7%), 예술가로서 경력이나 경험 축적(47.2%), 기획·창작·발표 등 전 과정 직접 경험(44.6%),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17.5%), 기타(2.2%)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의 이유로는 행정 및 회계 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것(75.0%)을 첫 번째로 꼽음. 다음으로는 다른 공공지원사업과 중복혜택을 받지 못함(72.9%), 단체 활동 및 인적 교류 등이 부족(39.6%), 멘토 등 간접 지원이 부족(33.3%), 직접 지원이 부족(29.2%), 지원기간이 짧음(16.7%), 기대대비 경험/경력을 축적하기에 부족(14.6%), 기타(12.5%) 순

- 서울청년예술단 재참여 의향
 - 청년예술단은 향후 사업 재참여 의향이 86.1%로 대부분이 재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주위 추천의향은 95.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멘토단은 향후 멘토링 재참여 의향이 96.4%
- 멘토단의 서울청년예술단 운영 관련 의견
 - 청년예술가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지원을 축소하더라도 지원받는 인원을 확대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28.6%, 지원받는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지원금을 확대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남
 - 다른 공공예술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중복 수혜를 제한하자는 의견은 28.6%,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을 제외하자는 의견은 7.1%
 - 멘토 1인당 담당 단체 수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1.4%로 가장 많았음. 담당 단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1.4%, 담당 단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7.1%로 나타남
 - 월 1회 멘토링 및 모니터링 횟수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71.4%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 단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1.4%, 횟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음
- 서울청년예술단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사항(중복응답)
 - 청년예술단은 행정 및 회계 처리를 간소화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76.6%)했으며, 지원 및 지원 기간 확대(58.2%), 전문성 등 우수한 멘토 확보(34.8%), 사업관련 안내 및 정보 확대(32.9%), 네트워크 교류 활동 확대(26.6%), 저명인사 멘토링 등 특강 확대(16.1%), 기타(8.5%) 순으로 나타남
 - 멘토단 역시 행정 및 회계 처리의 간소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64.3%)했으며, 네트워크 교류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60.7%)도 높게 나타나. 그 외 사업관련 안내 및 정보 확대(50.0%), 우수한 멘토 확보 및 연결(39.3%), 참여 젊은 예술인 지원 및 지원기간 확대(32.1%), 특강 등 확대(10.7%), 기타(14.3%) 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

2) 2018 청년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⁹⁾

(1) 2018 최초예술지원 및 서울청년예술단

① 조사 개요

- 청년예술지원사업 가운데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 공간지원] 사업별로 전체 선정(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의 기여도, 만족도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활동경력, 인지경로, 지원 동기 등 배경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항목별 정량적 결과 도출

[표 4-3] 2017 청년예술단 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청년예술지원 전체 선정(참여)자(549명) - 최초예술지원(456명) - 서울청년예술단(58명) - 서울청년예술공간(35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이메일)
조사기간	2018년 10월 18일(목)~10월 27일(토)(10일간)
주요 조사내용	1) 사업 참여자 활동 경력 / 참여배경 2) 사업 인지경로 / 지원 동기 3) 사업에 관한 세부 만족도: ①사업 목적별 기여도 ②사업성과 만족도 4) 청년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기반 지원 5) 사업 관련 자유의견 및 건의사항 6) 조사 참여자의 일반사항(사업유형, 성별, 장르, 연령)

② 조사 결과

○ 사업 전반 만족도

- 청년예술지원사업 사업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응답률은 최초예술지원 52.0%, 서울청년예술단 50.0%, 청년예술 공간지원 71.4%였음
- 각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조사됨
 -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85.3%임

⁹⁾ 「2018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예술인(단체) 만족도 조사 연구」(남은정 외, 2018, 서울문화재단)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92.6%임
 - 청년예술공간지원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92.0%임
- 사업목적별 기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음. 특히 각 지원사업의 특징에 맞는 사업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함
-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에 기여함/매우 기여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87.9%임
 -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창작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기여함/매우 기여함이 96.3%임
 - 청년예술공간지원의 경우, ‘예술공간의 운영기반 지원’에 기여함/매우 기여함이 88.0%임
 - 다만, 예술계 진입 장벽 완화의 경우, 기여함/매우 기여함에 대하여 최초 예술지원 58.6%, 서울청년예술단 66.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응답을 보임
- 예술활동 기간과 지원사업 신청 경험
- 응답자의 예술활동 기간은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3년 이상~5년 미만(22.8%), 서울청년예술단은 5년 이상~7년 미만(37.9%)이 가장 많았음. 청년예술공간지원은 예술공간 운영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44.0%)이 가장 많았음
-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응답자의 48.9%가 예술활동 기간이 5년 미만이었고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응답자의 68.9%가 예술활동 기간이 5년 이상이었음
 - 청년예술공간지원은 응답자의 68.0%가 예술 공간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이었음
- 지원사업 신청 경험은 최초예술지원 응답자의 59.3%가 신청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청년예술공간지원은 68.0%가 신청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반면, 서울청년예술단 응답자는 20.7%가 신청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도 신청 경험 횟수는 2회 이하가 69.4%였음.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가 없어서’(37.1%)와 ‘공모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22.9%)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30.4%가 '6회 이상' 신청해 본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최초예술지원사업이 경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사업에 입문하지 못한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단체 대표자가 설문 응답자인 경우가 많다보니, 예술활동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많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지원사업 인지 경로
 - 지원사업 인지 경로는 최초예술지원은 '지인을 통해서'(45.5%)가 가장 많았고, 서울청년예술단과 청년예술공간지원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가 각각 60.7%와 64%로 가장 높았음
 - 가장 유효한 사업 인지 경로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와 지인을 통한 안내와 추천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인지는 최초예술지원 41.6%(2위), 서울청년예술단 60.7%(1위), 청년예술공간지원 64.0%(1위)였음
 - 지인을 통한 인지는 최초예술지원 45.5%(1위), 서울청년예술단 28.6%(2위), 청년예술공간지원 20.0%(2위)였음
- 지원 동기 및 창작활동 기반
 - 청년예술지원사업 지원 동기와 청년 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지원사항에 대한 의견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높았음
 - 청년예술지원사업 지원 동기에 대하여,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한 응답자는 '창작물 발표를 위한 비용이 필요해서'(74.3%)와 '새로운 창작물을 시도하기 위해'(68.7%) 등 창작을 위한 비용 마련을 꼽음
 - 서울청년예술단 참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비가 필요해서'(92.6%)를 지원 동기로 밝힘
 - 청년예술공간지원 참여 응답자는 지원 동기로 '공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84.0%)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44.0%),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40.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기반 지원사항에 대하여, 최초예술지원사업 참여 응답자는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84.1%), '고정적인 창

작 활동비 지원'(76.3%), '본인(지원자)의 사례비 지원'(53.9%) 순으로 많이 응답함

- 서울청년예술단 참여 응답자는 '고정적인 창작 활동비 지원'(92.6%), '창작물 발표를 위한 제작비 지원'(85.2%), '본인(지원자)의 사례비 지원'(48.2%) 등의 순으로 많이 응답함
- 예술공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지원으로는 '공간 운영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33.8%), '공간 활성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25.0%), '(청년)예술인 교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1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었음

2_지원사업 혁신방안 논의

1) 2018-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1) 서울문화재단의 현 지원체계

- 태동기 → 예술계 진입 (청년예술지원)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지원시스템으로, 예술창작활동 기회 및 안정적인 활동 기반 지원
 -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등의 사업 추진
- 진입 → 성장기 (유망예술지원)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망 예술인(단체)을 선정하여 다년간(2년) 집중 지원
 - 데뷔(설립)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유망예술지원사업 추진
- 성장기 → 안정기 (예술창작지원 - 예술작품지원)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망 예술인(단체)을 선정하여 다년간(2년) 집중 지원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등의 사업 추진

[표 4-4] 서울문화재단의 현 지원체계(2018년 기준)

태동기 → 예술계 진입 (청년예술지원)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지원시스템으로, 예술창작활동 기회 및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예산 (천 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천 원)	
최초 예술지원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또는 데뷔(설립) 10년 이하 예술인(단체)	창작준비형: 200만 원(시상금) 창작발표형: 500만 원~1,500만 원	7,000,000	1차	266	1차	1,519,200
				2차	190	2차	1,162,918
				3차	456	3차	2,682,118
서울 청년 예술단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창작활동비(월 70만 원/인), 창작지원금(최대 1,500만 원/단체), 간접 지원	7,000,000	58		2,400,600	
청년예술 공간지원	청년예술 창작발표, 기획사업 운영이 가능한 민간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등	자체기획형: 공간운영비 및 사업운영비(2,000만 원~5,000만 원) 발표공간제공형: 공간운영비(2,000만 원 이내)		35		863,000	
진입 → 성장기 (유망예술지원)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망 예술인(단체)을 선정하여 다년간(2년) 집중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예산 (천 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천 원)	
-	데뷔(설립)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	창작지원금, 연습/발표 공간, 멘토링, 사진/영상 촬영 등 (700만 원~2,000만 원) ※2년간 지원	500,000	28		400,000	
성장기 → 안정기 (예술창작지원 - 예술작품지원)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망 예술인(단체)을 선정하여 다년간(2년) 집중 지원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예산 (천 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천 원)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서울에서 예술활동을 계획한 예술단체-예술가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 원~5,000만 원)	5,048,000	334		4,623,900	

(2) 지원체계 개선 방향(예술지원의 3대 방향)

- 서울형 지원체계 모델 구축
 - ‘e나라도움 정산시스템’ 개선 등 지원제도 간소화, 합리적·효율적 운영방안

- 심사, 평가, 정산 등 서울문화재단만의 독립적인 체계 구축
- '서울스탠다드'(Seoul Standard) 지원 모델 제시
- 다년도 지원사업 확대, 협업과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역 기반의 예술인 공동체 형성 지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의 범주를 개발·확대
- 자원, 공간, 기술의 연계와 환류,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체계 대안 제시
- 예술인의 창작지원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와 합리적 배분
- 청년예술인 예산 활용, 정기공모 예산 확대, 창작공간 활용 간접 지원 확대
- 지원사업 담당 조직 인력의 단계적 확대
- 예술인 당사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
 -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반영
 - 예술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예술인 친화형 지원체계 마련
 - 지원과정과 평가, 정보서비스의 패스트트랙 추진
- 예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원 혁신
 - 블랙리스트를 극복하고, 미투운동을 성찰하는 예술지원체계
 - 문화예술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예술지원제도 구축
 - 국가문화예술정책에서 예술지원체계의 새로운 비전 반영
 - 예술창작의 변화, 예술인의 삶, 기술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지원 영역 개발
 - 다원적이고 융합적인 예술창작 분야의 지원 확대

(2) 지원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

① 지원의 대상

- 지원사업 영역의 체계 개선
 - 새로운 창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장르별 지원 영역들을 재조정,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지원사업의 대상 체계 개선
 - 기존 지원사업들이 서로 변별성이 없고 층위가 맞지 않아 새로운 구조적 체계 정비가 필요

- 예술작품창작지원과 예술가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체계를 간단하게 정비
- 생애주기별 예술가 지원
 - 청년예술인, 장년예술인, 노령예술인 등 생애주기별로 특성화하여 장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범주로 구성
- 특수 지원 대상자 지정 사업
 -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별도 대상(예술대학 재학생, 경력 단절 여성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서울시 거주 외국인 예술인 등) 사업 범주를 구성

② 지원의 방법

- 공모시기의 조정과 복수화
 - 정기공모사업의 공모시기 전년도 10월부터 공고, 해당년도 1월에 발표 되는 일정으로 진행
 - 일부 특별사업은 해당연도 상반기 진행, 일부 계기성 지원은 수시 지원 도입
- 신청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 지원신청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세한 정보 설명으로 지원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 지원 규모의 다양화
 - 지원사업별 규모를 차등하여 전체적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
- 지원 내용의 다원화
 - 예산 지원뿐 아니라 공간, 컨설팅, 홍보 지원 등 지원내용 다원화를 통해 지원서비스 체제 강화
- 지원사업 담당인력의 확충
 - 실제 지원사업의 방법들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전담인력의 보강 필요

③ 지원의 절차와 과정

- 예술현장의 지원사업 정보 접근권 강화
 - 예술지원 서비스센터로서의 지원기관
 - 지원사업 정보서비스 상시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정보공개요청 유지 및 이의제기 제도 공식화 필요
 - 심의·평가 결과 DB의 체계적 관리

- 심의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 확대보다 절차적 공정성과 공개주의 강화: 심의 절차 및 과정의 공개주의 강화 등
 - 심의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현장중심주의 반영과 비례대표성 입각 위촉 기준 명확화
 - 심층심의 확대: 이 경우, 심의 절차 소요시간 산정 및 심의사례비 증액 등 동시에 고려 필요
- 심의·평가체계 개선
 -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기능 활성화
- 선정사업에 대한 홍보와 리뷰 및 비평 활동 강화
- 지원의 처음과 끝의 유기적인 과정과 흐름 개선

④ 행정체계 개선

- 행정체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
 - 전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업무 간소화 등
- 지원조직의 혁신
 - 창작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신(新) 행정체계 구성TF 도입
 - 정산, 평가, 민원처리 등의 전문 분야에 맞춘 독립적인 그룹 혹은 팀 조직 운영
 - 민원대응팀, 현장소통팀 등 외부 방어력 강화방안 마련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책임분담 및 단계별 업무의 분화
- 지원제도의 내용 개선
 - 예술가의 창작주기에 맞춘 행정서비스 도입 및 정산에 실패한 예술가 구제제도 등 행정처리 관련 출구 전략 모색
- 시대에 맞는 예술지원통합시스템 구축
 - NCAS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재단만의 고유한 예술정보시스템 마련하여, 연동 용이하고, 이용하기 쉽고 간소하며, DB 수집과 향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예술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창작지원의 당사자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예술행정가의 입장이 반영된 운영시스템 개선
 - 법제도가 보장하는 창작지원의 안전한 실무 환경 구축
- 예술지원사업 파트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사제도 개선
 - 창작지원 파트의 특수성(정책전문성, 현장소통성 등 창작지원 파트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요청됨)을 고려하여 기존의 순환보직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⑤ 정산체계의 혁신

- 행정체계 혁신 및 관계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정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서울문화재단만의 정산체계 혁신과 시스템 도입
- 상시 안내가 가능한 지원사업 정산 전담 서비스센터 운영
- 정산회계검증제도의 지속 운영과 안정화

(3) 청년 분야 지원체계 개선 주요 내용

① 개선방향

- 청년예술에 대한 인식 및 접근에 대한 재고찰
 - '청년'의 범주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요구되며, 청년의 대상과 범주, 청년성, 존재성,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원기관과 청년예술가 사이의 공통된 상(象) 필요
- 청년예술가의 주체성과 특수성이 보장되는 사업 설계
 - 청년예술가가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 마련
 -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구조화하는 방안 마련
 - 동시대 청년예술가의 특성인 소통 중시, 과정 중시, 협업 중시, 장르 간 장벽 철폐,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관행, 예술가의 윤리의식 등이 고려된 사업 설계가 강하게 요청됨
- 최초성을 고려한 사업의 충분한 유연성 필요
 - 청년예술가의 새로운 창작방식, 변화하는 예술 형태의 대응을 위해 행정 요건 및 추진 절차의 유연성, 연계프로그램 지원의 긴밀함 등이 요구됨

- 기존 '지원'사업의 의미 고찰 및 차별화 된 프로그램 필요
 - 예술가의 수월성,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프레임과 이를 벗어나려는 청년예술가의 인식 차이 발생
 - 청년예술가는 사업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단계별 이슈에 대해 소통·공유하며 상호 피드백을 나누기 원하는 특성이 있음. 즉, 지원자-평가자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소통관계 설정 요구

②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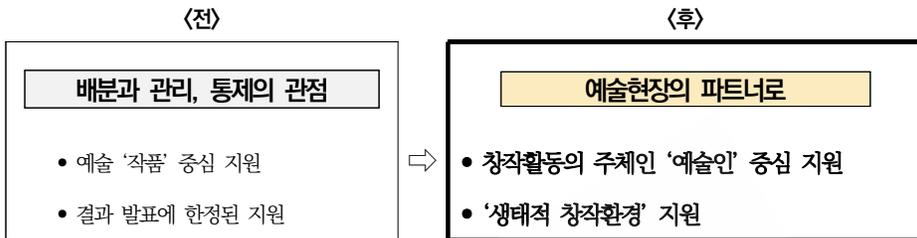
- 청년의 조건과 범위를 확대하는 범청년예술정책 수립: 서울청년예술가에 대한 재정의
 - 자기계발형 예술가, 플랫폼구축형 예술가 등 당사자 이슈에 입각해 지원 제도 마련
 -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의 존재성 인정 및 지원의 범주에 해당하는 예술가 범위 확대
-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개방적 구조 마련: 청년예술위원회 설치
 - 사업의 각 단계에서 청년예술가가 참여 가능한 지점들은 직접 운영
 - 비전문성, 비경험성 등을 만화하는 '집단지성', '자발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수행적 제도 마련
- 시작하는 청년예술가를 위한 충분한 조건: '실패를 위한' 시간, 기회의 보장
 - 충분한 사업 수행 기간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최초 예술가를 위한 사후평가제도 적용 및 다년간 지원트랙 활성화
-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식적인 채널: 접근 용이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의 공식적인 가이드와 매뉴얼 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 소개와 가이드를 담은 상세한 매뉴얼 등을 제공. 사업기간 중반 이후 정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워크숍 진행
- '과정'을 위한 소통 채널 및 모니터링 제도: '소통-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구축
 - 심사, 현장평가, 사후모니터링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모든 참여자가 현장평가 피드백을 받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심사자, 평가자 등을 청년예술가들이 추천·선정하는 청년예술가 평가위원 풀을 마련하고, 제도 내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과정평가, 메타평가 등을 수행하는 당사자 중심 전문 모니터링 그룹 마련
- 예산 집행 규정 및 행정의 간소화: 예술가에 의한, 예술가를 위한 방식으로 재설계
 -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 및 업무 간편화, 간소화 등의 방식 추진
 - 지원신청, 작업 공유, 평가 환류 등에 있어 접근이 쉬운 운용시스템 도입
- 홍보·마케팅 정보 지원→통합 홍보 채널 제공
 -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홍보·마케팅에 특화된 청년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운용
- 네트워킹, 공간 매칭, 제휴 등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
 - 효과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네트워킹 및 공간 매칭에 특화된 청년예술단체 선정 및 운용
- 동료의식을 나누는 소통, 교류, 정보의 경험 필요
 - 서로의 작업을 봐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당해 연도 사업 탈락자에 대한 인식 및 모니터링을 실시
- 상시적·전문적 조력자 그룹: 협력형 중간 매개 그룹 지원
 - 최초 사업 참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협력을 얻을 수 있는 창구 마련
 - 예술가의 책무, 예술계의 정보 및 인식체계를 전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 청년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분석하고 성과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협력 그룹 필요
- 청년예술가의 발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구상안 마련
 - 청년예술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르별·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청년예술가의 예술적·정성적 성과를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지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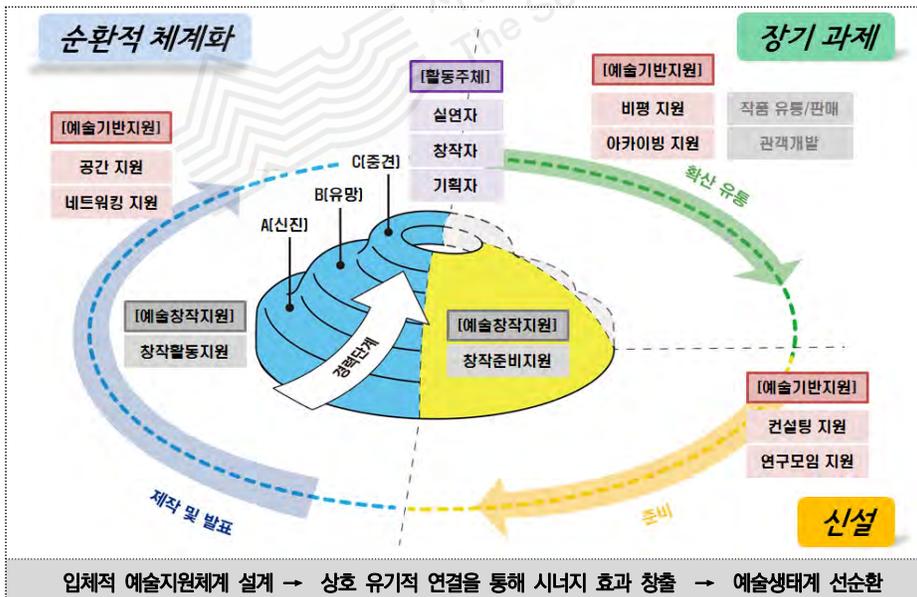
2) 2020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혁신방안

(1) 예술지원체계 개선방향

- 핵심가치: 배분과 관리 통제의 관점에서 예술현장의 파트너로
 - 과거에는 예술 '작품'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작활동의 주체의 '예술인'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과거에는 결과 발표에 한정된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태적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



- 체계 개선방향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9.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및 2020 서울예술지원 운영(안)", 예술지원체계 개선TFT-156

[그림 4-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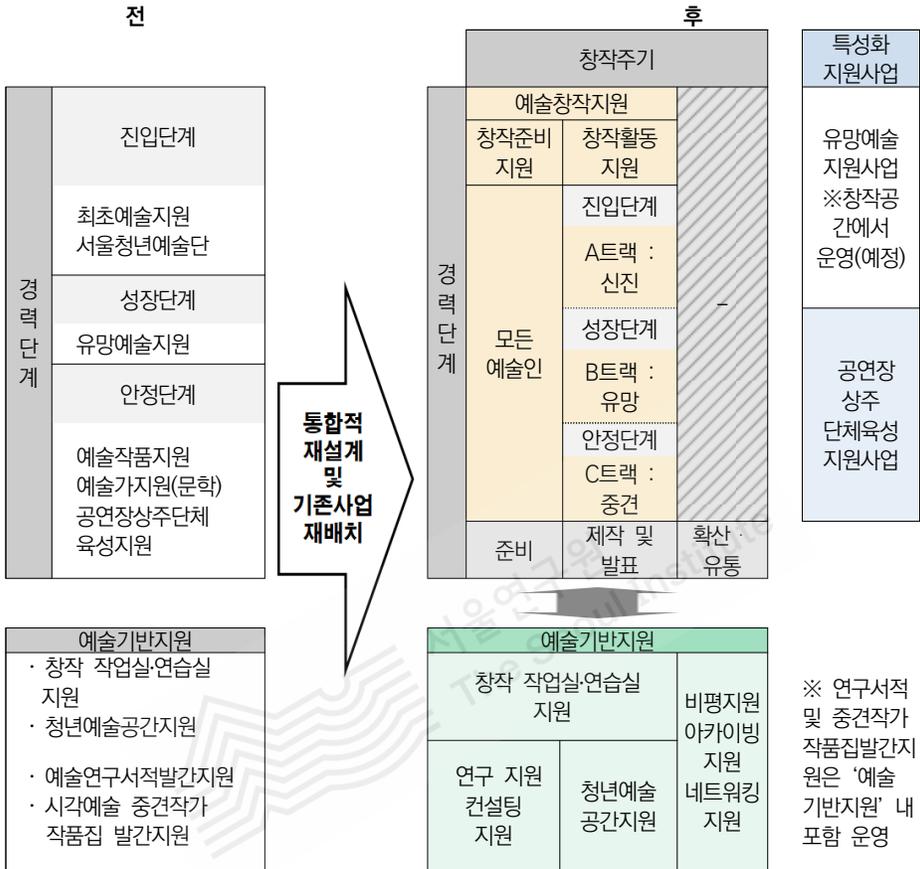
- 활동주체-창작주기-경력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입체적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의 예술생태계 조성(2020년까지 단계적 추진)
 - 다양한 활동주체가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받는 지원사업
 - _창작자, 기획자뿐 아니라 실연자, 연구자, 비평가 등 다양한 활동주체가 지원사업 신청 주체로 참여 가능
 - 준비-제작-발표-확산·유통 등의 전체 창작주기를 고려한 지원사업
 - _ (단기) 2020년: 준비~발표까지의 창작과정 지원 실현, 확산 및 유통 관련 예술기반지원 일부 시행
 - _ (중장기) 2021~2022년: 발표 이후 확산 및 유통 관련 기반지원 확대
 - 예술인의 경력단계를 고려한 지원사업
 - _ A(신진)-B(유망)-C(중견)으로 경력별 지원신청 구분하여 운영
- 트랙별 예술인의 성장을 위해 예술창작지원(직접지원)-예술기반지원(간접지원)을 연계한 입체적 지원
 - 트랙별 성장에 필요한 요소와 예술기반지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창작활동 기반 마련

[표 4-5] 2020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혁신 방안 - 트랙별 지원

구분	트랙별 지원목적	예술창작지원	예술기반지원(예시)
A트랙 (신진)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세계 형성	창작지원금 + 활동비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세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컨설팅 등 지원
B트랙 (유망)	작업세계 안정화		차별화된 작업세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비평 또는 예술인 간 상호 학습/연구모임 지원
C트랙 (중견)	예술계/향유자 대상 영향력 발현 및 가치 생성		영향력, 가치, 성과를 보다 넓게 확산하기 위한 아카이빙 지원

(2) 2020년 예술지원사업

○ 2020년 예술지원사업 구조도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9.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및 2020 서울예술지원 운영(안)", 예술지원체계 개선TFT-156

[그림 4-2] 서울문화재단 2020년 예술지원사업 구조도

○ 주요 개선사항

- 공모 시기 및 횟수 개선

- 사업별 특성, 예술인의 창작활동주기를 고려하여 연 2회 공모 시행

〈전〉		〈후〉		
지원사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예술지원 - 서울청년예술단 - 청년예술공간지원 · 유망예술지원 · 예술작품지원 · 예술가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유망예술지원 ·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통합 공모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차 공모	연 2회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지원 - 예술기반지원 -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 청년예술공간지원 -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 시각예술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2차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기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모임), 비평, 아카이빙, 컨설팅, 네트워크 	수시 공모

※ 유망예술지원은 다년사업으로 2020년 공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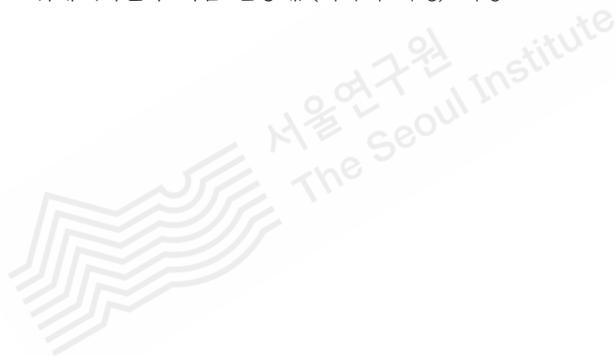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9.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및 2020 서울예술지원 운영(안)", 예술지원체계 개선TFT-156

〈그림 4-3〉 서울문화재단 2020년 예술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

- 다년사업 확대
 - 충분한 작업 기간 확보 및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다년사업 시행 사업 확대(해당 지원사업: 창작활동지원 C트랙,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단, 문학 분야 제외)
- 연령으로 구분되던 지원 대상을 활동경력으로 재편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대두되었던 '청년-기성' 간 세대별 이분화 구조를 활동경력별 구분으로 재편하여, 현장에 맞는 합리적 구조로 개선
- 창작지원금 단계별 차등
 - 지원금 현실화 노력에 따른 창작지원금 단계별 차등(해당 지원사업: 창작활동지원)
- 창작과정의 활동을 인정하는 '활동비' 지급
 - 작품발표에 대한 지원에서 창작주체의 활동으로 지원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청년예술지원-서울청년예술단>에서 지급하였던 활동비를 개선확대 시행하여, 창작과정의 활동을 인정(해당 지원사업: 창작활동지원)
- 창작지원금 인정항목 확대
 - 기존 <청년예술지원>에서 시행하였던 창작지원금 내 본인 사례비(해당 지원사업: 창작활동지원)

※ <창작활동지원사업> 문학 분야는 시상금으로 운영

- 심의방식 및 심의위원 풀 개선
 -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목적별 심의기준 명확화/세분화 신청건별 심사평 작성, 심의위원 풀 공개추천제 시행(유지)(기존 블라인드제도는 폐지)
 - ※ 심의위원 풀 관련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선정횟수 제한 폐지(구. 청년예술지원사업 관련)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청년예술지원사업에서 적용하였던 총 3회 선정횟수 제한 폐지
-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 다양한 예술활동 양태, 활동주체의 다변화, 장르 간 편차 등 다변화하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트랙별 기준 다각화
 - 지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본인 경력에 해당하는 트랙을 선택하며, 이를 위해 <지원자 책임 신청제>(서약서 작성)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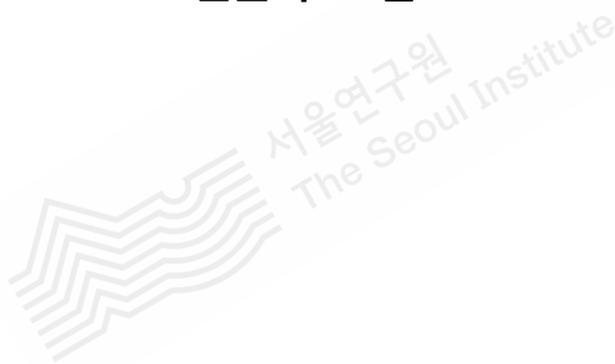
2부

논의



05

전문가 포럼



1_개요

2_1차 포럼

3_2차 포럼

4_3차 포럼

5_4차 포럼

6_5차 포럼

05. 전문가 포럼

1_개요

- 총 5번의 전문가 포럼 개최. 총 8명의 전문가 참여
 - 참여 전문가: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옥민아(공공연회 단장),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 옥민아(공공연회 단장)는 2차 포럼에만 발제자로 참석

[표 5-1] 전문가 포럼 개요

구분	주요내용	
1차	일시/장소	-2019년 4월 18일(목) 오후 3시 / 서울문화재단 회의실
	발표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의 주요 방향 소개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의 개념과 청년예술인 지원 이유
2차	일시/장소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 달개비
	발표	-목표가 달라야 한다! (최선영) -한해의 스케줄: 청년예술가와 지원사업 (옥민아)
	토론	-청년예술인의 여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문제점
3차	일시/장소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 /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발표	-청년과 청년예술 지원전략 (박도빈) -청년예술 지원정책 모니터링 (정진세)
	토론	-청년 정책과 청년예술인 정책 -청년예술인 지원과 예술 지원 체계
4차	일시/장소	-2019년 6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발표	-서울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혁신방안 제안 (전수환) -서울시 청년예술 정책 방향 (김세훈) -서울시 청년예술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박소현) -'서울시 청년예술의 방향 및 의제'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최보연)
	토론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및 주요 의제
5차	일시/장소	-2019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 다락방구
	발표	-전문가 포럼(1~4차) 주요 쟁점과 토론 의제 (백선혜) -설문 및 FGI 조사계획 (이수현)
	토론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및 주요 의제

2_1차 포럼: ‘청년예술(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표 5-2] 1차 전문가 포럼 개요

일시/장소	2019년 4월 18일(목) 오후 3시 / 서울문화재단 회의실
발표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의 주요 방향 소개 (라도삼)
참석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미혜, 이정연 배소현, 이수현,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그림 5-1] 1차 전문가 포럼

- 이 연구는 기존 청년예술지원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
 - 청년예술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가 3년차. 그러나 지원방식은 장르 베이스의 기성 예술지원과 동일하며, 단지 그 대상이 ‘청년’인 것임. 최근 창작환경과 예술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의 변화 필요 (임미혜)
 -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예술인들이 생길 것. 이들이 기성예술계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 (이정연)
 - 더불어 장르베이스의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에 특히나 맞지 않는데 이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들
- 현재 청년예술에 대한 개념이 모호.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지원의 이유, 지원의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필요
 - (청년예술인 vs 중견예술인) 청년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중견예술가들이 생겨나기 시작. 지원받는 청년들 또한 지원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함 (전수환)
 - (청년예술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 청년예술의 개념, 청년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

- 현재는 청년예술을 지원해야하는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청년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예술의 관점과 태도,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예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해 보임 (전수환)
 - 장르를 넘어서 새로운 예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 등 청년예술이 가진 특징을 포착하고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필요 (백선희)
 - 청년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지원 필요성과 정당성,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 필요 (라도삼)
 - 현재 예술계 안에서도 많은 갭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현재의 예술시스템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 오히려 이런 변화들이 편안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멤버십 같은 것이 제도 안에 안착되는 것 필요 (전수환)
- (연령 vs 경력) 청년예술을 연령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경력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논의해 봐야 할 부분
 - 영국의 터너 프라이즈(Tuner Prize)에서는 young artist를 50세 미만으로 설정. 연령 구분의 표현보다는 emerging의 표현을 사용 (최보연)
 - (청년예술 vs. 신진예술) 기존에 신진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청년예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 청년예술은 시정의 방향에 따라 등장한 용어로 이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이 좋을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 (김세훈)
 - 신진예술이라고 하면 기존의 장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이에 반해 청년예술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더 클 것
- 한편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게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예술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 사실 지원의 단계를 쪼개다 보면 끝도 없고, 이를 공공영역에서 다 설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히려 이것이 예술가들을 관성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 (최보연)
 - 물론 예비 예술인들이 예술계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 또한 현재 생애주기가 연령으로 나누는 것인지, 경력으로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지점도 있음 (최보연)
- 향후 연구에 청년예술에 대한 정의와 지원의 이유,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설계되어야 함

3_2차 포럼: 낮설고 어려운 예술현장, 청년예술인의 난관과 현실

[표 5-3] 2차 전문가 포럼 개요

일시/장소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 달개비
발표	-목표가 달라야 한다! (최선영) -한해의 스케줄: 청년예술가와 지원사업 (옥민아)
참석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임미혜, 김유진, 배소현, 이수현, 백선희, 라도삼, 이정현



[그림 5-2] 2차 전문가 포럼

1) 발표

(1) 목표가 달라야 한다! (최선영_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기존 장르예술 그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관점을 고려한 정책 필요
 - 청년예술인들이 사회에 나오면 예술의 사회적 개입 등과 같이 기존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활동들을 요구받음. 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예술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점
 - 더불어 청년예술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기획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 이에 청년예술인들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그대로 지원서에 써도 될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은 요즘의 문화예술과 거리가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공공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문화 혹은 예술이 아닌 걸까, △나는 계속 이 활동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함
- 지원사업에서 기획해서 호명하는 활동이 아닌 기존에 하던 활동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확대 필요
 - 본래 하고 있던 활동들이 지원사업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
 - 예술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까지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히 대학에서는 ‘삶과 연결되기 힘든 커리큘럼’으로 예술을 배우기 때문에 청년예술인들이 순수예술 영역을 넘어서는 현장이나 사안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 청년예술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 ...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필요
 - 지원금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활동 자체가 사회적 존중과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
 - 그러나 내가 하는 활동이 공공의 지원사업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나의 활동 자체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됨
- 지원에 낯설어 하는 청년예술인...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기획서를 작성하고 e나라 도움 등과 같은 복잡한 지원구조에 적응하는 것도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생경하고 어려운 부분
 - 청년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른데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또한 문제. 이에 청년예술인들의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
 - 활동자원이거나 기회가 있는 사람: 활동자원을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활동자원이거나 기회가 부족한 사람: 활동자원을 마련하여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른 단계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만나 상호 창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
 -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청년예술인들과 고민을 나누고 창작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며, 이 자체를 지원 활동으로 보는 관점 또한 필요

(2) 한해의 스케줄: 청년예술가와 지원사업 (옥민아_공공연희 단장)

- 현장예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술적 고민 ... 기존 장르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공공연희는 8명의 각기 다른 분야(장르)에서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모인 단체. 작년에는 '농사'라는 키워드로 청년예술단 활동을 했으며, 올해는 청년예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울生: 청년예술가의 방'이라는 프로젝트 기획
 - 기존의 장르예술이 아닌, 다원예술의 장르를 다루다보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이해시키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 이는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 심사 시 한 번의 짧은 인터뷰로는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힘들 ... 새로운 심사방식 필요
 - 현재는 짧은 시간 안에 심사위원이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보다는 심사위원들이 각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심사 필요
- 초기 단계에서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발전된 프로젝트에 좀 더 큰 지원금을 주는 방식 필요
 - 공공은 청년예술가들이 근력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며, 더불어 광장, 공원 등 빈 공공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
 - 청년예술인은 지원사업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향후에는 기업 프로젝트 등 민간시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해야 함

2) 토론

- 청년예술인들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많은 예술대학 속에서 예술가들이 육성되었는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해 서로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 (전수환)
- 현재 청년예술인들은 예술대학의 실패를 체험한 사람들임. 즉, 실패자들에게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가동되는 상황. 파트너십과 합의가 중요한 키워드 (정진세)
 - 예술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청년을 대상화하는 정책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고민 필요
 - 지금은 단기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용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시점 (박소현)
 - 현재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이유는 예술이 국민들이 문화향유를 하는 자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이라는 실용적인 순환논리임. 그 구조 안에서 예술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일 뿐임
 - ‘청년예술인’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청년예술인을 대상화해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 청년예술인이 당면한 문제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 (최보연)
 - 생애주기라는 개념이 붕괴되고 있고, 청년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예술가들의 생애주기 자체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 (박소현, 김세훈)
 - 현재의 지원사업은 심사위원, 심사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당사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함
 -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재설계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 (박소현)
 - 현재는 심사 기준조차 합의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위원에 따라 너무 다른 결과들이 도출. 당사자들이 같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 있음 (박도빈)
 - 특히 심사결과의 과정이나 승복에 대한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 서로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 (정진세)
 - 어느 정도 성장한 단체들이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필요 (박도빈)

- 청년주도의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며, 정책이 지나치게 고도화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청년예술인들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기존 예술 생태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상황.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서로의 신뢰는 회복할 수 있을 것 (박도빈)
 -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활동을 하면서 현재까지 다루고 있지 못하는 분야가 예술 분야. 청년 자치정부 출범하면서 10개의 분과가 있는데 이 중 예술 분과는 없는 상태. 유독 문화예술 쪽에는 당사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음
 - 혁신 연구라는 것은 결국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읽히는데, 이에 준하는 운영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멋진 제도일 뿐임. 오히려 제도를 툴다운시키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 (정진세)

4_3차 포럼: 청년예술의 당사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표 5-4] 3차 전문가 포럼 개요

일시/장소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 /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발표	-청년과 청년예술 지원전략 (박도빈) -청년예술 지원정책 모니터링 (정진세)
참석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전수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임미혜, 김유진, 배소현, 이수현, 백선희, 라도삼, 이정현



[그림 5-3] 3차 전문가 포럼

1) 발표

(1) 청년과 청년예술 지원전략 (박도빈_동네형들 공동대표)

- 그동안 서울시 청년정책은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그 과정을 꾸준히 추진
 - 청년이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시정참여플랫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2013년부터 운영
 - 6년간 총 1,57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서울청년의회를 총 4회 (2015~2018/연 1회) 개최
 - 당사자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은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선정했으며,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분과별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놨음
 -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무중력지대), 마음건강, 무장애관광 등 6년 동안 총 162개의 정책을 제안
 -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주요한 청년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 현재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
 - 청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주는 사업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시간을 어떻게 벌어들일 것인가에서 시작. 현재는 잘 선정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청년들이 사회참여 혹은 관계망 확장에 좀 더 집중.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촘촘하게 얹혀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 현재 청년수당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밖에 없음. ▷ 당사자들이 제안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발전시키고 있는 상태. 모델만을 가져가서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부분
-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데에 한계 노출
 - 이는 자체적인 예산이 없고, 동등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파트너십)가 없기 때문
 -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나 파트너가 필요. 특히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고민 필요
 - 서울시 내 청년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작' 부분에 지원이 몰려 있는 상황

-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자치정부가 올해 3월에 출범
 -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
 - 기존 서울청년의회를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장. 연 4회 진행하며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 등에 참여
 - 청년자율예산제의 500억 원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가장 큰 미션
- 정책이나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고민 지점
 - ‘합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 기존에 정책을 만들어냈었던 그룹들이 이러한 당사자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2) 청년예술 지원정책 모니터링 (정진세_극작가/비평가)

- 청년예술 지원정책은 수월성 중심에서 ‘보편적’ 지원의 방향으로 변화
 -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등에서 ‘유망-신진-차세대’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수월성’을 중심으로 청년예술 지원 정책을 추진. 2016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해 왔는데 수월성보다는 열린 대상(당사자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추진
 -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 분야 지원정책은 운영방식 다각화, 지원 규모 확대, 예술가 창작주기를 고려한 지원기간 재설정 등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 이렇게 구체화·세밀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관리모드도 함께 작동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2019년에 실행되는 신규기획형 사업은 설계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청년예술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단 지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제휴매칭형 청년예술지원 등
- 청년예술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많음
 - 청년예술지원제도는 새로운 창작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금

- 이기 때문에 예술과 공공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작업을 하게 됨
-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최초 예술지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작업의 과정을 학습으로 인식하며 이를 경험적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함
 - 청년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설계해야 함
 - 생애주기별 지원의 타당성을 마련하는 근거로써의 '청년'의 범주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요구
 - 지원기관과 당사자 사이에 '청년'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의 상이 필요. 지금은 '최초성' 정도만 공통성이 있는 것 같고, 청년예술인이 왜 지원사업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 ▷ 당사자적주체적 의미의 개념 설정 필요
 -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최초 설계 단계에서 청년예술인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지원사업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제도를 제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 청년예술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소통중시, 과정중시, 협업중시, 장르간 장벽철폐,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관행, 예술가의 윤리의식 등이 고려된 사업 설계 필요

2) 토론

- 당사자성과 대표성은 서로 부딪히는 측면이 있음
 - 당사자성은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제설정이나 의사결정 시에 당사자성만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들이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성'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임미혜)
 - 당사자성이 포함된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최근 그동안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대표성이라는 개념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박소현)
 -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에서는 표준화된 인구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당사자성, 당사자성이 포함된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 당사자성을 가진 대표성이라는 것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과정 속 열린 토론의 활성화와 정보격차 해소가 중요
 - 대표성과 당사자성이 풀리지 않는 논쟁의 이유인 것은 정보와 경험의 차이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 최대한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공유해서 개개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 (정진세)
 -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나 정책정보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인가? (박소현)
- 당사자성의 발휘를 위해서는 참여체계를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실행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 예술정책 체계 내에서 청년예술인들이 대표성과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라도삼)
 - 청년청에서 했던 것처럼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박소현)
 - 논의의 테이블이 변질되는 이유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 오히려 사업을 설계할 때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 (최선영)
- 청년예술지원이라는 관점보다는 예술지원 체계라는 큰 틀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이 청년 시기에 당사자성과 대표성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설계해 보는 과정들을 경험해 본다면, 이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박도빈)
 -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론의식, 공공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지원사업의 구조 속에 매몰될 것임. 이 연구가 막 시작하는 청년들, 최초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체 예술지원 체계를 바꾸어 가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함 (라도삼, 최보연)
- 더불어 당사자성 기반의 논의체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보통은 수요층을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지만 청년예술인의 지원, 당사자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 구조에서 나온 결과물이 수요층을 창출하고 지지 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필요. 더불어 이러한 체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어야 할 것 (전수환)

5_4차 포럼: 청년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

[표 5-5] 4차 전문가 포럼 개요

일시/장소	2019년 6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퍼시스 광화문센터 세미나룸
발표	-서울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혁신방안 제안 (전수환) -서울시 청년예술 정책 방향 (김세훈) -서울시 청년예술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 (박소현) -‘서울시 청년예술의 방향 및 의제’에 관한 몇가지 단상 (최보연)
참석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선미(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장) 임미혜, 김유진, 배소현, 백선희, 라도삼, 이정현



[그림 5-4] 4차 전문가 포럼

1) 발표

(1) 서울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혁신방안 제안 (전수환_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보다는 ‘특정한 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주체로서 청년세대가 활동해야 할 것
 -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상상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청년세대가 이러한 변화 의제를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누구나 사업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보다 지속가능할 것
 - 더불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과 목표 또한 청년세대가 직접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변화의 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이는 평가지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 새로운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변화의 방향과 이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연구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청년들이 직접해낼 때 청년 당사자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

(2) 서울시 청년예술 정책 방향 (김세훈_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 청년예술인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용어. 다만, 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서울시만의 독특한 차별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
 - 청년의 취업난 등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등장했고, 이는 재원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그렇기에 ‘청년예술인’이라는,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성격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
 - 예술지원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단계를 설정해 청년예술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이 단계가 끝나거나 수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이 사업을 접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팅
 - 다만, 중앙정부의 사업과는 다르게, 서울시가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기존의 예술체계와 충돌되지 않으면서 차별성을 갖는 지점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청년예술인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

(3) 서울시 청년예술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

(박소현_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의 예술지원정책은 지원 자체-방식-목적의 타당성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
 - 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사람 모두 고립된 개인으로 설정하고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예술생태계’ 관점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되어 왔음
 - 현재의 예술정책은 지원사업의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예술정책은 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관점과 방법으로서 설정될 수 있으며, 이 정책이 어떻게 보편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중요한 부분

- 청년예술정책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청년세대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청년예술정책을 과도하게 실제화하기보다는, '청년=미래세대이며,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로 청년예술정책을 규정
 - 미래세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정책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기존의 전문성과 나이 계층 구조 중심의 정책 결정이 지속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기 결정 의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
 - 이를 바탕으로 현재 청년세대 관점에서의 예술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청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으로서 청년예술정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4) '서울시 청년예술의 방향 및 의제'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최보연_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청년예술정책을 전체 예술 지원체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
 - 특정 대상과 사업 단위로서만 존재하는 청년예술지원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예술지원 정책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
 - '청년'이라는 용어는 사업명보다는 관점으로서 녹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지라도 당사자들의 주체성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
 - 청년과 기성예술계와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청년들이 예술 생태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
 - 그들(청년)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기성예술계와 '밀당'할 수 있는 여지를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예술인의 시각이 반영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 스스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펀딩보다는 청년예술인들이 창작·실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남산예술센터, 삼일로예술극장 등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
 - 수많은 사업들이 '사회적 목적'에 너무 뚜렷하게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순수예술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
 -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 청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들을 설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2) 토론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전체 정책 체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박소현)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정책 내에서 포지셔닝 되지 않으면, 향후 쉽게 없어지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청년예술, 청년예술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청년을 대상화하는 방식이라 불편. 이 용어를 쓰더라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언급은 필요 (최보연)
 - 청년예술, 청년예술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거부감이 들. 청년을 대상화하고 청년이 사업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도 있으며, 대상화보다는 관점으로 녹아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사업명에 매몰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보다는 '강사'에만 포커싱되어 있고,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 전체를 왜곡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청년예술, 청년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청년을 대상화하고 이것이 사업명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잡아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예술인의 여건을 고려해야 (박도빈)
 - 청년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 전체 신(scene)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예술창작을 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할 것인가?
 - 문화예술 분야 안에서의 사각지대는 공모·지원사업의 연결고리를 수행하는 활동가나 실무자라고 생각. 이들도 청년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축제기획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는가?
- 청년예술인 범주에 대한 새로운 고민 필요 (박소현)
 - 최근 예술인권리보장법 발의안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서 창작자뿐 아니라 예술 신(scene)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술 신(scene)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설정
- 미래예술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청년예술인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또한 중요 (정진세)
 - 청년예술을 미래예술과 등식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청년예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도 필요
 - 현재의 청년은 과거 세상을 바꿔왔던 주체로서의 청년과는 개념이 다름. 현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생존과 연결되는 안전, 자유, 행복임
 - 386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는 전체 인구의 40%가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전체의 약 20% 정도. 과거에는 청년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청년을 바라보는 것
 - 3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경험해 본 청년예술인들의 멘탈리티(mentality)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 사회과학적, 심리학적 접근 필요
 - 10대 때는 어떤 것을 경험했고, 20대 때는 어떤 예술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욕망하는가?
- 청년의 현실을 고려한,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함 (최선영)
 - 현재 공모·지원사업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전제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재 청년 세대가 기획을 한 것이 아님. 그렇기에 청년예술인이 기대하는 사회적 활동이나 자기 창작의 방식주제와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논의를 '지원사업을 어떻게 기획·설계할 것인가'로 가져간다면 논의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개개인의 입장, '사람'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청년예술인들의 개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가가 아닐 경우,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로 논의가 확장 되면 좋을 것 같음
 - 청년예술인들이 만나거나 모일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등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 전체 생태계 속에서의 청년예술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 (백선희)
- ‘예술로 먹고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예술 생태계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문제의식임
 - 이 연구에서는 전체 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시작단계, 진입단계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면 될 것
- 창작과 노동, 정책과 행정 등 향후에 논의할만한 지점들이 많음 (임미혜)
- emerging artist라는 개념이 서울시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청년예술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
 - 청년예술을 변화를 위한 실험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떠한 지향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한 실험의 성격으로 한 예술가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
 - 재단은 창작활동을 하라고 지원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예술가들은 생계(먹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 정책은 추상적·개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를 어떻게 행정의 언어로 담아내고 사업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6_5차 포럼: 청년예술의 주요 쟁점과 의제

[표 5-6] 5차 전문가 포럼 개요

일시/장소	2019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 다락방구
발표	전문가 포럼(1~4차) 주요 쟁점과 토론 의제 (백선희)
참석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김종휘(서울문화재단 대표) 임미혜, 김유진, 배소현, 백선희, 라도삼, 이정현



[그림 5-5] 5차 전문가 포럼

1) 발표

(1) 전문가 포럼 주요 쟁점과 토론 의제 (백선희_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의제) ‘청년예술’의 정의, 청년예술인의 범위, 예술지원체계 내에서의 청년예술정책 재설계 등에 대해 논의
 - ‘청년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연령 중심 접근에 대한 실효성 문제, 청년을 대상화함으로써 예술지원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논의 진행. ‘청년예술’은 대상보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주체성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 규정 필요
 - ‘청년예술’은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전체 예술지원체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필요
 - 청년예술인의 범위를 순수예술 창작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신(scene)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넓혀서 파악하는 것 필요
- (여건의제) 청년예술인의 현재의 여건을 파악해 이에 맞게 지원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 필요
 - 현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생존과 연결되는 안전, 자유, 행복으로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 필요
 - 청년예술인들은 예술대학 졸업 후 사회와 만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청년예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
 - 지원기관과 청년예술인 사이에 청년예술인이 왜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의 상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문제
 - 청년예술인이 기존에 하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의 범

위를 확대하는 것,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의 여건에 맞추어 지원사업을 세분화유형화 하는 것 필요

-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만나 상호 창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원의제) 청년예술인 주도의 정책 거버넌스 형성 중요
 - 청년예술인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필요
 - 청년예술인의 당사자성 발휘를 위해 참여체계를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실행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 지원사업의 구조 및 심사방식 등을 청년예술인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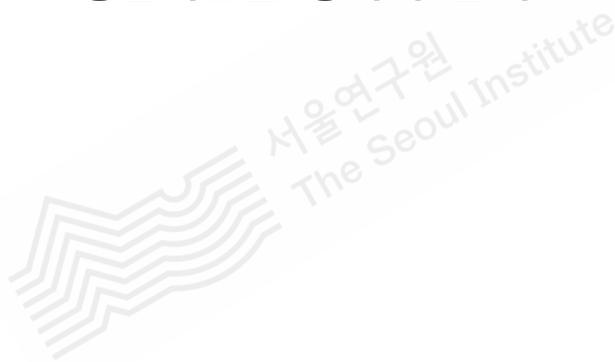
2) 토론

- 청년예술인의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 청년예술인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야 함 (김세훈)
 - 청년예술인들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가야겠다'는 미래의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공공에서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필요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목적은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함 (최선영)
 - 현재의 지원 중심의 생태구조로 청년예술인들을 몰아넣는 것은 문제
 - 청년예술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지원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재단은 그들이 고립되지 않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 청년예술인이 성장해서 우수한 사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민간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 필요
 -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시, 역으로 '어떤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가져갈 필요 있음
 - 그들에게 너무 희망만을 주는 것도 무책임한 부분

- 문제는 자생력 없는 예술시장...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 중요
 -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기존의 삶과는 다르게 사는 방식을 찾는 전략을 제시한다면,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은 '청년예술가들을 기존 생태계 구조에 어떻게 잘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기존 청년정책과는 정반대의 전략 (라도삼)
 - 청년들을 예술 생태계에 넣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들 스스로 예술시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는 형태의 지원 전략 필요 (라도삼)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지원 사업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
 - 현재는 예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수요와 공급을 다 책임지고 있는 실정. 관객개발, 관객지원 등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재설계 필요 (정진세)
 - 공공의 지원으로 '관객'이 절대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관객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 청년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박도빈)
 - 현재의 상황이 서로를 책임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정해야 함. 이미 전문가 그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
- 반복적인 정산 시스템에서 벗어나 청년예술인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 필요
 - 매년 반복적으로 돈 주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누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갖고 지원하는 것 필요 (라도삼)
 - 1년 동안 지원했던 작품 중 괜찮은 작품 몇 개를 선정해 재단이 마케팅을 해주는 방식 등
 - 정산 문제, 인건비 문제 등 기존 사업의 운영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이러한 작은 운영방식의 변화가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최선영, 최보연)

06

청년예술인 당사자 논의



- 1_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 2_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 3_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 4_서울청년예술인회의

06. 청년예술인 당사자 논의

1_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1) 개요

- 청년예술정책의 당사자성을 모색하고 청년예술인 스스로가 정책을 구상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기획해보고자 이를 위한 기획팀을 구상
 - 라운드테이블은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청년예술인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
 -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은 서울청년예술인캠프라는 이름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¹⁰⁾
 - 이에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청년예술 주체를 발굴형성할 수 있는 기획팀을 구성운영
-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구상·기획팀은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 최종 5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등 4명으로 시작. 기획과정을 통해 필요한 당사자를 포함·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3차 회의 때부터 강지윤(시각예술가)이 참여하여 총 5명으로 운영
-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구상·기획팀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7번의 회의를 진행

¹⁰⁾ 최종적으로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으나 그 전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청년 예술캠프, 서울청년예술캠프, 서울청년예술인캠프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 본문에서는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논의 당시 사용하던 용어 그대로 서술했음

[표 6-1]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구분	주요내용	
1차	일시/장소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3시 / 상연재
	참석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상기획팀 운영(안) (라도삼)
	토론	-거버넌스 형태 및 운영 방향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문제점
2차	일시/장소	-2019년 7월 5일(금) 오전 10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2017~2018 청년예술 포럼 경과 및 이슈 (라도삼) -청년예술 캠프 제안 (최선영) -청년예술 의제토론 (정진세)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추진 단계 제안 (박도빈) -청년예술 의제토론 및 당사자성 확보 방안 제안 (옥민아)
	토론	-라운드테이블 준비모임 운영 설계
3차	일시/장소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라운드테이블 추진 관련 주요 의제 (라도삼)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FGI 질문지/온라인 설문지 (배소현) -청년청 관련 의제 및 청년청과 청년예술추진위 관계설정 (박도빈)
	토론	-청년예술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의제
4차	일시/장소	-2019년 7월 19일(수) 오전 9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토론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방향 (최선영) -청년예술정책 방향
5차	일시/장소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발표	-청년예술지원 정책 (강지윤) -라운드테이블 조직방안 (정진세) -청년예술지원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옥민아) -청년예술정책의 쟁점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지원사업 혁신 방향 / 라운드테이블 조직 방안
6차	일시/장소	-2019년 8월 8일(목) 오전 9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이정현, 배소현
	발표 토론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옥민아)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최선영) -청년예술정책 방향 및 라운드테이블 구상 (정진세)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현황과 재구조화 (백선훈) -청년예술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심사과정 혁신 논의 -라운드테이블 구상
7차	일시/장소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정책 연구 (김재상, 성연주) -청년예술인 대상 온라인 설문지/청년예술캠프 추진계획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정책 방향 -온라인 설문지/청년예술캠프 및 준비위원회 추진

2) 1차 회의: 첫모임, 모임의 형태 및 운영 방향 논의

[표 6-2] 1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3시 / 상연재
참석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헌,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상기획팀 운영(안) (라도삼)
토론	-거버넌스 형태 및 운영 방향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문제점



[그림 6-1]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1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 라운드테이블 구상기획팀 운영(안)에 대해 서울연구원에서 발제
 - 청년예술정책의 당사자성을 모색하고 청년예술인 스스로 정책 구상을 기획해 보고자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개최 구상. 이에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청년예술 주체를 발굴·형성할 기획팀을 구성·운영
 - 미션: 청년예술 학습, 청년주체 형성, 라운드테이블 개최, 청년예술정책 및 사업 발굴 등
 - 기획팀은 4명으로 시작하며, 기획과정을 통해 필요한 당사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확대·운영
 -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운영방향은 청년예술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 이를 통해 청년예술의 개념과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8월말까지 정리해 내년도 사업구상 및 라운드테이블 발표·토론 자료로 활용

(2) 토론

- 기존과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협치 테이블에는 소통능력이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할 것
 - 최근 몇 년간 서울문화재단에서 간담회, 포럼, 좌담회 등 많은 논의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예술인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 어떤 질문을 던져야 청년들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인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요 (박도빈)
 - 건전한 주체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OT 혹은 청년예술학교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정진세)
- 청년예술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 청년예술인을 기존 지원체계 안에 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태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 (최선영)
 - 청년예술인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면서 그들을 엮어 줄 수 있는 중간지대의 사람(기획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 (최선영, 옥민아)
- 현재 문제가 많은 심사체계의 혁신 또한 필요
 - 현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투명성과 공정성임. 이를 심사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 (정진세)
 - 심사 시 심사기준, 심사위원 이력 등을 제공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박도빈)
 - 심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빙 필요 (옥민아)
 - 최근 공개 프리젠테이션 심사, 청년 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프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이 등장.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정진세, 박도빈, 옥민아)

3) 2차 회의: 서울청년예술인캠프 준비모임 운영방향 설계

[표 6-3] 2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7월 5일(금) 오전 10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2017~2018 청년예술 포럼 경과 및 이슈 (라도삼) -청년예술 캠프 제안 (최선영) -청년예술 의제토론 (정진세)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추진 단계 제안 (박도빈) -청년예술 의제토론 및 당사자성 확보 방안 제안 (옥민아)
토론	-라운드테이블 준비모임 운영 설계



[그림 6-2]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2차 회의

(1) 발표

- 2017~2018 청년예술 포럼 경과 및 이슈 (라도삼)
- 청년예술 캠프 제안 (최선영)
 - 청년예술 캠프-서울문화재단-서울연구원의 역할 분담. 3개 조직의 협력 및 정책적 목표에 대한 합의 필요
 - △청년예술인의 지속적 활동기반 마련, △청년예술인의 공공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 △청년예술인이 고립되지 않는 환경 마련, △다음 세대 청년 예술인과의 협력 구조 마련 등
 - 청년예술 캠프는 청년 예술인 당사자성에 부합하는 6~8명으로 구성. 이들이 중심이 되어 단계별 역할 수행
- 청년예술 의제토론 (정진세)
 - 청년예술가의 개념을 나이, 세대, 국적, 전문성 등을 넘어서는 범위로 넓게 설정
 - ‘서울청년예술위원회’와 같은 개방적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당사자성 확보

- 청년예술가에게 ‘실패를 위한’ 시간, 공간, 비용 등을 충분히 보장
- 제도 밖 청년예술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 협력형 중간매개그룹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추진 단계 제안 (박도빈)
 -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 청년예술인캠프 ▷ 분과별 모임 ▷ 정책 제안
 - 관심 있는 주제로 분과별 모임을 구성하고, 분과별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
 - 정책 제안 시 청년예술인 거버넌스와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청년청이 파트너로서 역할
- 청년예술 의제토론 및 당사자성 확보 방안 제안 (옥민아)
 - ‘청년예술가의 삶’ 라운드테이블의 6가지 키워드: △의식주, △사회적 안 전망, △미래, △과거, △예술, △서울
 - 당사자성 확보 방안 제안: △지원사업 모의 설계, △지원사업 해외 사례 리서치, △지원사례, 경험 실태조사, △지원사업 유무경험자 리서치 및 인터뷰
 - 지원사업의 공지는 어디서 봤는가? 지원사업 계획서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술가로 성장했는가? 등 지원 경험과 관련된 디테일한 질문들이 궁금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지원사업을 재설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2) 토론

- 기획팀의 미션과 상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미션: △혁신주체(청년 정책 주체)의 제도화, △주요 청년 의제를 재단 내 사업으로 세팅하는 것, △현 사업구조/예산의 혁신안
 - 상황: 많은 논의를 통해 의제를 제시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는 상태임. 이것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당사자 형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추진해야 함
 - 방향: 지금 현재의 사업 혁신(단기적), 당사자 주체 형성(장기적), 청년의 제의 사회화
 - 목표(표출 형식): 라운드테이블, 캠프, 공개토론회
 - 절차: 4명 ▷ 확대 ▷ 준비단 ▷ 최종 행사 ▷ 주체를 제도화

- 캠프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지금은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라 생각. 캠프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정확한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재단이 캠프와 협의를 통해 내년의 구체적인 사업을 세팅할 수 있을 것 (최선영)
- 현실적인 의제로 시작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통의제를 수렴해 나가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90억 원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와 같은 현실적인 의제로 청년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이것이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박도빈)
 - 설문조사를 통해 의제 발굴 ▷ 라운드테이블/캠프 진행(방식: 분과 등)
 - ▷ 정책 제안의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청년예술추진위가 청년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청 안에 청년예술인 문제를 녹여내기보다는 청년청 안에서 별도로 만들거나 아예 재단과 청년청이랑 함께해 보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박도빈)
 - 청년청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청년위원 15% 목표제'. 이 의제도 여기서 다루는 것이 필요 (박도빈)
- 청년지원사업의 분명한 목표(지향점)를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
 - 지금까지의 논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예술가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 (옥민아)

4) 3차 회의: 청년예술지원사업과 정책 방향 논의

[표 6-4] 3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라운드테이블 추진 관련 주요 의제 (라도삼)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FGI 질문지/온라인 설문지 (배소현) -청년청 관련 의제 및 청년청과 청년예술추진위 관계설정 (박도빈)
토론	-청년예술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의제

(1) 발표

- 라운드테이블 추진 관련 주요 의제 (라도삼)
 - 지난 3년간 라운드테이블 및 청년예술가 의견 수렴 절차들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 청년예술정책 네트워크 구성 ▷ 당사자주의 구현 기반 마련(재단 내 제도화)
 - 청년예술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이슈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포럼 또는 라운드테이블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변화 및 예술정책의 변화 ▷ 청년 의제 구현
 - 기획팀이 추진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준비위 구성: 청년의제 발굴 및 라운드테이블 구성
 - 청년 의제 발굴: 각종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의제와 청년대상의 조사를 통해 청년의제 발굴
 - 라운드테이블 구성: 관련된 (청년)당사자 모이기
 - 라운드테이블 기획: 1박2일의 캠프 형태로 할 것인가, 주기적인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인가
 - 라운드테이블 개최운영: 청년예술정책 의제 리스트 정리
 - 재단 내 조직화 및 제도화 구성
-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 (배소현)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가의 경력단계별(생애주기별)로 지원사업 운영
 - 태동기 ▷ 예술계 진입기: 최초예술지원(예술계 진입하고자 하는 신진예술가 지원)
 - 진입기 ▷ 성장기: 유망예술지원(잠재력과 수월성을 갖춘 유망 예술가 지원)
 - 성장기 ▷ 안정기 ▷ 지속기: 예술창작지원(안정된 창작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의 작품제작 및 발표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안정된 창작역량을 갖춘 단체와 공연장의 협력을 통해 창작품 보급확산))
 -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은 2016년 비기너스 프로젝트로 시범 운영 시작, 2017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6년에는 비기너스 프로젝트로 최초예술지원과 소액多컴 사업 추진. 예산은 총 1.8억 원

- 2017년은 최초예술지원,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총 75억 원임
- 2018년에는 최초예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이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서울청년예술단도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운영. 예산 총액은 총 70억 원임
- 2019년에도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기획형 청년예술단 사업이 신설됨. 예산은 총 90억 원임

(2) 토론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논의
 - 지원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팀이나 담당자가 리스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 많은 당사자가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결과정을 거친다면 리스크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박도빈)
 - 지원사업에서 리서치라는 것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확장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적인 시선이 필요 (최선영)
 - 꼭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야 하는가?
 -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 (박도빈)
- 설문지 방향 논의¹¹⁾
 - 예술가로서의 청년과 세대론으로서의 청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너무 강조되었다는 생각이 듦 (강지윤)
 - 청년예술인 지원은 안전망 사업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우월보다는 '다양'하다는 개념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 (정진세)
 - 청년예술인의 안전망은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으로 작동해야 함 (라도삼)
 - 청년예술인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 (정진세)
 - 청년예술인이라는 한명의 개인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박도빈)

11) 이 연구의 8장에 서술되어 있는 '설문조사'는 조사 설계부터 청년 당사자로 이루어진 '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 모임'과 연구진이 함께 논의를 통해 진행

5) 4차 회의: 청년예술정책 방향 논의

[표 6-5] 4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7월 19일(수) 오전 9시 / 공향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헌,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방향 (최선영)
토론	-청년예술정책 방향



[그림 6-3]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4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방향 (최선영)
 - ‘청년예술’의 방향성 제안: △모호하지만 가속화되고 있는 ‘청년예술’이 계속 발생될 수 있게 하는 것(기존의 개념으로 평가하거나 막지 않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청년예술’을 동시대성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읽어내는 시선을 마련하는 것
 - 즉, 2019년 청년예술은 ‘모호한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것의 해석 언어를 참아서 미래적 개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창작 지원 관련: 모호한 가능성에 대한 지원
 - 성과 관리 관련: 모호한 현장에 대한 성과나 가치를 읽어내는 언어, 개념의 정립
 - 장기적 계획 관련: 안정된 청년예술의 개념적 정리 지양, 동시대성과 연결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예술의 속성과 가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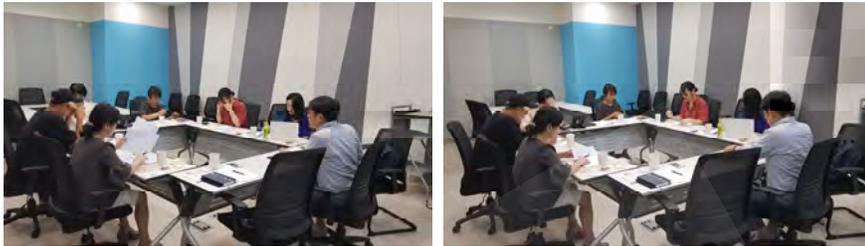
(2) 토론

- 청년예술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가? 연령, 예술의 특성, 생존과 지속성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원예술’ 영역이 등장. 다원예술을 청년예술의 기원으로 볼 수 있어 (정진세)
 - 당시 다원예술은 탈장르·복합장르 형태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예술가들이 독립예술, 실험예술, 거리예술 등의 형태로 활동
 - 당시 다원예술을 읽어낼 수 없는 비평가가 없었으며, 다원예술은 장르 쪽으로 가면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음. 다원예술 비평을 통해 성장한 세대들이 있음
 - 비평, 시장 등을 통한 ‘검증 시스템’이 중요한데 지원시스템 안에서 비평 기능이 날카로워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 오히려 다원예술은 명확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 청년예술을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카테고리 묶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어 (강지윤)
 - 청년예술을 나이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편리함 때문. ‘모호성’을 청년예술의 속성으로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최선영)
 - 청년예술인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청년예술인의 ‘삶’과 관련된 부분. 생존의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박도빈)
 - 동시대의 예술에 대한 개념, 청년에 대한 개념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며 우리 안에서의 합의된 관점이 필요 (정진세)
 - 생존보다는 ‘지속’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 더불어 비평의 기회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 청년예술인의 교육 등에 대한 고민 필요 (강지윤)
 - 청년수당으로 인해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계망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높아지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 (박도빈)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관리자를 위한 지원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술노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진세)
- 설문지 문항 관련해서 논의 진행
 - 문항별로 수정해야 할 부분 및 추가해야 할 문항에 대해 논의

6) 5차 회의: 서울청년예술인캠프 주요 방향 논의

[표 6-6] 5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희, 라도삼, 이정현
발표	-청년예술지원 정책 (강지윤) -라운드테이블 조직방안 (정진세)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옥민아) -청년예술정책의 쟁점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지원사업 혁신 방향 / 라운드테이블 조직 방안



[그림 6-4]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5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강지윤)
 - 현재의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사업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느낌
 -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지점은 △교육과 관련된 지원, △예술 작업을 그만두는 것과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수월하도록 하는 지원, △비평의 지원 필요
 - 지원서 작성, 좋은 전시들에 대한 사례 연구, 재료학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 등을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갭이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예술정책은 물리적 나이의 청년이 아닌 새로 진입하는 사람, 경력 단절 이후 재진입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비평을 위한 지원, 비평플랫폼에 대한 지원 필요 ▷ 새로운 비평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 라운드테이블 조직 방안 (정진세)
 - 구성원의 전제조건: 나의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기, 상호간 신뢰가 검증된 상대, '쿨'함(강요하지 않음), 조직 안에서의 역할이나 경험에 대해 재배치/재맥락화 하는 능력, 집단지성의 믿음, 특정 의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
 - 조직의 전제조건: 확실한 동료, 매력, 인건비, 전망, 실무조직+매개자, 분명한 타임라인
 - 전문가성, 당사자성, 자발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구조
- 청년예술정책의 쟁점 (라도삼)
 - 청년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계에 막 진입한 작가들이 느끼는 그들의 환경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청년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현 지원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향후 라운드테이블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
-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옥민아)
 -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추출한 지원 목표의 키워드들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가, #예술창작활동 기회 및 안정적 활동기반,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에게) 예술활동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단기 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 단체에게)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 활동기반 지원, #발굴, 육성, #청년예술 자생력 강화, #예술 생태계, #역량 강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청년예술가 당사자성을 통한) 더 나은 공연생태계 조성, #(청년예술가의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지원과 촉진
 - 지원사업 목표의 가설들
 - 청년예술가의 지속 가능성, 예술 생태계 실존의 문제
 - (예술가로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예술활동 기회 제공
 - 미숙함의 상태를 긍정하는 생태계 확립(미숙함의 상태를 이겨낸 이후의 예술가가 예술 생태계를 견인한다는 근거를 지지한다는 전제)
 - 청년예술가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합의
 - 왜, 청년예술가를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

(2) 토론

- 청년예술지원사업 내의 청년예술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예술 전체의 신(scene)을 보는 것이 필요 (옥민아)
 - 현재의 지원사업은 ‘지원금’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청년예술인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
 - 청년예술인들은 ‘내가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기도 함. 누군가가 이를 보고, 상태를 진단해주고, 이러한 모호함의 상태를 언어로 정의해 주는 작업이 필요 ▷ 비평의 기능 활성화 필요
- 라운드테이블 조직 관련
 - (방식) 라운드테이블 참여는 완전히 열려있는 오픈 형태가 아닌 추천의 방식으로 진행 (박도빈)
 - (주제) 매력을 느낄만한 이슈가 전면에 내세워져야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강지윤)
 - (주제) “2010년대에 열심히 살아온 청년들, 2020년대를 상상해보자! 2020년대에 예술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술을 가져보자!” (정진세)
 - (주제) 다양한 경험담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매개로 논의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라 생각 (최선영)
 - (결론) 위원회 형태로 가고, 위원회가 캠프(또는 라운드테이블)를 이끌어가는 방식. 이를 위해서는 내부학습과정이 필요할 것. 이후 10월 중순~11월 중순쯤에 캠프(또는 라운드테이블) 진행
 - 내부학습은 ①현재까지의 논의 정리, ②청년예술가 초대 포럼, ③현장 모니터링(지원사업 현장의 경험 공유, 지원사업/정책 전환 논의 등)으로 진행
 - 이후 캠프(또는 라운드테이블)를 기획해서 이를 10월 중순~11월 중순에 진행. 캠프(또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①현재 지원사업 또는 청년 정책 의제 ②청년 네트워크 발전 방향 ③2020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등을 논의
 - 위원회는 당사자로 가고, 초대 포럼 등에는 청년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가능

7) 6차 회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혁신방안 논의

[표 6-7] 6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8월 8일(목) 오전 9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틀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이정현, 배소현
발표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옥민아)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최선영) -청년예술정책 방향 및 라운드테이블 구상 (정진세)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현황과 재구조화 (백선혜)
토론	-청년예술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심사과정 혁신 논의 -라운드테이블 구상



[그림 6-5]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6차 회의

(1) 발표

-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옥민아)
 - 청년예술지원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청년예술인들은 팀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팀이 급조되어 결성되는 경우가 많음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신청만 최초예술지원이 가능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많음(심리적으로 40%). 진짜 최초인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 필요
 -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리서치 부분’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이상적인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고, 심사과정을 공개하였으며, 선정이 완료된 후에도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 및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음
 - 아르코의 ‘청년예술가생애찾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액이 큰 것에 비해 심사과정이 너무 간소했음. 간소해서 편하긴 했으나 너무 간소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 것 또한 사실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방향 (최선영)
 -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의 확대, △공모형 사업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을 해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상시적 지원: 비평언어 발굴/매칭 지원, 행정언어의 학습지원,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홍보지원 등
 - 공모형 사업: 청년예술인들이 더 원활하게 지원참여·실행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다양한 영역이나 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운영 방식의 변화 필요
 - 그렇기 때문에 △90억 원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상시적 지원에 투여할 것인지, △공모형 사업의 운영비를 어떻게 기획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라운드테이블 구체화 구상 (정진세)
 - 추천방식: 장르교차 추천/역할교차 추천/동료 추천/청년발굴 추천/추천 반대
 - 대상: △최근 자기플랫폼 - 공간/잡지/비영리단체/축제 활동 경험(6점), △최근 민관거버넌스 경험(5점), △기획자의 기획자, 비평가의 비평가, 예술가의 예술가(4점), △공인된 실패-경험주의자(3점) △문지마-추천(2점)
 - 총 20점인데, 11점이 넘으면 라운드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 성격/역할: △ 논의와 실천을 위한 주체되기 △ 기한/역할/책임/의무/권리 등을 명시한 ‘테이블 룰’ 만들기

(2) 토론

- 최초예술지원사업에 기성 예술가들이 지원·선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업의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은 진입단계의 기존 사업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것. 그러나 현재는 다른 목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음.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분리, 2개의 트랙으로 나누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배소현)
 - 최초예술지원이 최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기준 또한 이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강지윤)

- 최초예술지원의 선정자가 최초가 아닌 사람으로 발표된 순간(혹은 슈퍼스타가 선정된 순간) 기성예술가들은 내가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즉,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지원목적에 맞는 심사결과 또한 중요한 부분 (정진세, 강지윤)
- 지원금 배분이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괄 지급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기성예술가가 신청하는 작품지원사업과 최초예술지원사업을 저울질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문제 (강지윤)
-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체계적인 멘토링, 매달 공유 라운드테이블 등의 장치를 두어서 기성예술가들이 아닌 최초로 진입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함 (옥민아)
- 최초가 아닌 사람이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대한 예술가들 스스로의 자정 작용 또한 필요 (정진세)
- 현재 너무 비슷한 지원사업들이 재단 내에 많이 있는 상황. 지원사업 전체를 단계별로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
 -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파리3대학처럼 지원사업 1, 지원사업 2, 지원사업 3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즉 정산 필요 없이 소액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1부터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원사업 X까지,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식도 고민될 필요가 있음 (옥민아)
 - 현재는 너무 장르주의, 수월성, 결과 중심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어떻게 보면 최초예술지원 안에서 수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고 모순되는 지점 (정진세)
- 현재는 지원금 중심의 시스템. 상시적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최선영)
 - 재단이 광역적 단위에서 자원을 배분한다면, 상시적 간접지원은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박도빈)

8) 7차 회의: 서울청년예술인캠프 추진계획 논의

[표 6-8] 7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개요

일시/장소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 공향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지윤(시각예술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정책 연구 (김재상, 성연주) -청년예술인 대상 온라인 설문지/청년예술캠프 추진계획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정책 방향 -온라인 설문지 -청년예술인캠프 및 준비위원회 추진



[그림 6-6]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 7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정책 연구 (김재상, 성연주)¹²⁾
 - 2018년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 소개¹³⁾
 - 기성의 반대 의미로서 청년: 청년예술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다만 청년예술에 대치된 지점으로서 '기성예술인'의 존재 인지
 - 복지 대상으로서 청년: 청년예술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다만, 예술인·작품의 직접 지원보다는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네트워크가 더 중요
 - 나이 기준으로서의 청년: '청년예술가'라는 표어에서 암묵적인 열등감 발견. 나이로서 청년보다는 '청년예술가'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
 - 청년을 벗어나기 위한 청년: '청년예술가'라는 이름은 언젠가는 반드시 청년을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음. 미래에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관과 네트워크 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12) 문화정책연구자모임인 '후레쉬'는 2030 세대의 시선으로 문화정책에 접근하고 '후레쉬한' 문화정책을 생산·교류하기 위한 모임인. 후레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상, 성연주가 2018년에 청년예술가를 인터뷰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예술 정책을 제안하는 발제를 진행

13) 인터뷰 결과는 "청년예술정책과 청년예술가라는 호명"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작성 중에 있음

- 청년예술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청년예술 아카이빙&비평 시스템 도입: 청년예술의 동시대성을 독해하고 발화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 사회적 인정과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아카이빙&비평 생태계 구축
 - 예술 행정기관 간의 사업 협력: 유사사업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 관점의 사업 설계 추진. 각 기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행정 탈피
 - 지원사업 권위 획득을 위한 브랜딩 전략 기획: 다양한 역할·권위를 탑재하는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 심사제도 개편(열린, 소통하는, 참여하는 심사): 지원한 청년예술가들이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피드백을 받아가는 형태, 심사의 전체 과정이 공개, 심사 전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
 - 청년예술인캠프(라운드테이블) 추진계획 (라도삼)
 - 개최목적: △청년예술정책 당사자 주체성 형성, △서울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문제의식 설정, △청년예술인 정책의제 탐색
 - 개최방식: 청년예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주관 아래 개최
 -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 9~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위원 조건: 예술계(문화기획 포함) 활동경험, 민관거버넌스 참여경험, 그룹 내 인정, 예술계 문제의식 등
- ※ 참여기준: 책임성(시간투여, 자기 이해가 아닌 공공적 담론 가능한 자), 공유성(민주적 절차에 대한 감수성, 타인의 의견에 대한 경청), 당사자(청년 예술인이거나 청년예술 관련 활동경험 보유)
- 운영기간: 2019년 9월 6일(1차 모임)~2019년 10월 31일(캠프종료 시)
 - 준비위 추진일정
 - 9월: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포럼 개최
 - 10월: 청년예술인캠프 개최
 - 청년예술인캠프 진행 방안
 - 주요 의제: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생태와 예술 Scene, △청년예술인들의 생활과 인권,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과 사회적 권리, △ 청년예술인 정책 체계(당사자주의 구현 방안)

- 진행 방안: 해당 의제를 중심으로 위원회 주관 하에 10개의 Keyword 발굴 ▷ 해당 Keyword별 라운드테이블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주관)

(2) 토론

- 설문지 문항 관련 논의
- ‘청년예술이란 무엇인가?’, ‘청년예술인은 왜 지원해야 하는가?’ 관련 논의
 - 청년예술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장지원과 창작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 (라도삼)
 - 지원 안에 비평에 대한 부분, 지원받으면서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청년예술인의 개념, 지원의 이유 다음 단계의 고민은 무엇일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 있음
 - 책임감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 생각. 개인적·주관적인 답일지라도 책임성 있게 정리하는 것 필요 (정진세)
 - 예술가들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실천적인 전략 필요
- 청년예술인캠프 추진계획 논의
 - 일정, 진행 방식, 추가 위원 추천 등 논의

2_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 개요

- 청년예술인 당사자 주체 형성을 위한 서울청년예술인캠프를 기획. 이를 위해 당사자 중심의 준비위원회를 구성
 - 기존의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구상·기획팀을 확대하여 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에 총 10명이 참여하여 진행
 -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9월부터 12월까지 총 11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과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각 1회씩 개최

[표 6-9]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구분	주요내용	
1차	일시/장소	-2019년 9월 3일(화) 오후 2시 / (구)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대회의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강지윤(시각예술가),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임미혜, 최재훈, 배소현,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발표	-그동안의 진행사항 및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구성 및 캠프 기획안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추진방향
2차	일시/장소	-2019년 9월 16일(월) 저녁 6시 / 만복림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김종휘, 임미혜, 배소현,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발표	-청년예술인 정책에 있어 주요 쟁점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추진방향
3차	일시/장소	-2019년 9월 23일(월) 저녁 6시 / 만리성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토론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추진방향
4차	일시/장소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이지은
	발표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성연주, 옥민아, 최선영, 강정아, 이민주)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전략 (김재상, 정진세, 성연주, 최선영) -청년예술가로서의 예술대학생의 열악한 상황과 개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신민준)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방향 논의
5차	일시/장소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 상연재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이지은
	발표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강정아, 이민주, 최선영)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방향 논의

구분	주요내용	
6차	일시/장소	-2019년 10월 21일(수) 오후 1시 / 상연재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최재훈,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인캠프 기획 (최선영)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구성/역할 분담)
7차	일시/장소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 공향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김영호, 배소현, 이지은
	발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최선영)
	토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8차	일시/장소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 (구)대학로 동숭아트센터 회의실
	참석자	강정아,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이정현, 김영호, 배소현, 이지은
	발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최선영)
	토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9차	일시/장소	-2019년 11월 06일(수) 오전 10시 / 서울시NPO지원센터 받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이정현)
	토론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논의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세부사항 논의
10차	일시/장소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5시 / 포스트타워 회의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토론	-서울청년예술인회의 향후 계획 논의
11차	일시/장소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3시 / 서울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이정현, 김영호, 배소현, 이지은
	발제	-2020년 서울청년예술인회의운영단 기본계획 (최선영)
	토론	-서울청년예술인회의 향후 계획 논의

2) 1차 회의: 그간의 추진과정 공유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표 6-10] 1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9월 3일(화) 오후 2시 / (구)대학로 동송아트센터 2층 대회의실
참석자	강정애(독립기획자), 강지윤(시각예술가),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애(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임미혜, 최재훈, 배소현,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발표	-그동안의 진행사항 및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구성 및 캠프 기획안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추진방향



[그림 6-7]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차 회의

(1) 발표

- 그동안의 진행상황 공유 및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라도삼)
 - 연구 소개 및 전문가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준비모임 진행 과정 공유
 - 청년예술인캠프 추진 일정
 - 9월에는 준비위 구성 및 청년예술인캠프 개최 준비
 - 10월에는 청년예술인캠프 개최(10월 30일~31일) 및 청년당사자 주체 형성
 -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준비위는 총 9~11명으로 구성(현재 9명 확정). 위원장은 금일 회의를 통해 선정
 - 준비위 운영기간은 2019년 9월 3일~2019년 10월 31일(캠프 종료 시점)
 - 청년예술인캠프 구성 및 운영
 - 청년예술인캠프는 청년당사자들이 모여, 핵심주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할 청년예술인정책 당사자 주체를 형성할 목적으로 개최

- 이 모든 사항은 준비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며, 연구팀은 단지 이의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함
-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의제: △청년예술인들의 예술 생태, △청년예술인들의 예술 신(scene), △청년예술인들의 생활과 인권,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과 사회적 권리(노동, 저작권 등), △청년예술인 정책체계, △청년예술인 당사자 주체의 형성 등

(2) 토론

- 위원장으로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선출
- 청년예술인캠프는 당사자가 당사자를 초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진행했던 ‘더넓은라운드테이블’과는 다른 형태 (정진세)
 - 더넓은 라운드테이블은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었던, 두 주체(게스트-호스트)가 만나는 자리였음. 청년예술인캠프는 당사자가 당사자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호스트와 게스트가 다르지 않을 것
 - 다만, 청년예술인캠프가 너무 기획이 된다면 호스트성과 게스트성이 나타나면서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기획이 안 된다면 그 자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 중요
- 10월은 청년예술인들이 너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캠프 개최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 (박도빈, 강정아)
 - 현장의 흐름을 생각하면 12월~2월에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박도빈)
- 청년예술인의 범위, 캠프의 목적 등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 (박도빈)
 - (청년예술인의 범위) 청년예술인을 청년 창작자에 한정을 시킬 것인가, 기획자나 활동가,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다 포함할 것인가? 즉, 청년예술 당사자 주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 (청년예술인캠프의 목적) 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기대하는 것인가?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인가?
- 청년예술가 당사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 (옥민아)

- 청년예술인캠프를 2~3회 정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
- 그동안은 기존 정책과 관련해서 호명되던 사람들만 이러한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캠프'는 청년예술가들이 당사자로서 처음 모이는 자리가 될 것. 소속감을 갖기 힘든 이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 정책보다는 '원칙'을 제안하는 것으로 캠프의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음 (최선영)
 -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캠프를 홍보하면 청년예술가들이 부담을 느껴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정책 제안보다는 재단이 정책을 설계할 때 청년당사자로서 제시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들어 내자라고 홍보한다면 모이기가 좀 더 수월할 것
- 청년예술인캠프는 기존에 진행된 라운드테이블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 (강지윤)
 - 외부에서 본다면 찾아가는 간담회, 더넓은라운드테이블, 청년예술인캠프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성 있게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 현장에서 지원제도를 많이 경험한 작가들은 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음. 그런데 '청년예술가가 누구인가?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이를 적절하게 섞어주는 것이 필요
- 청년예술인이 본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 (라도삼)
- 청년예술인들이 왜 당사자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강정아)
 - 당사자가 왜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렇기에 청년예술인캠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캠프에서 우리사회에 예술이 왜 필요한지, 예술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선언하고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선언이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의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고, 그들이 당사자성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음

- 청년예술인들이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접근방식을 찾는 것도 필요 (성연주)
 - 캠프는 청년예술가가 공유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자리이므로 불합리한 사회, 경쟁이 치열한 사회 등과 같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설정해 보는 것도 필요. 그래야 내가 당사자이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 캠프는 청년예술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김재상)
 - 청년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정책이 등장한 후부터 2030예술가들이 말을 할 기회가 생기기 시작. 내가 어떤 예술작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난 어떤 예술작업을 하고 싶은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술가의 지위는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의 역할을 캠프가 해야 할 것
-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 필요 (최선영)
 - 어떻게 동원이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떤 질문들을 던져서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얻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너무 큰 이야기이고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 또한 사실 (강지윤)
 - '청년예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 큰 이야기임. 더불어 청년예술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논의해 왔는데, 이것 또한 우리 안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 이는 100명이 모인다고 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 생각
- 자율예산과 같이 우리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 (박도빈)
 - 청년자율예산과 관련해 지난주 토요일에 500억 원이 어떻게 쓰일지 결정되었음. 그 안에 문화 분과가 있고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았음
 - 청년예술 생태계 안에도 자율예산이라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자율예산과 준비위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실제로 논의할 주체가 있고, 답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과정 속에 매몰되는 듯한 느낌이 있음

- 이 모임에 기대하는 것은 정책이 실현되어 그것이 나(청년예술가)를 보호해주는 것 (강정아)
 - 그동안은 왜 청년예술가를 보호해줘야 하는지를 합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음. 캠프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그런 사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청년예술인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계기를 캠프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김재상)
 -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문화 분과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음. 아쉬운 점은 예술, 문화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정책이 이러하니 바꾸자는 등의 현상 대응에 집중하다보니 정책을 짜집기하는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향도 있음
 - 청년예술인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계기로 캠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함
- 캠프를 통해 시작점을 찍고 향후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 (박도빈)
 - 이 신(scene) 안에서 전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새로운 세대가 해야 한다고 생각. 당사자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장일수)
 - 청년예술가는 어디선가 계속 오는 사람이고, 또 어딘가를 계속 가는 사람임. 즉, 청년예술가라는 단어가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 청소년과 청년 예술가는 확연히 구분되지만, 그 뒤로는 계속 모호한 것이 사실. 당사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생태계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
- 캠프에서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 (이민주)
 -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피로도가 높은 것이 사실. 현장에서는 어차피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 그렇기에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
 - 청년예술인을 창작자로 한정한다면, 기획과 비평의 영역이 축소되는 느낌. 기획과 비평도 한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

3) 2차 회의: 위원회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과 논의

[표 6-11] 2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9월 16일(월) 저녁 6시 / 만복림
참석자	강정애(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김중휘, 임미혜, 배소현,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발표	-청년예술인 정책에 있어 주요 쟁점 (라도삼)
토론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추진방향



[그림 6-8]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2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인 정책에 있어 주요 쟁점 (라도삼)
 - 청년예술(인),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 청년예술인 사업에 있어서는 청년예술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
 - 물리적 나이보다는 예술 생태계 내에서의 위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청년예술인을 기성예술에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배제된 것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청년예술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성예술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흐름이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현재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현재의 지원사업은 폭 넓고 꼼꼼하게 기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 다만, 청년당사자가 참여해 설계한 사업이 없고, 재단 목표 체계 아래 시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우며, 복잡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
 - 지원사업의 혁신 방향
 - 예술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생태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지원하는 것이

- 필요. 당사자성이 특히 중요하며, 기존 예술(지원체)계에서 수용될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실험과 시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 청년세대는 공정성, 과정 중시 등을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참여와 소통의 감각이 필요
- 직접적인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청년예술지원 정책은 청년예술정책으로 재설계되는 것이 필요
- 당사자주의 구현
 - 청년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작은 사업을 설계해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거버넌스 전략이자 학습 중 하나. 청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또한 고민해 볼 문제
- 라운드테이블(청년예술인캠프) 구성과 운영
 - 캠프를 위해 준비위원회와 재단, 연구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2) 토론

- 섬세한 방법론과 현실적인 요소가 부딪히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성 확보에 있어서 서로 의지를 갖고 어떤 방법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최선영)
- 재단에서는 청년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 나갈 예정. 다만, 각 주체가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 상호지지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 (김종휘)
 - 현재 재단에서는 예술지원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 내년도 예술 지원체계 개선 적용방안과 2021년 적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 예술지원체계 개선 논의에서는 청년예술을 별도로 보기보다는 전체 지원 정책 안에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음
 - 내년 정책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청년의 스펙트럼 중 어느 정도를 1단계로 고민하자는 등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필요
 - 청년예술지원의 개선 및 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는 기성 예술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 준비위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 (김재상)

- 청년예술인캠프에서 논의된 안건이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 (이민주)
 - 청년예술인캠프가 불만토로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투표를 통해서 뚜렷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안건을 바탕으로 실현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술계 내에서 이야기 되었던 ‘커미셔너 제도’를 제안
 - 커미셔너 제도란 지원금 집행 시 평가위원을 두는 것 대신 기획자나 비평가에게 커미셔너의 역할을 분배. 이들에게 지원사업 자체를 위임하는 방식
- 청년예술인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재단이 답을 주는 것이 필요 (최선영)
 -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이미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 다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당사자와의 협의가 있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 지원사업은 많아지고 다양해졌지만, 운영방식은 똑같다는 것이 문제
- 정책 실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 재단은 준비위 함께 거버넌스의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음 (김종휘)
 - 현재의 준비위는 청년 당사자성이라는 협의구조에서 재단과 함께 청년 당사자성을 만들어 갈 첫 번째 주자들임
 - 준비위가 구체적인 현실에 같이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트랙이 존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기존의 정책 자문위와 다른 부분. 앞서 말한 몇 가지 정책 실험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준비위와 함께 거버넌스의 경험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음
-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이제는 당사자주의에서 ‘실천전략’으로 논의가 이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임미혜)
 - 재단도 모호한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행정은 제약이 많지만 가능성 또한 많기 때문에 행정을 잘 이용하는 것 또한 중요
 - 당사자주의가 논의의 핵심이 되기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 논의를 이동하는 것이 필요
- 지원의 운영방식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작은 정책적 실험을 해보는 것,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 (정진세)

- 그동안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
- 예술경영지원센터보다는 '예술노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예술가들은 경영자라기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느낌. 그렇기에 이에 대한 활로를 찾아 줄 수 있는 작은 사업, 작은 프로그램 등의 기획이 필요
- 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성연주)
 -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고 논의를 진행시킨다면 논의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 내년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준비위가 '안'을 먼저 제안하고 이에 대해 재단이 회신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좀 더 유의미해질 것
- 목표를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보다는 라운드테이블 기획운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강정아)
 - 거버넌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거버넌스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라운드테이블'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
 - '동료 예술가들에게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이 작업에 서울문화재단 등 행정전문가들이 의지가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거버넌스의 형태와 방식은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3월까지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음
-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기존 자문기구와 다를 것이 없음 (정진세)
 -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자문기구가 작동되고 기간이 끝나면 철수하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할 것
 - 거버넌스라는 것은 다 자기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 다만, 그것을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의사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 거버넌스라는 말이 주는 모호함이 있어, 지속이라는 측면에서의 안정성은 가져가되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강정아)
 - 거버넌스라는 것이 단체의 대표가 계속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있고 이것

- 이 과연 현장의 목소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함. 재단과의 약속, 안정성은 가져가되 우리끼리의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 준비위 운영 방향, 운영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 (임미혜)
 - 준비위 운영에 대한 이상향을 설정하고, 운영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 이를 바탕으로 재단과 논의를 해야 논의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 거버넌스 1기의 정신을 설계하고 합의된 하나의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옥민아)
 - 우리가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어느 부분부터 건드릴지를 우리 안에서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
 - 거버넌스 1기의 정신을 설계하고, 이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4) 3차 회의: 위원회의 추진방향 논의

[표 6-12] 3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9월 23일(월) 저녁 6시 / 만리성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훈, 라도삼, 이정현
토론	-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 추진방향

- 탁상공론을 넘어선 '실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 (정진세)
 - 심사과정 100% 공개 등과 같이 실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보고 싶음.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 필요
- 답론을 꾸준히 생산해 내고 그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싶음 (성연주)
 - 언어를 꾸준히 만들어 내고(의미화시켜주고), 아카이빙하고,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싶음. 꼭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 담론 형성 및 정책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보고 싶음 (김재상)
 - 왜 예술가들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까? 예술가들 간의 논쟁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담론형성)을 함. 이번 위원회를 통해 담론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상상을 해 봄
 - 거버넌스를 목표로 놓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됨.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다가 지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음
- 예술가들 간의 작품에 대한 논쟁 필요 (옥민아)
 - 준비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 청년예술인들 간의 정보의 접근성 평등, △ 예술가 간의 신뢰를 전제로 작품에 대한 논쟁(관심과 비평)이 활발해지는 것
- 기승전'정책'과 같이 모든 것이 정책으로만 귀결되지는 않았으면 함 (김재상)
 -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페이퍼부터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술생태의 근본 문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 담론이 꼭 찬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 볼 필요 있음 (정진세)
 - 담론이 꼭 찬 정책도, 담론이 더 필요한 정책도 있음. 담론도 있고, 당사자주의에도 맞고, 청년 가치에도 합당하지만 무언가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는 정책들은 추진해 볼 필요 있음
-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담론 형성이 중요하며, 지속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 (강정아)
 - '예술을 어떻게 그만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처럼 사회적 쓰임이 많은 청년예술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 정책보다는 이러한 담론이 계속 발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
 - 청년예술가들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술가라는 직업적인 귀결로 인해 결국에는 고립된다는 느낌이 들
 -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세계시민적 자세(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남이 가진 것을 인정해 주는 것)라고 생각. 이러한 태도들이 관계로 인해 배울 수 있는 자리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음
-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청년예술인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 (정진세)
 - 늘 청년예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재단'이 정책을 만드는 것에 답답함을

- 느낌. 실패하더라도 청년예술인들이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이 필요
- 정책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정책을 매개로 다양한 이슈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현장 예술가들의 인식을 바꾸어 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최선영)
 - ‘다들 정책에는 관심이 있다! 하지만 정책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다 담아낼 수 없고, 내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정책이 갖는 한계에 대해 알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 최종 목표를 ‘정책’으로 두면 위원회가 갖는 부담감이 상당함. 오히려 정책을 매개로 다양한 이슈를 끌어내고 논의를 확장시키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
 - 현장예술가들의 고민 확장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바꾼다기보다 현장을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음
 - 위원회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지도 고민 (김재상)
 - 정책을 축으로 하되,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 또한 필요 (라도삼)
 - 위원회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풀어 나아가야 할 문제로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한 담론 형성, △예술가들 서로간의 비평 등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 설계 등 3가지임
 - 오늘 논의했던 것처럼 정책을 축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함께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 필요. 핵심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빠져서는 안 되고, 정책 모니터링, 이슈 파이팅(문제제기) 등도 함께 해 나가야 함.
 - 개인적으로는 예술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비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연수 프로그램,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 공간 지원 등과 같이 지원사업(지원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
 - 위원회의 일을 빠르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성연주)

5) 4차 회의: 서울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논의

[표 6-13] 4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 공향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이지은
발표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성연주, 옥민아, 최선영, 강정아, 이민주)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전략 (김재상, 정진세, 성연주, 최선영) -청년예술가로서의 예술대학생의 열악한 상황과 개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신민준)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방향 논의

(1) 발표

① 서울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강정아)

- 개최 의도

- 2019년의 청년예술가를 규정하고 있는 현 지점을 파악하고, 장르 구분 없이 창작활동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
-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공정성의 방식, 예술공간의 확장영역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
- 특히 캠프에 참여하는 예술가가 자발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대상: 청년예술가(장르 구분 상관없이 49세까지 설정)

- 진행일시: 2019년 11월 11일 16:00~22:00

- 진행 방식

- 사전에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음. 설문조사를 통해 발췌된 문장이나 질문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질문안을 작성

- ① 인사말
- ② 테이블마다 의제가 정해져 있음
 - 각 10명씩 앉은 10개의 테이블 배치 (모더레이터, 기록담당자 포함)
 - 40분 정도의 대화 시간을 갖고 테이블 회전: 3개의 코어를 중심으로 테이블 회전, 쉬는 시간 포함 150분 정도 소요
 - 3개의 코어: △최초 코어의 지속성 “청년예술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합의와 공동의 의제 “지원사업 세부적인 운영방식, 공정성, 실험방식 제안 예술공간의 확장과 영역”,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미래언어(작품 비평과 피드백에 대한 성장 비평의 자리는 무엇?)
- ③ 모더레이터가 테이블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 (30분 소요)
- ④ 2017~2019년도에 각 단체에서 나온 ‘청년예술’과 ‘정책제안서’에 대한 흐름과 방향에 대한 현상 공유
- ⑤ 추가 발언장을 가짐 (자유롭게 질의응답)

- 이 날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연결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 캠프 논의 주제 (성연주)
 - (나는 당신의 예술이 궁금합니다) 실제 청년예술 공연이나 전시 작품 사례를 놓고 같이 비평을 하거나 비평의 장에 내놓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
 - (공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법) 청년예술공간이 예술작품 자체로는 운영하기 어려워니 커피, 술, 음식 등을 판매하는데, 이 또한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듭.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 (필요한 파트너와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서로 다른 장르의 창작자나 기획자를 만나고 함께 협력하는 방법
 - (대학 교육을 현실 사회에 적용해 보기) 왜 예술대학에서 배우는 건 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경영일까, 아니면 예술기획, 예술노동?
 - (지원사업에 맞는 작품 말고, 작품에 맞는 지원사업 찾아보기) 내 작품에 맞는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야 내 작품에 맞는 것이 될까? 시기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돈을 더 자유롭게 쓰는 것일까?
 - (예술바깥에 있는 자원을 예술 안으로 가져오기, 활용하기) 사회적경제, 청년지원, 창업 지원, 해커톤, 도시재생 등의 비슷한 시도들이 도시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 이런 자원을 예술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 (우리에게 연대가 필요한 지점, 이유) 왜 지금 우리는 청년세대를 말할까? 우리에게 공통된 경험과 감정이 있다는 의미일까? 나는 예술계에서 일하면서 어떤 연대를 필요로 했나? 또는 어떤 네트워크를?

- (심사 말고 피드백) 붙고 떨어지는 심사 말고 정말 내 작품에 관심 가져 주는, 내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옥민아)
 - 논의할 문제
 - A. 나는 - telling - 청년예술가 개인의 작업을 점검하는 효과 - 서로를 만나는 첫 순서
 - B. 너는 - asking - 타인의 작품을 경청하는 효과 - 작품에 대한 질문은 해당 캠프가 (평가가 아닌) 비평의 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
 - C. 우리는 - introduce - '청년예술가의 정체성' 점검 효과 - what / how
 - _what - 우리는(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미) 있는 것, (갖고 있으나) 버릴 것은 무엇인가?
 - _how -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개인적 영역), 필요한 것을(사회적 영역) 얻을 수 있는가
 - _사회적 운동, 예술가의 행동으로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정책으로서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출
 - D. 상상하기 - hope - '미래의 청년예술가'를 대비하는 효과 - 과거의 나에게 주고 싶은 것, 제공하고 싶은 정책, 당부하고 싶은 말. 등을 상상해 보기. 이를 통해 정책제안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음
 - 진행방식 제안
 - 라운드테이블 진행: 테이블마다 회의 진행방식, 캐릭터를 다양화함. 참석자들이 사전에 본인이 참여할 테이블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관심사,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설문지표를 개발(예. 모비랩, 사다리타기 설문지표 등)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이민주)
 - 구성
 - (1부) 청년예술정책 지원기금 수혜자의 발표로 구성
 - _재단의 선택을 받은 지원자가 말하는 지원 전략 및 제도에 관한 의견 공유
 - _직접 지원서를 쓸 때의 태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원서를 작성하는지 방법론을 공유
 - (2부) 토론식 테이블 구성: 총 네 개의 테이블
 - _8인의 준비위원회 구성원은 2인 1조로 한 테이블. 한 테이블에서 하나의 의제로 찬/반 분리

_8인의 준비위원회 구성원이 한 의제에 가능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고
각 그 입장에 맞춰 테이블 진행

- 목표

- (1부) 청년예술정책 지원제도 언어에 익숙한 당사자가 말하는 지원제도에 관한 전략 공유
- (2부)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의제를 둘러싼 토론의 방향을 파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가능성 파악

- 의제

- 청년예술가의 '청년' 개념의 기준: 나이? 경력?
- 청년예술가 거버넌스 그룹의 필요성
- 지원제도의 필요성: 지원제도와 창작의 관계
- 비평/기획 지원제도 확장 여부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최선영)

- 목적: 공공지원에 대한 관심을, 예술인 개인의 필요에서 공동의 이슈로 확장

- 구성(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주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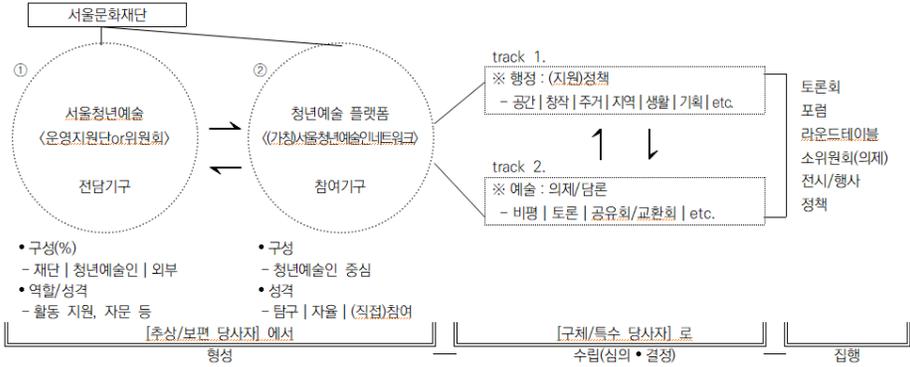
① 지원사업 밖에서의 창작에 대해	120분	주요 토론자가 가운데 앉고 주변으로 관객들이 둘러 앉는다. ①과 ②의 주요 토론자는 다르게 구성한다. 토론자들이 대화를 이끌어가되 관객들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다.(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지원사업 '말하고듣는자리' 참고)
휴식	10분	
② 지원사업 안에서의 창작에 대해	120분	(분위기 전환을 위해 책상배치를 바꿀지 논의 필요) 앞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안과 밖을 오가며 창작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휴식	20분	
③ 지원사업 안과 밖을 오가며 창작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90분	

- 기타 유의사항

- 자유토론일수록 나올법한 이야기,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 다른 관점 등을 준비위가 먼저 예측, 준비해야 함
- 넉넉한 먹거리 필수 준비
- 의자 외에 방석 준비
- 활용 가능 예산 확인 필요

② 거버넌스 전략

○ 거버넌스 전략 (김재상)



- 캠프

- 대 의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 의제 발굴 프로그램(성토대회, 대나무 숲 게시판 등)
- “정책의 재발견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과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재조명)

- 목표

-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 ⇒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인정과 존중 / 자발적 학습의 장 형성
- 이슈 공론화, 답론에 대한 내부 토론 ⇒ ①내적 논리 및 토대 마련, ②정책 실행 체계 실험
-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

- 질문/고민/논의

- 위원회 및 네트워크는 재단의 어느 부서에 설치? (재단 정관 or 직제규정)
- 참여기구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심의·결정·집행은 “참여기구” ▷ 참여기구의 책임, 권한, 위상은?(예산 조직/분배 역할)

○ 거버넌스 전략 (성연주)

- 주요 제안 사항

- ‘서울청년예술인정책위원회’를 서울문화재단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 예술창작본부 산하에 두면 다른 본부와의 협력이 어렵고, 청년정책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예술정책 개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함

- 본부 간 협력을 위해 위원회 내 재단 당연직 위원은 ① 모든 본부가 다 참여하거나, ② 인원이 너무 많으면 2명으로 설정하고 매년 또는 2년마다 본부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모두 공평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함
- ‘서울청년정책위원회’와의 연계를 위해 그중 1명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
- 만약 가능하다면, 아르코/예술경영지원센터/아르떼/지역문화진흥원/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특정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전국구 예술지원 기관 담당자 1명씩을 당연직 위원으로 초대.
- 연구(담론개발)-기획-창작-비평(아카이빙)의 4가지 트랙을 설정하고, 위원회와 당사자 조직(네트워크) 모두 이를 토대로 운영. 기존의 ‘장르 중심’ 접근을 탈피하는 대신 기획과 창작의 뒤에 위치해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선행된) 연구와 (후행된) 비평을 강조하는 방식. 그리고 사실상 좋은 창작을 위해서는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함.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당연한 예술 창작의 프로세스
- 위원회 전체 회의는 연 2회로 진행. 위원회 내에 ‘연구-기획-창작-비평’ 팀(또는) 담당자를 만들고, 이들이 당사자 조직의 해당 팀과 함께 추가로 연 4-6회 정도 회의를 통해 정책 의제를 개발, 중장기정책로드맵을 수립하고, 바로 다음 해에 추진해볼 수 있는 단기정책과제를 개발하는 형태
- 아직 논의하지 못한 키워드
 - 지역: #자치구, #자치구문화재단들과 연계
 - 공간: #청년예술청
- 거버넌스 운영방안 (정진세)
 - 기본안
 - 청년예술 거버넌스는 서울시-서울문화재단 등의 서울의 청년문화, 청년예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단위임 ▷ 협의, 합의, 토론, 의사결정 등의 소통구조를 만들
 - 청년예술 거버넌스는 청년예술가-행정-전문가(청년예술매개자, 매개그룹, 연구그룹, 관련 NGO)로 구성되며, △청년예술가는 정책제안과 의사결정, 아이디어 실행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은 청년예술가 중심의 행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전문가는 청년예술가 참여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공유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 ▷ 상호

- 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직을 구성
- 청년예술 거버넌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 환경(기간, 예산, 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공공을 만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음 ▷ 청년세대, 예술가(그룹)의 공적인 성장을 돕는 기회를 제공
- 구체적인 실행계획
 - 구조
 - _ 당사자성/대표성/성실성 등 신뢰할 만한 자기증명을 가진 청년예술가 A
 - _ 서울문화재단 (혹은 서울시) B
 - _ 청년예술 관련 연구자(혹은 서울연구원), 청년예술매개그룹 C
 - ▷ (실행 및 기획) 위원 A + (행정전담) 간사 B + (자문 및 보고) 그룹 C
 - 체크할 사안
 - _ 거버넌스의 준비 (혹은 실행을 위한)에 있어서 행정파트의 파견지원 그룹이 있어야 함.
 - _ 서울문화재단 청년TF 등에서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요청
 - _ 기간, 예산, 조직구성에 대하여 정확한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_ 수행비, 회의비 등의 범위(재단 내의 근거 바탕)
 - 준비할 사안
 - _ 청년예술+정책 관련 역사/개념/범위/조건/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
 - _ 참여 당사자의 자기 희망사항과 공공의 미션이 분명하게 있어야 함
 - _ 거버넌스를 위한 아젠다 혹은 룰킴/숏킴 의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_ 청년예술 관련 연구자/연구그룹 혹은 행정에 의한 정보제공(대회 리포트)이 있어야 함
 - _ 테이블 룰 만들기: 의사결정은 어떻게 합의/진행될 것인가?
 - 제안 사항
 - _ 거버넌스 구조에서 재단 내의 추천된 청년예술행정가(청년세대) 1인이 속해있기를 바람
 - _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으면 함
 - _ 서울+청년+예술과 관련한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연석회의를 제안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최선영)
 - 방향성: 기존의 행정구조를 향한 공격적 개편보다는, 행정인력들의 현재 상황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

- 형태: 예술창작본부와 연계된(본부의 예산을 활용하는) 협의기구
 - (추구하는, 대내적인) 정체성: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관련 정책을 토대로 서울에서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담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 ①현재 예술정책의 운영 혁신을 제안하고 ②미래의 예술정책을 위한 언어와 전략을 마련
 - (행정적, 대외적인) 운영형태: 청년예술인 사업 관련 자문기구? (자문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포럼, 연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기구)
 - 조직구성: 현재 구성원들이 자체 프로젝트/행사 등의 운영실무를 담당하고, 인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며 논의의 장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 초대하는 방식
 - 운영 및 참여기간: 1기 2020-2021년. 이후에 2기 결정
 - 타 기관과의 협력구조: 위원회 자체에 타 기관 관계자를 참여시키기보다는, 위원회가 개최하는 포럼 등의 논의자리에 협력자로 초대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고 일상적 부담을 최소화
 - 운영계획
 - 10월: 캠프 기획,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 재단과 협의
 - 11월: 캠프 진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확정
 - 12월: 캠프 정리 및 준비위의 향후 활동계획 수립
 - 1~2월: 2020년 대주제 및 방향성 설정, 재단과의 협력방식 결정
 ※월 2회 회의 진행
 - 장기적 전략 : (가칭)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타 지역에도 체감될 정도의 움직임 필요. 그래야만 활동 자체가 성과로 가시화되고 타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음
 - 소통매체 개설의 필요성 : 언어의 축적이 매우 중요함. 별도의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을 모두 기록, 정리, 공유하여 청년예술정책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③ (초청 발제) 청년예술가로서의 예술대학생의 열악한 상황과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신민준)
- 예술대학생들의 현 상황
 - 예술대학 졸업자들 다수는 졸업 이후에도 문화예술 관련 직종을 갖고 싶

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술대학의 교육환경 또한 타계열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¹⁴⁾
- 예술대학생들의 부채 또한 과도한 상태
 - 예술계열 학생들의 등록금은 계열별 2위(2017년 기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생이 전체 인원의 28.81%(전체 대학 평균 23.91%)
 -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의 대출연체비율은 28.81%(평균 9.19%)로 타계열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예술가로서의 예술대학생이 열악한 원인
 -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기업화와 종합대학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
 - 당사자의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교육부와 문체부 부처 간의 칸막이 존재
 - 고등예술교육, 전문예술인 양성, 청년예술가 지원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미흡 혹은 부재
 - 선언에 그치고 있는 문체부의 「문화비전 2030」과 「새예술 정책」
 - 지원사업 배제 등 문화예술기관의 사업대상으로서의 미고려
 -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
- 개선 방안 제언
 - 예술인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고등예술교육의 질 제고 필요
 - 교육부와 문체부 협력체계 구축
 - 예술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된 평가시스템 확립 및 적용
 - 예술대학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 현장성 강화를 위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서의 관학협력 및 산학협력의 활성화 지원
 - 「고등예술교육 진흥법」 발의
 -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의제로서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 마련
 - 미래비전으로서의 “예술인재양성”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마련
 -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법」 및 기본계획 마련

¹⁴⁾ 대표적인 예술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 항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준수, △노후된 기자재, △안전관리 부재, △낮은 실험실습비 및 사비지출과다, △불합리한 졸업준비금, △국가우수장학금 차별, △부족한 전임교원, △강사 미채용, △도제식 교육을 약용한 위계폭력, △근거 없는 차등 등록금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예술인재양성 관련 소위원회 운영
- 의사결정 및 정책기구에 당사자로서 예술대학생 및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참여 보장

(2) 토론

- 청년예술인캠프의 목적, 방향, 개최 장소 등의 논의
 - 청년예술인들도 스스로가 정책과 관련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4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진부함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정진세)
 - 그동안은 정말 토론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걸고 논쟁할만한 의제들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
 - 예를 들면, 난 왜 떨어진 동료에게 관심이 없을까? 누가 좋은 선배인가? 등
 - 기존 포럼을 반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 (옥민아)
 - 캠프의 시작을 지난 3~4년의 지원 경험을 담은 짧은 낭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장기적인 미션 안에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 (최선영)
 - 정산하고 결과공유회를 하는 '2019년 11월의 예술가' 등과 같은 주제를 설정해 볼 수 있음
 - '청년예술인, 우리는 누구인가?', '당사자로 나서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 (라도삼)
 - 참가한 청년예술인 모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
 - '청년예술인 스스로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을 논의하고 서로 이해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청년예술인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예술가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의제할 것인가 (성연주)
 -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최선영)

6) 5차 회의: 서울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논의

[표 6-14] 5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 상연재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이지은
발표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강정아, 이민주, 최선영)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방향 논의



[그림 6-9]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5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강정아)
 - 기획 의도
 - 2019년 청년예술가가 고민하고 발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자리. 청년 예술이라 불리는 예술생태계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공감하는 자리이자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의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
 - 제목: 2019년 청년캠프,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 진행 의제

청년예술지원사업 현재와 내일	-최초 예술사업을 바탕으로 작업영역이 확대된 작가나 다년간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발전한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단계별로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예술지원사업 - 예: 전용성 <김일성이 죽던 해> • 청년예술단 - 예: <딩글, 노뉴워크> • 예술공간지원사업 - 예: <탈영역 우정국>
2029년에도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지원사업 바깥에서 창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주간노동> 김동규 작가 -청년예술의 행정과 정책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청년예술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사업담당자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공간 상상하기

토론	- (연구원에서 실행한) 설문에서 나타난 중복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 카드 만들기 - “청년예술은 000이다”라는 5개의 키워드 카드를 만들어서 논의 테이블 5개 만들기 • 테이블은 총 10인(모더레이터와 기록자 포함), 5개 테이블, 50개 의자 구조
정리테이블 '발화의 자리'	- 응집할 수 있는 이유와 거버넌스, 앞으로 할 계획과 방향 등의 발제 10분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성연주)

- 청년예술인캠프 관련 몇 가지 주제 제안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심사 전반에 대한 모순과 고민	- 발제자: 지난 지원사업들의 심사위원 또는 서울문화재단 담당자 - 내용: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청년이 참여할 수 없는가?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심사기준은 다른 일반 예술지원사업과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청년예술인 지원 수혜 그 이후 버전1	- 발제자: 청년예술단 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 - 내용: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선정된 팀들은 포스트-청년예술지원사업을 어떻게 꿈꾸는가? 이런 꿈을 꾸게 된 데에 지원사업을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청년예술인 지원 수혜 그 이후 버전2	- 발제자: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데뷔한 후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예술가 - 내용: 최초예술지원이 아니었다면 데뷔가 가능했을까?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달라진 점은? 이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자생 그 사이 어딘가에서	- 발제자: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수혜자 - 내용: 공간 운영은 100% 지원사업에 의존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 자생과 지원사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이민주)

- 캠프 소재목 제안

- <청년예술인캠프: 아티스트 토크> or : 말하는 예술가 or etc.
- 예술계에서 '아티스트 토크'

- 캠프는 발제와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구성

- 모더레이터(사회자 역할)와 발표자가 무리에 섞이는 방식을 제안

3인의 발제	- 지원사업 관련 내용과 설문조사 내용 공유 • 발제자: 서울문화재단 - '서울미술' • 발제자: 지방거주자 및 서울 중심으로 꾸러진 다수의 지원사업에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 거버넌스 관련 발제 • 발제자: 청년예술인캠프 준비위 중 한명
라운드 테이블 토론	- 발제에서 논의거리를 발제하여 의제 발굴. 원활한 토론을 위해 청년예술인캠프 준비위가 토론 진행 - 키워드: #지방의 지원제도, #거버넌스, #지원금(예술인 생활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 등)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안 (최선영)
 - 캠프의 전반적인 사항 관련 제안
 - 논의 확장보다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절차 확보 기능’ 중요
 - 준비위 다음 조직 000 공식화 선언
 - ‘듣는 자리’보다는 ‘말하는 자리’
 - 예술인들이 바쁜 시기이므로 소수의 참여자 의견을 의제화하거나 확대하기보다는 논의를 이어온 준비위가 발제를 통해 대화를 주도하고 현장 논의를 기록·공유하여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전략 필요
 - 활용 가능한 예산 확인 필요
 - 캠프 내용 관련 제안
 -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 공유(15분 발제)
 - 3년간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논의점 제시(15분 발제)
 - 지원사업을 넘어서 청년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구조(거버넌스) 및 쟁점(15분 발제)
 - 그룹별 토론(60분 토론)
 - 캠프에서 나올법한 의견, 그에 대응하는 다른 관점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몇 개의 어떤 의제로 그룹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필요
 - 거버넌스 관련 제안
 - 000이 권력화, 관료화되는 것을 지양하며 공식화된 당사자성을 확보, 청년예술인 관련 논의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거버넌스 구축의 장기적인 방향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
 - 재단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

(2) 토론

- 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의 연결 구조 확인
 - 거버넌스 구조에서 재단과 협력하는 통로는 ‘청년예술청’으로 생각하고 추진
- 캠프와 준비위 다음 단계의 거버넌스 연결 구조 논의
 - 준비위가 캠프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참여해 보니 캠프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단계’임을 인지. 스스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 (이민주)

- 캠프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됨. 캠프 이후를 생각해 보면, 민간이 조직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로운 발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그렇기에 재단과 연구원에서 이러한 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 (박도빈)
- 현재 준비위를 참여하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무리들인, 청년예술인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 (장일수)
- 이미 거버넌스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 우리에게 자발성을 넘어서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 안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하는 것 같음 (김재상)
-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 캠프의 구체적인 상을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 세부적인 사항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해야 함 (강정아)
- 거버넌스 구조-청년예술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 청년 버전의 성격이 탑재한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정진세)
- 캠프와 관련된 논의
 -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구조를 함께 논의할 ‘멤버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고민이 됨 (김재상)
 - 각 키워드별로 소모임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김재상)
- 토론을 통한 ‘캠프’ 최종 합의안
 - 2개의 발제 진행: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서울연구원), △거버넌스 방향성 제안 (최선영)
 - 키워드 3개 이상 준비해서 토론 테이블 의제 구성

7) 6차 회의: 서울청년예술인캠프 진행 및 역할 분담 논의¹⁵⁾

[표 6-15] 6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0월 21일(수) 오후 1시 / 상연재
참석자	강정애(독립기획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최재훈,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인캠프 기획 (최선영)
토론	-청년예술인캠프 논의(구성/역할 분담)



[그림 6-10]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6차 회의

(1) 발표

- 청년예술인캠프 기획 (최선영)
 - 캠프 구성 :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 발표 (연구원), △청년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관련 준비과정 및 활동방향 발제 (최선영), △설문조사 토대로 주제별 그룹 토론 후 공유
 - 역할 분배 : △홍보물 제작, △포럼 참석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사전 신청 페이지 제작 및 관리, △사전신청자 개별 안내 문자, △입구 안내 (신청자확인, 발제문 배포), △발제문, 홍보물 인쇄, △장비, 공간 확인, △다과 준비, △그룹 토론 퍼실리테이터, △그룹 토론 대화 기록, △그룹 토론 기록 정리, △홍보, 세팅 및 정리

(2) 토론

- 행사 정보
 -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회의 <OOOOO>

¹⁵⁾ 6차 회의부터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2019년 11월 11일(월) 오후 2~6시 (구)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 구성
 - 발제 01 :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 (이정현_서울연구원) / 15분
 - 발제 02 :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관련 준비과정 및 계획 (최선영_창작그룹 비기자) / 15분
 - 그룹별 토론 01 : 공통주제_청년예술을 왜 지원해야 되는가 / 60분
 - 그룹별 토론 02 : 4개 주제(주제별로 테이블 2개), 총 8테이블 / 60분

[표 6-16]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구성 논의

주제	관련 키워드	모더레이터
예술인의 생활자원	#일자리 #주거 #생계 #자금	김재상, 성연주
예술의 공공성	#예술의사회적역할 #지역문화 #예술가에대한사회적존중	신민준, 정진세
예술의 창작자원	#창작공간 #발표공간 #간접지원	강정아, 장일수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	#정보접근성 #네트워크 #동료 #파트너	옥민아, 최선영

- 휴식 / 10분
- 종합토론 : 그룹별 내용 공유 및 종합 토론 / 30분
- 참여인원
 - 사전신청을 통해 50명 제한(다과비, 토론 운영 등 상황 고려)
 - 토론 시 한 테이블에 6명 내외 참여
 - 사전신청 페이지에서 참여할 토론 주제 선택, 현장에서 변동 가능
- 역할 및 담당

[표 6-17]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역할 및 담당 논의

구분	담당	비고
홍보물 제작	강정아	
포럼 참석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최선영	
사전신청 페이지 제작 및 관리	김재상	
사전신청자 개별 안내 문자	서울문화재단	

구분	담당	비고
입구 안내 (신청자확인, 발제문 배포)	성연주, 장일수	
발제문, 홍보물 인쇄	서울연구원	
장비, 집기, 공간 확인	서울문화재단	*테이블 소형 14개, 대형 4개. 가로로 긴 접이식
다과 준비	신민준, 옥민아	*예산 집행 문의 : 재단
그룹 토론 퍼실리테이터	모두	*기록자 노트북 확인
사후 그룹 토론 기록 정리	정진세	
사회	박도빈	
홍보, 세팅 및 정리	다같이	*예경 게시판 : 최선영

○ 기타

- 재단 영상 기록(크리에이터) : 섭외 시도
- 중심 홍보채널 및 사전신청 페이지 링크 : 재단, 연구원(포럼 때와 동일)
- 향후: 재단 월간지 '문화+서울'에 현장내용 소개

8) 7차 회의: 거버넌스 체계 논의

[표 6-18] 7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 공향철도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김영호, 배소현, 이지은
발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최선영)
토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그림 6-11]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7차 회의

(1) 발표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최선영)
 - 방향성: 기존의 행정 구조를 향한 공격적 개편보다는, 행정인력들의 현재 상황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
 - 기능 및 역할: ①청년예술의 현장을 반영하는 언어를 연구, 발굴하고 그것이 다시 청년예술의 미래와 정책에 작동될 수 있도록 ②협의 ③자문 ④기획
 - 전략: 민간단체/모임이 기획하는 청년예술 관련 흥미로운 행사들과 차별화 필요. 현장과의 소통은 실현하되 공공적 담론 형성, 공공과의 협의, 정책 제안 등의 구체적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 필요
 - 형태: OOOOO와 연계된 협의기구 (현재 상황 : 청년예술청과 연계 가능성 높음)
 - 규모 및 조직구성: 현재 구성원들이 자체 프로젝트/행사 등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인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며 논의의 장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 초대하는 방식
 - 운영 및 참여기간: 1기 2020년, 이후에 2기 결정
 - 타 기관과의 협력구조: 위원회 자체에 타 기관 관계자를 참여시키기보다는 위원회가 개최하는 포럼 등의 논의 자리에 협력자로 초대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고 일상적 참여 부담을 최소화
 - 운영 계획
 - 10월: 거버넌스 체계구축 관련 재단과 협의
 - 11월: 거버넌스 체계구축방안 확정
 - 12월: 예술인회의 정리 및 준비위 향후 활동계획 수립
 - 1~2월: 2020년 대주제 및 방향성 설정, 재단과의 협력방식 결정, 첫 번째 학습프로젝트 실행
 - 3월: 청년예술청 개관 이후 '제2회 청년예술인회의' 개최
 - ※ 월 2회 회의 진행
 - 소통매체 개설의 필요성
 - 언어의 축적이 매우 중요. 별도의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을 모두 기록, 정리, 공유하여 청년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예술인회의 이후 협의체의 명칭: 서울청년예술인회의

(2) 토론

- 2020년 개관 예정인 청년예술청 소개 (김영호)
 -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예술청은 약 500평 규모이며, 2020년 3월 1일 개관 예정. 향후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
 - 목표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적 활동을 지향하는 곳
 - 청년예술청과 청년예술인회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
 - 청년예술청은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 청년예술청의 공동운영단과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의 관계
 - 청년예술청의 공동운영단과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형태가 바람직 (정진세)
-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인 정책의 주체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버넌스. 향후 어떤 방향과 원칙을 갖고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 필요 (라도삼)
 - 언어가 쌓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 청년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접속하고 접촉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준비위(청년당사자)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 (최선영)
- 협의체 명칭은 '서울청년예술인위원회'로 결정

9) 8차 회약: 거버넌스 체계 논의

[표 6-19] 8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 (구)대학로 동숭아트센터 회의실
참석자	강정애(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이정현, 김영호, 배소현, 이지은
발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최선영)
토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림 6-12]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8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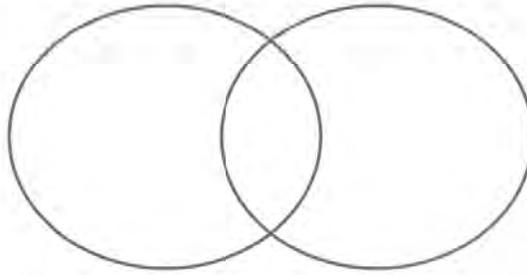
(1) 발표

- 거버넌스 체계구축 전략 (최선영)
 - 의미와 목적: 재단은 거버넌스 실현, 청년은 주체형성
 - 방향성: 나의 문제를 넘어 공동의 미래 모색
 - 나를 지원해 달라 ▷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자
 - 기능 및 역할
 - (지원사업 안팎의) 청년예술의 현장을 반영하는 언어를 연구, 발굴
 - 발굴된 가치, 언어가 청년예술의 미래와 정책에 작동될 수 있도록 자문 및 사업 기획
 - 과업(해야 할 일)
 - 내용적(이슈) 측면
 - ① 청년예술인과 사회: #도시 #공간 #주거 #수당 #생활
 - ② 청년예술인의 창작: #예술 #미학 #발표 #네트워크
 - ③ 청년예술인과 정책: #지원사업 #정보 #행정 #성과
 - 방법적 측면
 - ① 웹진 발행: 주제별 이슈를 담은 칼럼, 인터뷰, 좌담회 2-3쪽지 포함 해 1년에 총 3회 발행(전문가 협력)
 - ②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정보, 기획서 작성법 강의 이전에, 지원제도를 가로지르며 생활하는 예술인의 삶에 대한 실질적 정보, 노하우, 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여 생존법 공유
 - ③ 사례품앗이 운영: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현장이 아이디어에서 사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가 관객, 평론가, 기록자, 참여자가 되어주는 프로그램. 청년예술 관련 담론이 개인을 위한 기회나 지원이 아닌 공동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능

- ④ 담론의 장 기획: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매년 1회 진행. 청년예술 관련 발굴된 이슈를 공론화하고 미래 언어를 마련(전문가 협력)
- ⑤ 자문: 위의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울문화재단 사업 관련 자문

- 청년예술청과의 관계

청년예술청 운영단 : 공간운영 중심의 청년사업 실행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청년예술 관련 논의확장 및 담론형성



- 확인해야 할 사항

- 다음 협의체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서울청년예술인회의'로 할 것인가?
- 최근의 발제문, 회의자료 등을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자료실 개설 가능 여부
- 재단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이를 담당하는 재단 담당자는 누구인가?

(2) 토론

-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위치하는 것이 필요
 - 서울문화재단 내에 청년예술인회의라는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 거버넌스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좀 더 준비된 형태가 되어야 함
- 청년예술인회의의 진행 관련 논의
 - 4개의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박도빈)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 (김재상)

- 의미 있는 거버넌스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테이블에 앉혀야 하지 않을까? (성연주)
- 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공식적인 절차 중 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최선영)
-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소모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도 함 (강정아)
-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필요.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신민준)
-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거버넌스의 힘을 이끌 어낼 수 있을 것.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 필요 (장일수)
- 기대와 가능성,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유효할 것 (박도빈)
- 연결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메일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민준)
- 각 테이블별 모더레이터끼리 사전 질문이나 논의 진행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 기관 담당자를 테이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아카이빙할 수 있는 드라이브 개설: 이민주
 - 회의자료, 발제문, 참고자료 등을 축적

10) 9차 회의: 설문 결과 공유 및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세부사항 논의

[표 6-20] 9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 서울시NPO지원센터 반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일수(연극인), 정진세(극작가/비평가),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헌,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발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이정현)
토론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논의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세부사항 논의



[그림 6-13]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9차 회의

(1) 발표

-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이정현)
 - 예술활동 실태와 여건, 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미래 청년예술 정책 방향 등

(2) 토론

-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예술활동 중 겪은 부당한 경험 중에 폭력이나 젠더폭력의 빈도가 생각보다 높음
 - 청년예술인지원사업에 있어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생활안전망 중심 지원'이 창작력 제고 중심 지원보다 높게 나온 것은 눈여겨 볼만한 지점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단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경쟁구도 또한 읽을 수 있음
 - 일상 폭력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의 공적 담론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 있음
 - 정책이 '청년'으로 호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예술계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기도 함
 - 정책의 방향이 지원금으로 매개되기 때문에 수혜의 방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음
-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진행 방식
 - 발제 후 그룹별 토론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사회자가 그룹별 토론을 안내
 - 한 테이블로 몰릴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며, 기관 관계자에게는 발

- 언보다는 듣는 역할을 제안하는 것으로 안내
- 모더레이터가 테이블 토론 내용을 녹음하고 키워드와 주요 내용 기록
 - 그룹별 토론이 끝나면 모더레이터가 논의 내용을 2~3분 분량으로 정리해서 공유

11) 10차 회의: 향후 계획 논의

[표 6-21] 10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5시 / 포스타워 회의실
참석자	강정애(독립기획자),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라도삼, 이정현, 배소현
토론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향후 계획 논의



[그림 6-14]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0차 회의

-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개최 소감
 -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행보를 궁금해하고 공유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 우리의 활동 내역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 (성연주)
 - 청년예술, 문화예술, 문화기획을 매개로 함께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 필요하며, 향후에는 '서울'로 논의를 확장하고 싶은 생각 있음 (최선영)
 - 거버넌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들기도 함. 포럼 자리로 동료 를 부르기도는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나 현장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옥민아)
- 거버넌스의 명칭은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운영단의 향후 계획
 -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운영단은 한 달에 2번 회의 개최

- 2020년 예술인회의 형태는 △기능이 포함된 회의(공청회), △월례/현장 회의(프로그램)가 될 것
- 청년예술청과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 필요
 - 청년예술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며, 어디까지 협조할 것인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더불어 청년예술청 준비운영단과 어떻게 관계할 것 인지에 대한 정리 필요. 겹치는 활동이나 주제가 있으면 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원칙'을 통해 협력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 2차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개최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필요
 - 2020년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기본 활동계획서 공유
 - 청년예술청의 운영원칙 공유
 - 2020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 예산은 청년예술청 운영예산과 분리되어야 함
- 향후 진행의 공식화에 대해 서울문화재단과 협의 필요

12) 11차 회의: 향후 계획 논의

[표 6-22] 11차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3시 / 서울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강정아(독립기획자),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백선혜, 이정현, 김영호, 배소현, 이지은
토론	-서울청년예술인회의 향후 계획 논의



[그림 6-15]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11차 회의

- 청년예술청 개관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 (김영호)
 - 향후 청년예술인회의의 추진방향, 서울문화재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 청년예술인회의 향후 계획 논의
 - 청년예술인회의는 수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문제의식을 갖고 그 이유를 찾고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장일수)
 - 청년예술청 공간 운영단과 청년예술인회의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예술청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일을 청년예술인회의가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 청년예술인회의는 담론 형성을 전문가로서 잘하는 것, 청년예술인회의를 잘하는 것 모두 중요하며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 중요 (최선영)
 - 청년예술인회의가 행정사업으로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함 (이민주)
 - 행정사업과의 연결 없이 회의만 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활동
 - 청년예술인회의와 청년시민회의 문화예술 분과와의 연결이 필요하며,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박도빈)
 - 논의의 범위를 재단과 서울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사업, 서울시 사업, 타지역 사업, 국가적 담론으로 확장하는 것 필요 (최선영)
 - 청년예술인회의가 '청년예술 노동자 조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예술인회의'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 또한 필요 (옥민아)
 - '내가 말을 하면 힘이 실릴 수 있다', '여기에 말하면 나의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다' 등과 같이 청년예술인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 청년예술인회의가 가져가야 할 방향, 미션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 (강정아)
 - 플랫폼? 노동조합?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생각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것인가?
 - 청년예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확실히, 크게 낼 수 있을 것인가?
 -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박도빈)
 - 사무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의제 중심으로 역할 구분이 되어야 함 (신민준)
 - △아카이빙과 웹진, △ 담론과 의제 중심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

담론연구·학습모임·라운드테이블 등 3가지 정도로 역할을 나눌 수 있음

- 아카이빙 및 웹진: 이민주, 강정아
- 담론과 의제 중심으로 필요한 모임 기획·운영(현장회의): 장일수, 옥민아, 신민준
- 담론연구·학습모임·라운드테이블: 최선영, 성연주, 김재상

3_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1) 개요

- 이 연구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정책 방향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을 개최
 -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구)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대회의실
 -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
 - 주관: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예술인들이 주관해서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개최
- 정책포럼은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
 - △청년정책의 흐름과 방향, △청년예술(인) 개념과 정책방향, △청년예술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등 3개의 주제 발표 진행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진행



[그림 6-16]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표 6-23]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프로그램

사회: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간	주요 내용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 회 식	개회 및 인사말
14:10 - 15:10	주제발표1	청년정책의 흐름과 방향 _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
	주제발표2	청년예술(인) 개념과 정책방향 _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3	청년예술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_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15:10 - 15:30	휴식	
15:30 - 17:00	종합토론	좌장: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토론: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정진세(극작가/비평가)
17:00 - 17:10	폐회	

2) 주제별 발표

(1) 청년정책의 흐름과 방향 (서복경)

- 우리나라 청년 정책 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 광역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총 17개의 시도에서 제정¹⁶⁾
 - 기초지방정부 기준으로 보면 서울 20, 인천 4, 경기 26, 대전 4, 충남 15, 충북 6, 강원 6, 부산 7, 울산 3, 경남 7, 광주 4, 전남 21, 전북 5, 경북 12, 대구 3에서 제정
 - 대부분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정책 범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라고 하는 다범주로 설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
 - 해외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있는 나라가 없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정된다면 OECD 국가 기준 최초일 것
 - 해외에서는 청년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하지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형태는 아님

16) 서울시를 비롯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세종시,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 한국 청년정책의 세계적 맥락 및 과제
 -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독립적인 정책 주체가 된 것은 2000년 이후이며, 2010년 전후로 '실업구제를 위한 대상이 아닌 청년'의 관점 등장
 - 2000년 이전에 청년은 정치적 주체로서 존재. 2000년 이후 실업과 관련된 연관어로 청년이 최초로 등장했으며, 주로 실업 구제를 위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 2010년 전후로 '실업 구제의 대상만이 아닌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
 - 전 세계적으로도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이 충격을 받았고,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비슷한 문제에 봉착.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등장
 - 유럽연합에서는 'Youth Guarantee'(2013), 미국에서는 'Pathways for Youth(2013)'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청년기본조례가 확장
 - 우리나라에서만 조례 등 법의 형태로 출발하게 된 것은 청년을 위한 정책 기반이 없었기 때문.
 -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 주거, 구직,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미 청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이 없었던 상태
 -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부분. 그렇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기반을 만드는 초기 작업 중요
 - 청년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자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정책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 정책의 틀을 잘 구축한다면, 이는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그렇기에 지금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중요한 부분임

(2) 청년예술(인) 개념과 정책방향 (박소현)

- 출발점[질문의 수정]: '청년예술인은 누구인가?'에서 '왜 청년예술정책인가?'로
 - 청년예술인의 개념은 정책대상의 명확화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접근방식 이긴 하나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청년을 세대개념으로 간주해 접근하면 연령 범위가 절대적으로 인식되면서 나이 논쟁을 비롯한 세대특수성 규정과 다른 세대와의 차이 등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상황 초래
- 청년예술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된다면 청년이라는 세대특수성에 기반한 또 하나의 장르예술로 실체화시키고 몇 개의 사업단위로 환원할 위험 또한 내포
- 그렇기에 ‘청년예술(인)’이라는 용어나 개념을 상정하고 실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식보다는 ‘왜 청년예술정책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
- 왜 청년예술정책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예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 예술인 정책의 위상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동등한 수준에서 중요한 권리로 인정
 - 즉, 예술정책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은 예술향유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 예술인 정책에서 ‘청년예술정책’의 필요성: 예술에서의 ‘밀레니얼 세대’
 - 청년예술정책은 예술정책에서 미래세대의 관점과 상황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표방해야 하나 이러한 당위성과 ‘청년’의 삶 사이에 큰 괴리¹⁷⁾가 존재
-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 기존 예술정책의 전환모델로서의 ‘청년예술정책’
 - 청년=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청년=미래세대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바탕으로 예술가=시민으로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서 청년예술정책이 모색되어야 함
 - 예술의 미래,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예술정책’
 - 예술의 미래(세대)를 예술정책의 규범 또는 윤리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함
 - 예술정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청년예술정책’: 미래세대에게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 부여

17) 청년예술인들은 예술계의 각종 제도와 인정보상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지원이나 권위가 분배되는 방식, 예술인정책의 정책 결정과정 등이 위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최소한의 생존과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여건도 불안정한 상황

- 청년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합의, 결정하는 ‘자기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결정 과정의 재정립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
- 단위사업의 틀과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청년예술정책’
 - ①미래세대의 자기결정을 위한 정책구조를 만드는 정책, ②그 조건으로서 행정시스템의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정책실행 과정 및 방법을 해소하는 정책, ③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인정이라는 비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④공공지원의 가치사슬 간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공적자원의 유기적 결합과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
- 예술가-시민으로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
 - 동등한 예술가이자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를 위한 공적인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허브로서, 예술정책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함
- 청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
 - 예술의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의 미래세대들이 청년기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공정’에서 ‘정의’로
 - ‘청년예술정책’이 기존 예술정책을 혁신하고 예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개인들 간의 생존경쟁, 지원경쟁을 더욱 강화된 행정기술(administrative technologies)로 구현하는 방향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공적인 가치들, 예술의 공공성, 정책신뢰, 사회정의 등을 보다 나은 형태로 복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

(3) 청년예술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최선영)

-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규정한 ‘청년예술인’은 최초 예술지원사업 등을 참고했을 때 만 39세 이하(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예술인이거나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¹⁸⁾
 - 「예술인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다수의 청년예술인이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중

¹⁸⁾ 본 발제문에서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예술인에 대해 서술

- 통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개인의 경험과 심정
 - 과연 우리는 예술인의 삶에 관한 다층적인 연구나 논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했는가, 예술대학에서 학습한 예술과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예술, 개인이 탐구하고 지향하는 예술 사이의 괴리감이 어떤 사회적 요인들과 연관성을 갖는지를 토론한 적이 있는가. 예술인들은 매일 괴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음
 - 그렇기에 예술인이 말할 수 있는 예술인의 실태는 매우 개인적일 수밖에 없음
- 격차가 존재한다
 - 학력, 빈부, 경력, 이에 따른 활동자원의 격차는 매우 큼. 특히 시작하는 사람들 간의 기본적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
 - 자유롭게 자기학습의 주체를 찾고 스스로의 완성도를 만들어 보라는 지원사업은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영역일 수 있음
- 격차가 만들어낸 어려움이 있다
 - 학습된 기존의 예술 언어로 해석하기 어려운 현실과 그에 대한 막연함 존재
 - 예술인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그것을 사회적 언어로 기획하고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
 - 창작에 필요한 정책, 지원사업, 복지제도, 노동과 자기권리, 성과 폭력, 인권 등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예술인들은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함
 - 창작기회와 관련한 불공정한 환경
 - 예술대학 졸업 후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일상적인 상호학습이나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운 현실.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 방식이 공정한 창작환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 활동자원의 현실적 부족 발생
 - 안정된 창작공간이나 활동자본이 있는 예술인들은 소수. 그렇기에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많음
 - 예술인으로서 삶의 고립
 - 학교 졸업 이후 개인, 혹은 소규모 그룹 중심으로만 유지되는 창작환경은 예술인 개개인을 고립시킴
 -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나누며 느슨한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내몰릴 수도 있음

- 그래서 '진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속'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 지원(공모형 사업,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도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함
 - 정책을 고도화·세분화하기보다는 기존에 설계한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
 - '간접지원'으로 개념화 되는 공간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연결 등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
- 그런데 누가 '청년예술인'에 대해 말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현재는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아닌, 기성세대나 기존의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삶이나 미래상을 기대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창작활동을 평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 낯설고 모호하고 새로운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해 기성세대나 기존 전문가들이 다층적으로 비평하거나 장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청년 세대만이 경험하는 생활 속의 문화가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창작 사례로 등장하기 때문
 - '청년예술'은 교육, 시민활동, 디자인, 문화운동, 일상모임, 웹 퍼포밍, 독립출판, 창업, 웹툰, 유튜브, 1인 미디어, 콜렉티브, 대중문화 등과 연결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러한 빠른 변화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지 못함을 기성세대가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읽어내지 못하는 어떤 활동'이 발생·확산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되짚어보아야 할 것
- 청년예술인 스스로 현재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다
 - 청년예술인은 시대적 변화를 삶에서 경험하며 창작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고 동시에 기존의 예술계 언어와 동시대 창작언어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기도 한 존재
 - 그렇기에 청년예술인 스스로가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가 마련되는 것 필요

- 미래언어를 준비해야 한다
 - 낯설고 새로운 창작활동이 예술인에게, 예술계에, 사회에 왜 필요한지 그 의미와 가치를 메타적 시선으로 읽어낼 수 있는 언어의 마련 필요
 - 더불어 '익숙하지 않은 성과나 가치'를 기록·해석·설득할 수 있는 보완 장치도 함께 설계될 필요 있음
- 청년예술인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협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청년예술인의 삶은 어떠한가, 청년예술인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등의 논의자리가 공론화 되어야 함. 이를 통해 기존 담론의 빈틈을 채우고, 청년예술인 스스로도 자체 진단 및 논의 확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 즉, 청년예술인들의 주체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원칙 등을 세워야 할 것
- 팔리지 않는 시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일반화된 기준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어려운 예술은 어려움이 크며, 이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방편, 보호망으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존재
 - 기존의 관점으로 미래를 대비해 예술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인 당사자들이 정책의 최소한의 원칙을 만드는 일 중요

3) 지정 토론

(1) 청년예술인 정책의 당사자성 (성연주)

- 진단: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는 청년예술인의 문제
 - 청년+예술인의 결합어인 청년예술인을 논의할 때 세대 프레임을 적용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 그럼에도 이를 넘어서서 청년예술인의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보편적 청년세대의 문제에 더해 예술계의 문제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
 - 예술계에는 예술계의 고착된 전통, 관습, 구조 때문에 발생한 메인스트림(주류, 기성)에 끼지 못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
 - 청년예술정책은 기존 청년정책의 결가지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세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

- 문제: 당사자성이 부재한 청년예술인 정책
 - 청년정책과 청년예술인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 정책은 당사자가 직접 정책에 개입했지만 청년예술인 정책은 당사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
 - 청년예술인 정책은 예술인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정책이 먼저 만들어진 상황
 -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청년수당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 속에 표류했던 시기에 예술인 버전의 청년수당인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통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음
 - 이 과정 속에서 청년예술인들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사업을 제안한 사례는 없음
- 고민: 당사자성을 끌어내는 방법
 - 청년예술인들이 당사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언어가 필요
 - 이 언어는 결코 '예술은 사회에 이롭다'라고 하는 일반화된 원리로 표출되면 안될 것
 - 예술인의 시장, 노동실태, 작업 환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정책의제 발굴, 집합적 행동의 선순환적 구조 속에 유의미한 언어를 만들어가야 함
- 해결: 기존 예술정책의 전환모델로서의 청년예술정책
 - 이는 두 번째 발제의 소재목을 그대로 가져온 제목
 - 청년예술인 정책은 단순히 세부 집단, 장르, 영역의 정책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구성된 예술정책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

(2) 서울生: 청년예술가 1인의 1일 (옥민아)

- 청년예술가를 위한 정책으로 '작품 제작을 위한 지원금 이전의 다양한 창작 활동 과정 지원' 제안
 - 지원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예술가일지라도 예술창작 과정에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심한 구조 설계 희망

- 더불어 ‘청년예술가’에서 ‘예술가’로 변태되는 시기를 예견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시점
 -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 청년예술가 중에서 예술가로 진입하게 된 과거의 ‘청년예술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
 - 지원사업 없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예술’로 인해 다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임
 - 작품은 타인의 눈길을 받고, 대중에게 선보이고, 팔릴 때에 비로소 다음 작품을 담보할 수 있음.
 - 그렇기에 일반 시민과 만나는 방법, 나의 작품을 선보이는 요령, 내 작품을 파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

(3) 마인드 더갭! (Mind the Gap!):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작은 시도들 (전수환)

- 청년예술인들이 마주하는 격차
 - 경제적으로 자생해야 하는 청년예술인 Vs. 부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예술인
 - 예술대학에서 학습한 예술 Vs.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예술
 -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예술인 Vs.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예술인
- 예술대학에서 사회 속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추구하는 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예술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기획서 작성이나 회계 등의 수업을 듣는 것이 예술대학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낯선 일
 -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기획 및 행정에 대한 교육의 기획도 예술대학 교육과정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앞의 3개의 발제를 통해 ‘지식창출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화두를 도출
 - ‘다양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예술가-시민으로서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 ‘청년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협의구조’ 모두 새로운 지식창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 이는 미래예술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구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이는 청년예술의 지원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음

- 서울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상상하고 실험해보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위해 관련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 특정한 세대를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특정한 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
 - 청년예술인이 새로운 변화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역할 수행
 - 지원사업을 통해 변화의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고 충분히 공유되어야 평가방식도 바뀔 수 있을 것. 이를 위해 사업별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변화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

[표 6-24]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변화 방향 제안

현재사업명	변화 방향
최초예술지원	예술상상지원사업, 예술리서치지원사업 확장된 형태의 예술활동 지원 ▷ 새로운 변화의 모색, 연구, 실험 기획형·수시형 지원 도입 ▷ 연구, 비평, 기획, 창작, 관객, 아카이빙
서울청년예술단	예술단체보다는 예술프로젝트에 지원 프로젝트 주제 영역을 명확화(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공간지원	대상공간별로 지원할 예술가의 요구사항을 명확화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크리에이터 지원보다는 새로운 홍보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4) 청년예술인 담론 혹은 토론에 대하여 (정진세)

- 그동안 청년예술인의 대한 논의는 비슷한 담론의 반복이었던 것이 사실
 - 청년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로 시작해서 청년예술가의 ‘주체성’, ‘당사자성’, ‘대표성’, ‘전문가성’ 등의 말이 오가고, 중간 과정에서 청년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되며, ‘당위성’, ‘세대특정성’, ‘자기결정권’ 등의 개념이 논의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인 ‘라운드테이블’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됨
 - 이러한 반복의 담론들이 그동안 있었기에 이제는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
- 개인적으로는 토론해 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 청년예술의 미학(美學)과 실태(實態)에 대한 부분
 - 청년예술의 결과물(성과물)에 대한 미학적 평가와 분석,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예술의 특성과 전문성에 대해 논의해

- 보고 싶음. 이러한 예술적 가치와 의미의 논쟁이 부족하다는 생각 들
- 청년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는 청년예술가들이 이룩한 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활동을 수행한 예술적(시민적) 주체에 대한 존중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술가와 정책-관계자,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미래 (예술)언어 또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음
 - 청년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기존 예술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토론이 더욱 필요
 - 청년예술인이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와 예술계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담론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 기존 예술계 혹은 한국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분석을 통해, 혹은 불평과 불만을 통해 무언가를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청년예술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 토론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이 바라는 세계, 혹은 새롭지 않아도 공존이 가능한 예술계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4) 종합 토론

- Q1. 서로 공감·논의·합의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라면 어떻게 감수해야 할까? 효율적이고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 (서복경)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서로가 다름을 인정)이며, 이것은 무한반복의 게임. 공존의 방법은 모든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게 공존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야 함
 - 2019년에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하는 방법은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 이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공존의 규칙’을 찾아야 할 것
 - (박소현) 우리는 이제 ‘공동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 사회이며, 최소한 같은 출발점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의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함

- Q2. 두 번째 표의 ‘공공에서 정의로’ 파트 중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공적인 가치들’이라는 문구가 있음. 이것은 무슨 의미이며, 이것(가치)을 어떻게 청년예술가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 (박소현) 여기서 ‘정의’라는 의미는 ‘공동의 삶’과 ‘공동의 삶의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함축하는 의미로 쓴 것임. 그동안 예술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이 ‘공동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취약하게 만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성찰 필요
 - (박소현) 예술계 전반의 비평 구조가 약화되면서 예술지원사업의 시스템(선정)과 인정·평가 시스템이 혼동되어 작동. 비평의 회복 등 미학적 성과를 인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 필요
- Q3.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실행되면서 이에 길들여진 청년세대 혹은 관성적인 예술가 그룹이 출연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주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 (최선영) 현재의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청년이 공감하지 못하는 미래상이나 목표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즉, 청년의 관점보다는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추진
 - (최선영) 청년예술인들이 지원정책에 길들여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원사업의 장단점과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페이스러너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Q4. 두 번째 발표에서 언급한 영국의 ‘훌륭한 예술’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궁금.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작품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박소현)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은 영국의 arts council의 모토. ‘훌륭한 예술이란 이러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술지원은 훌륭한 예술을 양성하는 것이고 예술을 육성해서 훌륭한 예술을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설정은 되어 있는 것. 과거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좋은 혹은 훌륭한 예술이라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예술 쪽으로 지원이 쏠려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기준 자체도 변화해 온 측면이 있음

- Q5. 청년예술인들이 느끼기에 기존 권력과 청년예술인 세대와의 차이는 ‘다양성이 없어서’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전문가 중심의 평가제도보다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이러한 것들이 청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 (성연주) 청년예술인들이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 문제의식들이 공론화되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현재 청년예술인캠프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
- Q6.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탈락한 적이 있는데, 탈락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음. 이에 대한 사유를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음. 청년예술인들에게 어떤 지원(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옥민아) 지원사업에 탈락하고 난 후, 탈락이유를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공감. 개인적으로 올해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선정자 발표 후 선정자와 탈락자, 심사위원이 모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 심사기준과 선정 및 탈락의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음. 이처럼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음
- Q7. ‘청년’이라는 단어에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음. 해외에서 ‘청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 (서복경) ‘청년만’ 정책에서는 보통 youth라는 표현 사용
 - (서복경) 정책 설계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가 중요
 - (서복경) 당사자성과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보이는데, 집단의 대표만이 정책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 다만 먼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정책에 개입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들어가면서 확산되는 형태로 가는 것일 뿐. 그렇기에 스스로를 대리하면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노인회, 전경련 등과 같은 단체들이 그 집단의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음. 청년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을 대표하는 조직은 불가능

Q8. 청년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미학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작품을 통해 예술가가 무엇을 느꼈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진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진세) 지원사업 체제를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5년 체제의 핵심은 '수월성'임. 그러나 이제 '수월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한계 봉착. 특히 청년예술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성예술가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성예술가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 청년예술가 안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격차가 존재. 즉, 수월성의 평가, 미학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성, 공평한 감각 등을 기반으로 평가가 아닌 소통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

- 동료의 동료의 작품을 열심히 봐주고 비평 언어들 개발하는 것이 필요.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야 함

- (정진세) 그래도 여전히 관객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음. 동료 예술가를 넘어 관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Q9. 남양주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10년째 운영. 이것을 청년예술가들에 넘겨주고 싶은데, 청년들은 받을 생각이 없음.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까?

- (박도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나 기획자, 활동가들은 대부분 1인가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활동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도 할 수가 없음. 이것은 지역의 청년들과 계속 이야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Q10. 청년예술인캠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왔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최선영) 아직 청년예술인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음. 몇 달 동안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논의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음. 앞으로 계속 논의를 통해 캠프의 구체성을 만들어갈 생각

- (최선영) 청년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를 존중한다는 관심의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 앞서 나온 비평이나 미학에 대한 논의도 결국 청년예술가들의 권리나 존재에 대한 물음까지 이어진다고 봄. 오늘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큰 소득이라고 생각됨.

4_서울청년예술인회의

1) 개요

-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 의제를 토론하고 거버넌스를 제안하기 위한 <서울 청년예술인회의>를 개최
 - 행사명: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회의 - 1인칭 주인공 시점
 - 일시: 2019.11.11.(월) 오후 2시
 - 장소: (구)대학로 동승아트센터 2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듣는 자리 (당사자 중심의 플랫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청년예술인 당사자인 '서울청년예술인캠프준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개최
 -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자신의 창작환경 및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논의하며, 장기적으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년예술정책 거버넌스 형성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2개의 주제 발표와 그룹별 토론으로 구성
 - 주제발표는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준비과정 및 향후 계획 등 2개의 발표를 진행
 - 그룹별 토론은 주제별로 총 4개의 테이블을 운영.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가 관심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공통주제(50분)와 선택 주제(50분)에 대해 토론
 - 공통주제는 '청년예술은 왜 지원해야 되는가'로 모든 테이블에서 그룹별로 토론 진행
 - 선택주제는 총 4개(△예술인의 생활자원, △예술의 공공성, △예술의 창작자원,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별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 토론
 - 테이블별로 5~8명의 청년예술인과 1명의 퍼실리테이터와 1명의 기록자가 참여

[표 6-25] 서울청년예술인회의 프로그램

사회: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시간	주요 내용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 회 식	개회 및 인사말
14:10 - 14:50	주제발표 1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_이정현(서울연구원 연구원)
	주제발표 2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관련 준비과정 및 향후 계획 _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14:50 - 15:20	질의응답	
15:20 - 15:30	휴식	
15:30 - 16:20	그룹별 토론 1	(공동주제) 청년예술을 왜 지원해야 되는가
16:20 - 17:10	그룹별 토론 2	(선택주제) ① 예술인의 생활자원: #일자리 #주거 #생계 #자금 ② 예술의 공공성: #예술의 사회적역할 #지역문화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 ③ 예술의 창작자원: #창작공간 #발표공간 #간접지원 ④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 #정보접근성 #네트워크 #동료 #파트너
17:10 - 18:10	종합토론	

2) 주제별 발표

(1)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이정현)

-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¹⁹⁾ 발표
 - (청년예술인의 활동)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은 욕망이 많음. 그러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많이 느끼는 편
 -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생태인식) 디지털 기술기반의 예술활동 증가, 장르에서 벗어난 예술활동 증가 등 예술계의 변화를 인지. 예술계의 현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 특히 예술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지하며, 부당처우와 일상적 폭력에 대한 문제 표출
 - (청년예술인은 누구인가) 청년예술인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새롭다는 이미지로 인식. 청년예술인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나이와 경력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¹⁹⁾ 이 보고서 8장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 (청년예술인이 원하는 지원 내용) 청년예술인은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생활지원, 일자리 지원,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 특히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창작지원금과 생활자금이 필요
- (청년예술인이 원하는 지원방향) 청년예술인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 특히 청년예술인 정책 및 지원심사 결정에 청년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2)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관련 준비과정 및 향후 계획 (최선영)

-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준비과정
-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성격 및 향후 계획
 - 당사자 중심의 협의체
 - 청년예술 현장을 반영한 담론 형성
 - 서울문화재단과 거버넌스 구축
 - 2020년 2월 개관 청년예술청과의 협력 포함
 - 지속적인 논의 자리, 공유플랫폼 기획 및 제안
 - 정보의 일상적 공유를 통한 느슨한 초대방식



[그림 6-17]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주제 발표

3) 그룹 토론

(1) 공통주제: 청년예술을 왜 지원해야 되는가

① 예술인의 생활지원 테이블

- 청년은 시작하는 시기, 그렇기에 이들이 예술가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
 - 생애주기로 보면, 청년은 성장과 도전, 실험과 실패를 경험하는 시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국예술 전반에 발전이 있을 것이기에 청년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20, 30대는 씨를 뿌리는 시기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지지해 주어야 사회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이 성장을 잘 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한 3년 정도는 나라에서 지원하고 보호해 주어야 함
 - 예술전공자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 3년 정도는 경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됨. 졸업 전에 취업이나 지원서 작성 등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재교육이 필요

② 예술의 공공성 테이블

- 예술계의 진입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며, 기회는 최대한 많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 특히 청년은 기성세대에 비해 권력이나 자원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약자임. 그렇기에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감수성이 뛰어난. 약자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비판적 시선을 가진 청년의 특징을 잘 살린다면 지원의 당위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 청년예술인의 현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의 방식, 내용 등도 변화해야 함
 -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열정이나 노동을 원하지만 그만큼 가치를 책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 청년예술은 심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한편으로는 심사위원이 청년예술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함
 - 약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예술인이라는 한 그룹에 묶여 있는 상황. 그 안에서 각자의 상황이 다를 텐데 한 그룹으로 묶여서 관련 프로젝트들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음

- 시장에서 팔리는 예술도 있지만 '시장에서 소비되어지지 않는 예술'도 있음. 지원금보다 좀 더 큰 예술 생태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
- 기성세대는 '청년'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대상화하고 있으며, 청년은 사회적 약자로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청년'을 활용하고 있음
 - 사회에서 청년을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도구화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화하고 획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정말 큰 문제임
 - 청년이라는 세대가 과연 하나의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가? 청년은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전략적 범주로 읽을 수 있음. 사회적 약자로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청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
 -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본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자아실현이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수입이니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자금을 줘야 한다'로 귀결됨. 차라리 지원을 예술이라는 명목 없이 기본소득으로 지원해준다면 예술의 다양화나 시장의 입장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

③ 예술의 창작자원 테이블

- 청년예술인이란 새롭게 시작하는 예술가들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이를 지원사업 안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청년예술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청년예술'이 붙은 지원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됨
 - 보통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보고 '청년예술'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며, 지원사업의 카테고리, 역할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청년예술인은 새로움, 도전적·실험적, 파이팅 넘치는 모습 등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한편, 청년예술인의 특징으로 생각이 협소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사회 전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음. 본인의 활동과 경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현재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를 더 중요하게 생각

- 예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예술을 하고 싶으면 시도해보라는 측면에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
 - 특히 청년예술인은 더 고립되어 있는 존재. 청년과 예술인을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청년이 예술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
 - 현재 제도나 사회가 청년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며, 청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
- 청년예술인에 대한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청년 예술인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청년 정책이나 청년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느낌이 없음
 -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면 청년예술인의 성장보다는 ‘작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음.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면 함
 -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정책이나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④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 테이블

- 시작하는 사람들,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것
 - 완성을 위한 ‘실험기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저변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 특히, 사회적 발전이 아닌, ‘실험’ 자체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필요
 - 예술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둔 산업. 미래산업 혹은 창의적 콘텐츠 생산 맥락에서 본다면 인큐베이팅 등 시작단계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사업 형태에 본인의 창작활동을 맞춰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짐
 - 창작에는 범위가 없는데 지원사업을 신청하다보니 범위성 있는 창작을 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됨. 특히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고되는 지원사업은 모두 쓰게 된다는 것이 문제
 - 더불어 지원시기에 지원서를 쓰는 것이 습관화 되다 보니 이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자생력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 또한 사실

(2) 선택주제: 테이블별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

① 예술인의 생활자원: #일자리 #주거 #생계 #자금

- ‘생활자원’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금, 생활비,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 자리 등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부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선택
 - 예술인 이전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 시급하다고 생각.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고민
 - 자본, 일자리, 자립 등의 문제가 생기니 창작활동에도 지장이 생김.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
 - 돈을 버는 활동에 목매이지 않으면서 나의 예술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
 - 작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왔음. 돈만 버는 현실에 안주해서 창작활동을 놓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생김.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보고자 선택
- #일자리 #주거 #생계 #자금 이외에 생활자원에 추가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 예술에 대한 가치교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 노력에 비해 받는 것이 보잘 것 없을 때, 결과물을 넘겼는데 계속 수정작업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상황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 정보를 나누거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인적 자원
-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생활안정’이라 말할 수 있는가?
 - 주거 문제 해결(전세/반전세 등)
 - 고정지출(식비, 재료비, 작업실비, 주거비 등) 이상의 경제 수준
 -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예: 월 50만 원 등)
 - 고립을 막을 수 있는 동료나 예술가들의 존재
 - 무직자/프리랜서에 대한 대출
-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안정을 위한 대안이나 대처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당장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비상 일자리가 필요
 - 비용이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문제도 있고, 고정수입

이 없는 예술가의 특성상 수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

-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
 - 청년예술단처럼 예술가들의 순수 창작기획행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들에게 기획 경영 인력이 붙어서 2년 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
- 서울과 지역을 연계해주는 중계자들이 있다면 지역으로 내려가 작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 서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고립 혹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의 두려움을 갖고 있음. 만약 서울에 지역을 연계해주는 중계자들이 있어서 작업 집중기간에는 지역에 있고, 발표할 때는 서울에 올라오는 형태가 있다면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우리나라 예술작품들이 해외 알려질 수 있도록 기관에서 좀 더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 생활지원 관련 정보는 어디서 접하는가?
 - 지인에게 얻거나 적극적으로 스스로 검색해서 찾기도 함
 -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음
- 지금 시대가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더 어려운 시대라고 느끼는가?
 - 경쟁시스템이라는 스트레스가 큼. 사회가 청년을 소외시키는 상황이 분명히 있음
 - 예술활동에 대한 기본 준비자금이 많이 필요
 - 디지털 기기 필수. 최신 기계 보유여부에 따라 경쟁력 차이 발생. 홍보 비용 등
 - 예술교육을 중시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예술'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추앙하는데,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각박하게 대함. 특히 어린 예술인들에게 많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혼란스러움
 - 실존적 의미에 대해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함.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예술가들도 많고 '심리상담'도 사실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

- 일자리를 통해 버는 돈은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써야 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남.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청년예술인들이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
-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공개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 내가 작업을 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음
-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 바라는 점은?
 - 예술인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행정 실무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 필요
 - 예술가들이 노동권,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 이에 대한 교육을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기성/청년 등), 기획자, 예술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 필요. 연극은 모여서 하는 작업이지만 미술, 음악은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6-18]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인의 생활지원

② 예술의 공공성: #예술의 사회적역할 #지역문화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

- '예술의 공공성의 논의를 위한 전제들, 공공성에 근거한 직업적 권리 보장'에 대한 발제 진행
 - 교육의 공공성과 교직원의 권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까지 다양하게 있음.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직원인데 “왜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까”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예술가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 헌법에서 “교육은 공공성을 가지고 교원의 지위는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지위를 규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서는 교직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부여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민주 시민으로써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국가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교육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에게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됨
 - 헌법 제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이외에도 저작가,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된다.”라고 되어있음. 문화기본법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문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정
 - 예술인복지법에는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 즉, 예술가도 교직원처럼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 그러나 이 외에 구체적인 법률은 없는 상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고발로 지적된 예술계 위계폭력 문제에 대한 수습으로부터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보장 법률」 제정 논의가 시작.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의미와 정의, 예술활동의 의미,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와 부의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서, 권리구제절차 등으로 구성. 2019년 4월 19일에 발의되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
- 각자의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한 경험 공유. 청년예술인이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예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좀 더 사회적인 활동(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흥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작업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함
 - 거리공연을 하거나 거리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부름꾼 정도로 취급

- 본인은 창작자가 아닌데, 예술가를 바라보면서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음. 앞서 발제한 내용인 “왜 예술가는 교원과 같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원은 사회를 재생산하고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지만, 예술가는 그 반대로 사회를 깨는 사람임. 그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더불어 교원은 임용고시라는 절차(일정 수준의 자격이 있는 사람)가 있지만, 예술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 지역 문화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악의는 없는 것 같지만) 특하고 던지시는 말에 상처를 받음. 이거 ‘돈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기도 함. 그리고 보통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제작할 때가 많은데, ‘돈을 더 요구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 예술가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듦
- 예술가들이 죽었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왜 사회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나”라는 악성댓글들이 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 줘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항상 무료로 예술을 소비했던 사람일 것. 예술의 가치도 모르고 소비하지 않는 사람임. “돈을 내고 예술을 소비해 보셨나요?”라고 반문해 보고 싶음
 -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악플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예술작품 외적으로도 이에 대한 캠페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지원해야 하나”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는 언제까지 네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 거니?”라고 질문하고 싶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며, 예술가에게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됨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예를 들면 소방관 등) 이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예술에 적용해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 예술보다 더 높은 개념은 문화, 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높은 공공성은 ‘문

- 화예술 향유권'이라 생각. 즉 문화예술을 숨 쉬는 것처럼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공공성이라 생각
-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약자)과 예술을 연결시키고 이것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복지와의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공공성이라 생각. 더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이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네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서로 사회적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공공은 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행정적 틀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예술가만 활용하는 방식이라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갖춰져야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예술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어떻게 공공성을 특정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술인)공동체 안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 '느슨한 연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안에 '책임감'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은 있음. 그런데 사실 연대가 가능할지라도 향후 나에게 어떤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블랙리스트처럼) 두렵기도 함. 우리 모두 약자인데, 사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됨
- '예술에서의 공공성'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에 예술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 예술가는 사회의 변화나 부조리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표출하는 사람. 그렇기에 예술은 사회의 정화기능이나 혁신의 기능, 치유의 기능이라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생각
 - 작품이나 공연으로 인해 느껴지는 정화가 인간 감정의 해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화와 연결되는 것. 예술이 공공성을 갖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
 - 문화예술 자체가 공공성과 뗄 수 없는 영역. 꼭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예술가(자기 위치에서 자기 것을 하는 예술가)라도 결국은 공공성과 연결된다고 생각
 - 예술가들은 '나의 작품으로 승부하겠어'라고 하는, 혹은 결국에는 주류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예술가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으로 연결이 됨

- 그런데 이러한 예술가의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혹은 노동자성·시민성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잉된 자의식으로 인해 구조나 계급 등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
- 과잉된 자의식과 관련해서 예술가가 꼭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자기 검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파악 필요
- 예술대학에서 예술가에 대한 기본 윤리의식을 안 가르치는 것이 문제. 권리도 가르치지 않지만 윤리도 가르치지 않음
- 예술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공감. 런던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커리큘럼에 작품 가격을 책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사회에 요구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음



[그림 6-19]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의 공공성

③ 예술의 창작지원: #창작공간 #발표공간 #간접지원

- 창작활동에 대한 창작공간, 발표공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도의 유휴공간 확보·활용을 통한 지원 필요
 -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은 창작활동을 위한 안식처임. 창작공간은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창작공간이 있다고 해도 월세 등의 압박이 심함. 창작공간 선정자, 예술가에 대한 공간지원 필요
 - 창작자 요구에 맞는 공간과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목적성에 맞는 공간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 특히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여러 사람을 위한 연결점이나 공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 지침이나 가이드 필요
- 필요한 간접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간접지원의 방향을 돈보다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네트워크 형성

- 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실질적으로 실험이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는, 가능성을 보는 지원사업이 없다고 생각. 멘토링, 공간 지원 등과 같은 아이디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간접지원 필요
 - 예술가와 다양한 영역과의 만남, 다른 분야와의 협업 등과 같은 간접지원 필요
- 예술계의 자립성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 예술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음. 지역에서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창구가 없음. 구마다 재단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기반이 형성되었으면 함
 -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필요
 - 간접지원은 상시적으로 몰려 있어서 소액이라도 쉽게 닿았으면 좋겠음. 문턱이 낮아서 누릴 수 있는 예술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음
- 서울청년예술인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한 의견
- 행정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쌍방향으로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를 기대
 - 자유롭게 이야기를 교류하는 자리들이 생각을 변화시킬 요소가 있다고 생각. 혼자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함께 고민하고 그 내용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



[그림 6-20]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의 창작지원

④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 #정보접근성 #네트워크 #동료 #파트너

- 네트워크의 경험이 있는가?
- 맘카페에 가입해 본 경험이 있는데, 관이 아닌데 맘카페가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음

- 지역사회 정보를 얻기 위해 맘카페에 가입해 본 경험 있음. 네트워크 부작용 또한 경험해봤는데 보통 무리가 생기면 권력이 발생하고 피해 또한 발생
- 대학 때 동화책 전공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림 모임을 만들었음.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협업한 경험도 있음. 모임에 대한 욕구는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음
- 예술가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예술가 프로필을 공유하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동료를 찾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 것
- 네트워킹을 위해 예술가의 프로필을 공유하는 지원 필요한가? 예술가가 스스로를 어필해야 하는가? 예술이 꼭 홍보되어야 하는가?
 - 중간 매개자나 코디의 역할을 하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민간의 기획자, 재단 관계자들이 예술가와 예술가를 연결하고 네트워킹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인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 예술가의 관계망과 협업망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기 힘든 태생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생존보장, 복지와 연결되는 지점
 - 함께하는 동료가 옆에 있다는 정서적인 지지 측면에서 네트워킹은 중요하다고 생각
- 관계망과 협업망의 명암에 대해 생각해 보자. 네트워킹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공기관의 네트워킹파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네트워킹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성공적이라고 생각. '마음닿음' 자체가 중요
 - 일회성의 파티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지속적인 모임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 새로운 사람을 깊이 알게 되는 경험 자체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서울은 기본적으로 단절된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 차별과 단절이 만연한 서울에서는 연결이 전제된 네트워킹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음
 - 네트워킹의 어려움은 항상 오는 사람만 온다는 것. 지속성을 가져가려 하다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네트워킹의 중심점이 됨

- 소극적이지만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네트워킹파티를 가끔 참석하는데, 밥만 먹고 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음. ‘과연 내가 이들을 이후에도 또 만날까?’ 하는 생각이 듦. 오히려 이념(예: 페미니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은 지속성을 갖기가 더 수월함. 분류와 구분, 카테고리화를 의도한 네트워킹이 필요
- 현재 나의 관계망과 협업망은 어떻게 되는가?
 - oo 단체가 중요한 관계망이자 협업망. 생태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짐
 - 대학 내에서의 소모임이 있는데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헤쳐 모임.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 모이기도 하는데 이 만남 자체가 나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주기도 함
- 어떤 방식, 어떤 성격의 네트워크를 원하는가?
 - 문학은 ‘등단’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작가지망생들이 많으며, 등단작가가 되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외로움에 시달림. 현실적으로 큰 산을 하나 넘었음에도 네트워킹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장르의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
 - 현재 스스로는 절실한 상황.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내 작업의 방향성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네트워킹 필요
- 이상적인 네트워크는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 장르 아래 모이는 네트워크, 교수스승권력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가 어려움. 네트워크 같지 않은 네트워크가 이상적이라 생각
 -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출발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꿈꾸고 있음. 장소기반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나의 낭만. 카페와 집에서 작업하다 보면 고립되는 느낌이 강함



[그림 6-21]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그룹별 토론 - 예술의 관계망과 협업망

3부

조사



07

FGI



- 1_개요
- 2_주요 결과

07. FGI

1_개요

1) 조사 개요

- 청년예술인 정책의 현실을 살펴보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FGI 실시
 - 참여자는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인
-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및 장르를 고려하여 5개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그룹별 5인 내외로 진행
 - 그룹은 △ 시각분야 △ 연극분야 △ 무용·음악·전통 분야 △ 실연자 △ 확장된 예술 등 총 5개 그룹으로 구성
- FGI는 2019년 8월 8일부터 9월 26일 중에 총 5회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총 27명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차별로 약 2시간 소요
 - 주요 질문: △자기소개 및 지원사업 경험,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예술계에 대한 인식, △서울시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미래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표 7-1] FGI 개요

회차	일시	장소	참여자
1	2019년 8월 8일 오후 2시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세미나실	시각 6명
2	2019년 8월 22일 오후 1시 30분	(구)동송아트센터 지하 회의실	연극 6명
3	2019년 9월 5일 오후 2시	(구)동송아트센터 2층	무용, 음악, 전통 6명
4	2019년 9월 19일 오후 2시	(구)동송아트센터 2층	연극, 음악, 다원 5명
5	2019년 9월 26일 오후 3시	(구)동송아트센터 2층	확장된 예술 4명

2) 참여자 특성

-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확장된 예술 등 총 27명의 청년예술인 참여

[표 7-2] FGI 참여자

연번	구분	표기	주요활동분야	
1	1차	장르별 그룹 (시각)	시각1 (작가)	설치 작업
2			시각2 (작가)	다매체를 활용한 작업
3			시각3 (작가)	설치작업
4			시각4 (작가)	영상작업
5			시각5 (비평가)	비평, 연구
6			시각6 (기획자)	기획, 공간 운영
7	2차	장르별 그룹 (연극)	연극1 (연출가/평론가)	연출과 평론을 병행하다, 2018년부터는 연출자로 활동
8			연극2 (연출가)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연출가로 입봉
9			연극3 (극작가)	극작가로 활동
10			연극4 (평론가)	평론가로 활동
11			연극5 (극작가/연출가)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작업을 하다, 연극 분야로 지원하여 활동
12			연극6 (연출가)	10여 년 동안 배우활동을 하다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연출가로 활동
13	3차	장르별 그룹 (무용 음악 전통)	무용1 (기획자/안무가)	현대무용
14			무용2 (기획자)	무용 단체 활동
15			음악1 (실연자)	클래식 앙상블 활동
16			음악2 (실연자/기획자)	토이피아노
17			전통1 (기획자/실연자)	창작국악 기획 및 실연
18			전통2 (기획자/실연자)	창작국악 기획 및 실연. 가야금 앙상블 활동
19	4차	실연자 그룹	연극1 (실연자)	배우로 활동
20			연극2 (실연자)	배우로 활동
21			음악1 (실연자)	클래식 피아노
22			다원1 (기획자/작가)	음악과 시각 매체를 융합한 작업
23			다원2 (작가)	시각 기반의 미디어 작업
24	5차	확장된 예술 관련 그룹	다원1 (작가/기획자)	기획자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현재는 작가로 활동
25			다원2 (기획자)	연극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 중
26			시각1 (작가/기획자)	페미니스트 그룹 활동
27			무용1 (기획자/안무가)	현대 무용

2_주요 결과

1) 1차 FGI

(1) 개요

- 일시: 2019년 8월 8일 오후 2시
-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시각 분야의 작가 및 비평가, 기획자 등 총 6명

[표 7-3] 1차 FGI 참석자

연번	표기	주요 활동 분야
1	시각1(작가)	설치 작업
2	시각2(작가)	다매체를 활용한 작업
3	시각3(작가)	설치작업
4	시각4(작가)	영상작업
5	시각5(비평가)	비평, 연구
6	시각6(기획자)	기획, 공간 운영

(2) 주요 내용

- 청년 예술인 개념 및 청년예술지원사업 대상
 - ‘청년’을 나이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이 생겼지만 기준이 달라 대상에 대한 일부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한 더 섬세한 고민 필요 [시각1(작가)]
 - ‘최초예술지원사업’에서 대상은 현재 ‘최초’로 시작하는 작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현재 기준인 39세 이하/데뷔 10년 이하 내에는 여러 단계가 공존하다 보니 다양한 활동군이 포괄적으로 선정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내에서도 분리가 필요 [(시각3(작가)]
 - 막 시작하는 단계와 5-10년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대한 분리 필요
-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문제의식
 - 발표 지연으로 예술계 전체가 재단 지원사업에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강하게 느낌 [시각1(작가)]
 - 매년 보장되지 않은 지원금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큼 [전체]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도 예술정책 내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각5(비평가), 시각6(기획자)]
- 지원금 현실화의 필요성
 - 현재 지원금 규모로는 보조적인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활과 예술활동이 가능한 상황 [시각2(작가), 시각5(비평가)]
 - 예술노동에 대한 인정 필요 [시각5(비평가)]
- 공공지원의 방향 및 지속가능성
 - 1년 단위의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 있음 [시각3(작가)]
 - 독일은 작품 구현을 실패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면 됨.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 [시각1(작가)]
 - 청년/최초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 필요 [시각1(작가), 시각6(기획자)]
- 관객 개발
 -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시각4(작가)]
 - 나아가 소비구조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시각2(작가)]
- 비평 지원
 - 비평에 대한 지원도 필요 [전체]

2) 2차 FGI

(1) 개요

- 일시: 2019년 8월 22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구)동숭아트센터 2층
- 참석자: 연극분야의 연출가, 극작가, 평론가 등 총 6명 참여

[표 7-4] 2차 FGI 참석자

연번	표기	주요 활동 분야
1	연극1(연출가/평론가)	연출과 평론을 병행하다, 2018년부터는 연출자로 활동
2	연극2(연출가)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연출가로 입봉
3	연극3(극작가)	극작가로 활동
4	연극4(평론가)	평론가로 활동
5	연극5(극작가/연출가)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작업을 하다, 연극 분야로 지원하여 활동
6	연극6(연출가)	10여 년 동안 배우활동을 하다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연출가로 활동

(2) 주요 내용

- 연극계 내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의미
 - 제도권 탈피가 가능한 출구이자 권위적인 예술계의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지원사업. 과거에는 정통성 없이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건 프린지페스티벌 뿐이었으나, 이제는 기존 극단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프로젝션을 꾸려서 공연하는 것 가능 [연극1(연출가/평론가)]
 - 경력 전환자(실연자_배우→연출가)에게 기회를 주는 지원사업.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주변 선후배들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연극6(연출가)]
 - 연극 생태계 다양성에 기여. 청년예술지원사업이 생기며 수많은 공연이 등장 [연극4(평론가)]
 - '인정' 기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청년예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 공연을 고를 때도 영향을 미침(인증마크) [연극5(극작가/연출가), 연극1(연출가/평론가)]
 - 평론을 인정해주는 사업. 현재 젊은 연극 평론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침. 기존에는 등단에서 지면 확보, 학위나 단체 가입 등의 단계를 밟아 제도화된 방식으로 평론을 이어갈 수 있다면, 지원사업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적 구조에서 탈피할 수 드문 출구임 [연극4(평론가)]
- 평론 영역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 평론은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티켓 등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에, 부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영역. 평론이 예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연극1(연출가/평론가)]
-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증장기/지속적 지원의 필요성
 - 1년마다 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 같이 불안함을 항상 안고 있음. 안정성과 공모 운영 체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 있음 [연극1(연출가/평론가)]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지원 연한인 3년이 끝나고 나면 방출되는 느낌임.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고려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연극4(평론가)]
 - 3년 지원이 끝나고 자립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 개인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3년 지원이 끝난 후 중견 단계의 제도권 집단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연극을 잠시 그만두고 일을 하며 고민해 볼 예정. 스타트업 지원

- 도 정말 많지만 3-4년차 이후 로드맵이나 이후 유지가 어려워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극계도 비슷함.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론이 필요(공간 공유, 네트워킹 등) [연극2(연출가)]
- 청년 이슈는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라 정권이 바뀌면 확 바뀔 것이라는 불안감 있음 [연극1(연출가/평론가)]
 - 지원사업 단계의 세분화
 - 동일하게 심사받는 대상자의 경력 격차가 클 경우 심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력을 고려한 단계별 설계 필요 [연극1(연출가/평론가)]
 - 중간단계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도 필요 [연극2(연출가)]
 - 공모 운영 및 발표 등 일정 운영에 대한 공유/공모 선행화
 - 지원자 입장에서는 공모시기가 변동되거나 발표 시기가 연기되는 등 일정에 대한 공유가 없을 때 사업 준비·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공모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 [연극5(극작가/연출가)]
 - 심사결과 일정 관련하여서는 1, 2월이 비수기이다 보니 이 비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미리 익년도 선정결과가 나왔으면 함 [연극5(극작가/연출가), 연극1(연출가/평론가)]
 - 심사의 공정성
 - 당시 트렌드나 심사위원의 성향이 심사에 반영된다고 보임. 자유롭게 자신의 작업을 얘기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함 [연극2(연출가)]
 - 지원사업에 끼워 맞춰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함.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창작자 스스로의 방향성과 경향성으로 온전히 평가받아야 하며, 창작자의 가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 [연극2(연출가)]
 - 작업의 정치적 성향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 [연극5(극작가/연출가)]
 - 활동비
 - 일을 조금 덜하게 되는 것이지 생활비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연극4(평론가)]

-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 재단 담당자는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건 매우 당황스러운 일. 잦은 담당자 교체는 사업 진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큼. 더불어 담당자 업무가 과중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이 인사 배치에 고려 되었으면 함 [연극4(평론가)]

3) 3차 FGI

(1) 개요

- 일시: 2019년 9월 5일 오후 2시
- 장소: (구)동숭아트센터 2층
- 참석자: 무용 분야 기획자 및 안무가, 음악 분야 실연자 및 기획자, 전통 분야 실연자 등 총 6명 참석

[표 7-5] 3차 FGI 참석자

연번	표기	주요 활동 분야
1	무용1(기획자/안무가)	현대무용
2	무용2(기획자)	무용 단체 활동
3	음악1(실연자)	클래식 앙상블 활동
4	음악2 (실연자/기획자)	토이피아노
5	전통1(기획자/실연자)	창작국악 기획 및 실연
6	전통2(기획자/실연자)	창작국악 기획 및 실연. 가야금 앙상블 활동

(2) 주요 내용

- 활동비의 효과
 - 공연이나 작품 제작을 위한 여유 시간을 만들 수 있었음 [무용1(기획자/안무가)]
 -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부업을 해야 함 [음악2(실연자, 기획자)]
 - 금전적인 효과와 더불어 심리적인 효과도 큼. 활동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느낌 [음악1(실연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생활에 도움. 예술가들은 지출은 꾸준히 있지만 수익은 간헐적이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활동비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심적인 안정감이 큼 [무용1(기획자/안무가)]

- 지원금의 효과
 -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음 [무용1(기획자/안무가)]
- 지원사업의 의미
 - 사회적 인정의 의미. 공신력이 생기는 느낌 [음악1(실연자)]
 - 동료들의 공연을 볼 때조차도 자연스럽게 후원처를 확인하게 됨. 관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 [무용1(기획자/안무가)]
- 중간 기관의 지원사업과 자생력의 연관 관계
 -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인증 효과가 모이면 이것이 곧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렇게 쌓인 인증들은 예술인(단체)이 예술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지는데 도움을 줌. 재단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공연을 통해 계속해서 기업·단체·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한 기회가 파생되고 있음. 재단을 통해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른 연결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생력이라고 생각함[음악 1(실연자)]
 - 병아리가 부화할 때 닭이 쪼아주면 더 잘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같은 중간 기관들이 도움이 됨 [무용1(기획자/안무가)]
 - 자생력을 위해 예술인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격적으로 기업에 제안하고, 대중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예술을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몫임 [음악1(실연자)]
- 중간 기관의 역할
 - 재단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예술가와 예술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 역할이 중요함. 예를 들어, 멘토링 시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유관기관 대표 등도 재단이 연결해줄 경우 흔쾌히 허락을 해 줌. 이것이 공신력이라고 생각함 [음악1(실연자)]
- 청년예술지원사업 방향성
 - 현재는 청년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예술현장에서는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 ‘헤쳐 모여’가 계속되는 중. 단체의 지속성도 활동의 지속성도 모두 보장하고 있지는 못함 [음악2(실연자/기획자)]
 - 활동비도 지원사업 수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때는 안정적이나, 지원이 끝났을 경우 블랙아웃 되는 느낌임. 지원시스템 안에서만 안정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됨. 지원사업 이후 자립의 문제는 다른 부분임.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예술가 스스로도 모두 고민하고 공론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무용1(기획자/안무가)]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 홍보 방법 :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도 많음. 이를 고려한 오프라인 홍보 필요 [전통1(기획자/실연자)]
- 선정방식 : 기획서 작성, 면접, 토론 등의 방식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작업을 표현하기에 쉬운 방법론은 아님. 예술이라는 것을 감안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함 [무용2(기획자)]
- 정산 등 관련 교육 : 세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무지함. 이에 대한 교육 필요 [전통1(기획자/실연자)]

○ 심의 및 평가 관련

- 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심사는 우수 작품 제작에 몰두하기보다는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느껴짐 [무용1(기획자/안무가)]
- 심의 결과 및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함. 예를 들어 미선정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익명의 평가서 형식이 아닌 좀 더 면대면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함. 더불어 일반인 대상의 피드백 방식도 필요함 [무용1(기획자/안무가)]

○ '청년'이라는 용어

- '청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청년예술가는 사실상 신진 예술가와 교집합이 큼. 청년이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음 [전통1(기획자/실연자)]
- 반면 기성의 제도권과 분리된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규정해 주는 것도 유의미함. 각 단계별로 그들에게 맞는 지원 트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함 [무용2(기획자)]

○ 청년에 대해 구분된 지원 필요

- 중견 이상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졸업 직후 스펙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나 활동 장려 차원에서 청년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이와 동시에 원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다만 이 모든 구분은 연령이

되어서는 안 됨. 연령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생각함 [무용1(기획자/안무가)]

- 연령이나 세대별 구분이 아닌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자의 단계에 맞게 지원하면 될 것.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예술계에 뛰어들 단계에서 활동이 막막한데 이에 대한 지원 필요 [음악2(실연자/기획자)]
- 재학생 대상 교육
 -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또 한편으로는 재학생까지 지원할 경우 재단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예술계 내에서 반대 의견은 없는지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됨 [전통1(기획자/실연자)]

4) 4차 FGI

(1) 개요

- 일시: 2019년 9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구)동숭아트센터 2층
- 참석자: 연극 분야 실연자, 음악 분야 실연자, 다원 분야 기획자 및 작가 등 총 5명 참석

[표 7-6] 4차 FGI 참석자

연번	표기	주요 활동 분야
1	연극1(실연자)	배우로 활동
2	연극2(실연자)	배우로 활동
3	음악1(실연자)	클래식 피아노
4	다원1(기획자/작가)	음악과 시각 매체를 융합한 작업
5	다원2(작가)	시각 기반의 미디어 작업

(2) 주요 내용

- 지원사업/지원금의 의미
 - 심리적으로 든든한 것이 있고, 작업 자체에도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함 [연극2(실연자)]
 - 서울문화재단 후원 로고 사용과 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작품이 홍보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등과 같은 인증효과가 있음 [음악1(실연자)]

- 예술교육 등 다른 사업영역에서는 개인적으로 작업할 시간이 없으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온전히 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음 [연극2(실연자)]
- 아르바이트를 하나 줄여줬다는 것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음. 작품을 하고 싶은 방향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정성을 높여줌 [음악1(실연자)]
- 예술인으로서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있음 [연극2(실연자)]
- 재단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섭외, 공연장 규모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며 작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발전된 부분이 있음 [음악1(실연자)]
-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자생력을 고려한 지원 방향 필요
 - 지속적인 지원 필요한데 지금은 일회성에 그침. 지원사업 이후 다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곤 함 [연극1(실연자)]
 - 다른 장르의 실연자, 기획자 등과 매칭하는 등 네트워크와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줌 [음악1(실연자)]
 - 지원사업은 발판을 만드는 용도로, 단순히 지원금만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의 지원도 필요 [음악1(실연자)]
 - 사업이 끝나도 대관료 할인 혜택과 같은 것들은 지속되면 좋겠음 [음악1(실연자)]
 - 발표 공간의 증가(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규모 확장 등은 모두 예술생태계 내에서 연계된 얘기임. 지원사업이 확장되면 그 안에서 상호 고용과 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 [다원2(작가)]
 -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지원사업을 통해 올린 공연을 재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 자생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 [연극1(실연자)]
- 지원사업 세부설계
 - 아티스트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좋음. 재단의 사업은 창작을 더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음악1(실연자)]
 - 음악의 경우, 큰 규모의 공연장 대관은 1년 전에 마감되기도 함. 예술현장의 대관일정과 지원사업 진행 일정이 맞지 않음 [음악1(실연자)]
 - 작업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는 것들이 지원사업 구조 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다원2(작가)]

- 충분한 준비 및 작업 시간의 보장과 다년 지원의 확장 필요 [음악1(실연자)]
- 면접이 유효한 심사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유효하다면 이에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이 필요 [음악1(실연자), 다원1(기획자/작가), 다원2(작가)]
 - 현재 인터뷰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초시계가 주는 압박감 등이 있음
- 심의 및 평가 관련
 - 선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미선정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될 필요 있음 [연극1(실연자)]
 - 관객과의 소통 및 피드백 기회 제공 필요 [연극1(실연자)]
- ‘청년’ 의미 및 청년으로 구분한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청년’이라는 이름이 주는 소외감이 있음. 예술활동에서 경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의 나이(35세, 39세 등)가 아닌 사람들은 소외됨 [다원2(작가)]
 - 청년의 시기가 지나기 전에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조급함이 있음. 이는 중장년에 대한 구분된 지원이 아직은 없기 때문. 청년 이후 단계에 대한 단계별 지원이 필요 [다원1(기획자/작가)]
 - 예술계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청년이라는 구분은 적합해 보임 [연극1(실연자)]
- 기타
 - 관객 개발의 필요성 [전체]
 -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거점 공간 운영 필요 [연극1(실연자)]
 - 평론에 대한 지원과 평론이 공유되는 플랫폼 개발 필요 [다원2(작가)]

5) 5차 FGI

(1) 개요

- 일시: 2019년 9월 26일 오후 3시
- 장소: (구)동승아트센터 2층
- 참석자: 확장된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으로 다원 분야 작가 및 기획자, 시각 분야 작가이자 기획자, 무용 분야 기획자이자 안무가 등 총 4명 참석

[표 7-7] 5차 FGI 참석자

연번	표기	주요 활동 분야
1	다원1(작가/기획자)	기획자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현재는 작가로 활동
2	다원2(기획자)	연극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 중
3	시각1(작가/기획자)	페미니스트 그룹 활동
4	무용1(기획자/안무가)	현대 무용

(2) 주요 내용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의미
 - 기획자에서 창작자로 경력을 전환했음. 이런 경우 새로운 경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사업임 [다원1(작가/기획자)]
 -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지원사업 수혜팀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계됨. 선정 수혜 기준으로는 '최초'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사실상 실질적인 경험치 상으로는 최초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다원2(기획자)]
- 지원사업의 의미
 -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음 느낌 [다원2(기획자)]
 - 예술가들은 사회와 관계맺기가 어려운데 지원사업의 선정을 바탕으로 공적 존재와 예술가 개인이 관계맺기를 통해 연결감, 소속감 등이 일시적으로 생긴 느낌. 이로 인한 안도감이 있음 [다원2(기획자)]
- 목적이 다른 지원사업에 모두 지원하는 이유
 - 프로젝트가 지원사업에 적합한 것 같지 않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사업 유형에 맞추어 모든 사업에 다 지원하게 됨 [다원2(기획자)]
 - 지원사업의 목적은 다르더라도 결국 지원해 주는 내용은 동일함. 지원금을 주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예술가 입장에서는 문만 다르고 도착하는 방은 같음 [다원2(기획자)]
 - 지원 목적에 따라 지원해주는 내용도 달라져야 함. 창작 지원은 예술활동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면 그러한 효과가 더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함 [다원2(기획자)]

- 지원사업의 방향
 - 모든 지원사업들이 연속성이 크게 없으며, 지원사업이 바뀔 때마다 지원 신청 시 신청자들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함. 의미 없이 소모되는 에너지들이 많음 [다원1(작가/기획자)]
 - 지원사업의 구조로 정확히 떨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예술가가 처한 입장, 관점 등이 다양하게 고려된 유연한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 있음 [다원1(작가/기획자)]
 - 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홍보 등의 지원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내실 있는 간접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원1(작가/기획자)]
 -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및 다년 사업 확장 필요 [시각1(작가/기획자)]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선정 횟수 제한(3회)에 대해 재고하였으면 함. 3년으로 자생력을 가지거나 예술가로서 성장이 완성될 수 없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함 [시각1(작가/기획자)]
 -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혜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함 [다원1(작가/기획자)]
 - 예술가의 생존과 관련하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의 관점, 즉 유통차원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 [다원2(기획자)]
- 활동비의 의미
 - 개인의 예술노동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함 [시각1(작가/기획자)]
- 심의 및 평가 관련 피드백
 - 선정 및 미선정에 대한 피드백 공유 필요 [다원1(작가/기획자)]
 - 현재는 평가서가 전달되는 방식인데, 익명의 평가보다는 면대면으로 얘기를 나누며 비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보완되는 것이 필요 [다원1(작가/기획자)]
 - 동료 및 선배평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 이미 지원 사업을 경험한 이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비평과 정산 등과 같은 실질적인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음 [시각1(작가/기획자)]

○ 관객개발

- 관객개발이 필요함. 세금으로 좋고 다양한 작품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인임. 누구든 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 [다원2(기획자)]
- 관객 개발은 예술활동의 지속력과도 결부된 문제로 중요 [시각1(작가/기획자)]

○ 청년 의미

- 지원사업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나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등 청년의 의미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나이 제한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있음. '청년'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느낌 [시각1(작가/기획자)]
- 청년층이 사각지대는 맞지만 이를 '청년'이라는 단어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음.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느낌이 있음. 예술계 내에서 청년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진예술가로서 자기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시각1(작가/기획자)]
- 예술계 내에서는 최초나 신진이라는 단어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함 [시각1(작가/기획자)]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나이로만 규정하지 않고 데뷔 10년 이하를 열어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함. 예술활동에서 청년을 나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에 진입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음 [다원1(작가/기획자)]
- 청년 나이 규정을 넘어가는 40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청년예술지원사업이 대부분 39세까지를 지원하면서 예술계 내에서는 40세가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어 버림. 세대별로 단절되는 지원이 아닌 단계별로 지원하는 설계가 필요함 [다원1(작가/기획자)]

○ 기타

-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뀜.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처음부터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원1(작가/기획자)]
- 그 해의 예술 경향성 등의 흐름들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 재단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아카이빙하지는 않음.

- 이에 대한 아카이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 예술계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고 예술가들의 세대별 변화도 분석 가능할 것 [다원1(작가/기획자)]
- 서울 내 지원체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서울에 몰려 있다고 생각. 다른 지역과의 교류 등을 통해 편중된 발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술지원의 체계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음 [다원2(기획자), 시각1(작가/기획자)]
- 예술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필요 [무용1(기획자/안무가)]

6)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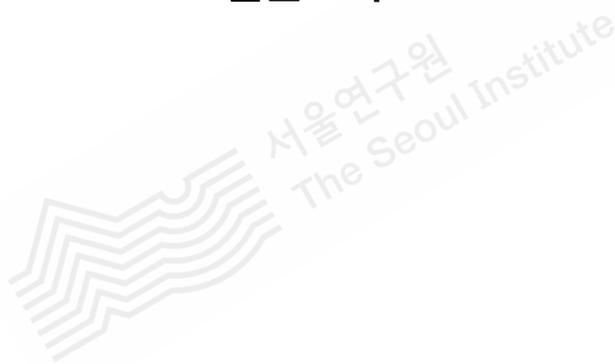
- ‘청년’의 의미
 - 기관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른 현상을 언급하며 ‘청년’을 나이로 규정하는 것의 문제점 지적
 - 현재 청년예술지원사업에서 ‘청년’으로 정의하기엔 개인의 단계와 경력의 다양함. 예를 들어,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가 만 39세 혹은 데뷔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선정 예술가를 보면 다양한 단계 및 경력을 가진
 -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청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 존재. 연령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생각함
 - 다만 기존 예술계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청년예술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의 구분은 의미가 있음
 - 연령과 상관없이 예술계에 진입하는 ‘신진’으로서 자기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청년 이슈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지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의 존폐에 대한 불안감 존재
- 지원사업 선정 및 수혜의 의미와 영향
 - 인정 및 인증효과가 있다고 생각
 - 제도권 탈피가 가능한 출구이자 권위적인 예술계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여

- 경력 전환이나 새로운 매체 형성 등 예술계에 진입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
-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발표 지연으로 예술계 전체가 재단 지원사업에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강하게 느낌. 매년 보장되지 않은 지원금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큼
- 지원금 수혜의 효과영향결과
 - 전반적으로 지원금이나 활동비를 통해 이전보다는 작품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됨.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작품을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예술가의 수입은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활동비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
 - 서울청년예술단의 활동비는 예술노동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
 - 그림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작품 활동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임
- 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 1년 단위의 단기 지원이 아닌 충분한 준비 및 작품 제작 기간이 보장되었으면 함
 - 지원사업의 일정이 예술현장의 주기를 따라 유동적이었으면 함
 - 지원의 연속성 없음. 발표 이후의 단계(재공연, 유통 등)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해야 함
 - 심사 방식의 개선과 심사의 공정성 제고 필요. 더불어 작업의 발전을 위해 선정자뿐만 아니라 미선정자에 대한 피드백이 공유되었으면 함
 - 간접지원(비평, 네트워크, 정보공유 플랫폼 등)의 필요성 강조
- 자생을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성
 - 청년예술지원사업에서 선정 횟수 제한인 3년 동안 자생력 형성 불가.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이후 단계, 중간 단계인 40대 등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필요
 - 예술가의 생존과 관련하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의 관점, 즉 유통 차원에서도 고려했으면 함

- 관객개발의 필요성
- 발표 공간의 증가 및 지원사업 규모 확장 필요
- 예술노동에 대한 인정 및 적절한 대가 필요
- 기타
 - 정산 과정의 어려움
 -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
 -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 등

08

설문조사



1_개요

2_예술활동 실태와 여건

3_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4_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5_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

08. 설문조사

1_개요

1) 조사 개요

-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생태계 및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대상은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2017~2019)이 있거나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라 함은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기획형 서울청년예술단,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소한 기부' 등을 의미
- 조사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2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 조사 진행 결과 총 704개의 유효 표본 회수. 이 중 청년예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40세 이상의 표본은 제외하고 최종 666개의 표본에 대해 분석
- 조사 내용은 예술활동 실태 및 여건, 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 인구학적 정보 등으로 구성
 - 청년예술인의 실태는 2018년 시행된 <예술인실태조사(문체부)>의 결과를 활용하여 앞의 1장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미포함
 - 세부 문항은 아래 [표 8-2]와 같음

[표 8-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외 청년예술인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표본 수	666명
조사 기간	2019년 10월 17일~2019년 10월 28일

[표 8-2]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문항
예술활동 실태 및 여건	주 활동, 주 활동 장르, 주 활동 형태, 소속된 단체/기관의 성격, 단체/기관에서의 위치, 고용형태, 고용계약 형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시점, 예술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작업실 사용 여부, 작업실 유형(위치, 소유형태, 운영 형태), 주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 경험 및 이유,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여부·횟수·기간·이유
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본인 예술활동에 관한 생각, 본인 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새로운 변화에 관한 동의 및 관심, 현재와 미래 예술계에 대한 평가, 예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예술활동 중 부당행위 경험 여부·횟수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 지원사업 신청 경험 여부, 신청했던 공공 지원사업의 시행 기관, 공공 지원사업 선정 경험 여부, 지원받은 공공 지원사업 시행 기관, 예술활동에 있어 공공 지원의 중요도, 예술지원사업 체계에 대한 의견,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유형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적절성, 지원사업의 유형을 기준으로 현재 활동하는 영역향후 활동하고 싶은 영역,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인지 여부,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여부·지원받은 사업·도움의 정도(작품활동, 예술가로서 성장, 생활고 해결 측면), 활동 영역과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영역의 불일치 경험 여부·불일치 항목·불일치 시 대처방안·불일치가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구조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점
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정부 지원정책 및 사회적 기반의 충분도, 청년예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청년예술인으로 불리는 것에 관한 생각, 예술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 청년예술인 구분의 적절한 기준, 학생을 청년예술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서울문화재단이 청년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예술활동 관련 정보의 인지도 및 필요성, 청년예술인 정책 및 지원심사 결정에 있어 청년 당사자 참여의 필요성
인구학적 정보	성별, 나이, 거주지, 주요 활동지, 가구원 수, 함께 사는 가구원, 지난 1년(2018년) 총소득 및 예술활동 관련 소득, 최종학력, 예술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 예술 전문교육 전공 분야와 현재 활동 분야의 일치 여부

2) 응답자 특성

-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며, 연령은 만 25~39세가 대부분
 - 여성 응답자가 65.9%로 남성 응답자(33.3%)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은 만 39세 이하라는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만 19~39세의 응답 분포를 보임. 만 30~34세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만 25~29세(30.3%), 만 35~39세(26.7%)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특성을 보임
 - 거주지역은 서울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이 27.3%
 - 활동지역은 서울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8.1%
- 지난 1년간 총소득은 평균 1,422만 원이며, 예술활동 소득은 평균 593만 원
 - 지난 1년간 총소득은 1,001~2,000만 원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501~1,000만 원 26.3%, 500만 원 이하 16.8% 순으로 나타남. 총 소득이 0원이라는 응답도 4.7%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소득은 501~1,000만 원이 20.3%로 가장 많았으며, 201~500만 원이 18.5%, 100만 원 이하가 16.2% 순으로 나타남. 특히 예술활동 소득이 아예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6%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대부분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다녔으며, 예술 전문교육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음
 -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인 사람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석사 졸업도 33.2%로 높은 비중 차지
 - 예술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82.9%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 대학을 다닌 사람이 67.0%로 높게 나타남

[표 8-3]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중
전체		666	100.0
성별	남성	222	33.3
	여성	439	65.9
	기타	5	0.8
	만 19~24세	32	4.8
나이	만 25~29세	202	30.3
	만 30~34세	254	38.1
	만 35~39세	178	26.7
	서울	454	68.2
거주지역	수도권	182	27.3
	그 외 지역	30	4.5
	서울	594	89.2
주요 활동지역	수도권	54	8.1
	그 외 지역	18	2.7

	구분	빈도	비중
가구원 수	1명	230	34.5
	2명	140	21.0
	3명	130	19.5
	4명	133	20.0
	5명 이상	33	5.0
함께 사는 가구원	부모	261	59.9
	형제자매	180	41.3
	배우자	125	28.7
	자녀	44	10.1
	친구/동료	18	4.1
	기타	5	1.1
지난 1년 총 소득	0원	31	4.7
	500만 원 이하	112	16.8
	501~1,000만 원	175	26.3
	1,001~2,000만 원	228	34.2
	2,001~3,000만 원	90	13.5
	3,001만 원 이상	30	4.5
지난 1년 예술활동 소득	0원	124	18.6
	100만 원 이하	108	16.2
	101~200만 원	83	12.5
	201~500만 원	123	18.5
	501~1,000만 원	135	20.3
	1001~2,000만 원	61	9.2
	2,001만 원 이상	32	4.8
최종 학력 (졸업 기준)	중학교	1	0.2
	고등학교	28	4.2
	4년제 미만 대학(교)	62	9.3
	4년제 이상 대학교	339	50.9
	대학원 석사과정	221	33.2
	대학원 박사과정	15	2.3
예술전문교육 경험	예술계중학교	25	3.8
	예술계고등학교	110	16.5
	예술계대학교	446	67.0
	예술계대학원 석사과정	294	44.1
	예술계대학원 박사과정	34	5.1
	받은 적 없음	114	17.1

주: 예술전문교육 경험은 복수응답 문항

2_예술활동 실태와 여건

1) 예술활동 실태

(1) 주 활동 및 장르

- 응답자의 주 활동을 보면, 창작자가 대부분
 - 창작자가 65.3%로 가장 많았으며, 실연자가 17.0%, 기획자 및 매개자 7.4% 순
- 활동 장르를 시각이 가장 많으며, 연극, 음악 순으로 나타남
 - 시각이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극 18.9%, 음악 16.1%, 문학 13.4%의 비중을 보임
- 활동과 장르를 교차해서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작자는 시각 장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연자는 연극 장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창작자 중 시각 장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문학 17.7%, 연극 16.6%
 - 실연자 중에서는 연극 장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38.9%, 무용 10.6%로 나타남

[표 8-4] 주 활동 및 주 장르(활동 중심)

(단위: 명, %)

장르	활동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및 매개자	교육자	연구자	문화 행정	실무 인력	기술 인력	평론가	기타	전체
사례 수	435	113	49	35	14	7	6	4	2	1	666
연극	16.6	40.7	10.2	2.9	0.0	0.0	0.0	50.0	0.0	0.0	18.9
무용	3.9	10.6	4.1	11.4	7.1	0.0	0.0	0.0	0.0	0.0	5.4
음악	9.7	38.9	18.4	25.7	7.1	0.0	33.3	0.0	0.0	0.0	16.1
시각	36.3	0.9	22.4	22.9	35.7	0.0	16.7	0.0	50.0	0.0	27.8
다원	3.0	3.5	6.1	8.6	7.1	28.6	0.0	0.0	0.0	0.0	3.9
문학	17.7	0.0	2.0	11.4	21.4	28.6	16.7	0.0	50.0	0.0	13.4
만화/ 애니메이션	0.0	0.0	2.0	0.0	0.0	0.0	0.0	0.0	0.0	0.0	0.2
공공예술	0.5	0.9	14.3	0.0	0.0	0.0	0.0	0.0	0.0	0.0	1.5
출판	0.0	0.0	0.0	2.9	0.0	0.0	0.0	0.0	0.0	0.0	0.2
디자인	3.9	0.0	0.0	2.9	0.0	0.0	0.0	0.0	0.0	0.0	2.7
영화	3.9	0.9	6.1	0.0	7.1	0.0	16.7	25.0	0.0	0.0	3.6
장르 한정되지 않음	3.4	1.8	10.2	8.6	7.1	42.9	0.0	25.0	0.0	100.0	4.7
기타	1.1	1.8	4.1	2.9	7.1	0.0	16.7	0.0	0.0	0.0	1.8

- 활동과 장르를 교차해서 장르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각과 연극 장르에서는 창작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음악 장르에서는 창작자와 실연자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
 - 시각에서는 창작자가 85.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자 및 매개자 5.9%, 교육자 4.3% 순으로 나타남
 - 연극에서는 창작자 57.1%로 실연자(36.5%)보다 높은 비중 차지
 - 음악은 창작자(39.3%)와 실연자(41.1%)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자 및 매개자와 교육자 또한 8.4%로 비슷한 비중 차지

[표 8-5] 주 활동 및 주 장르(장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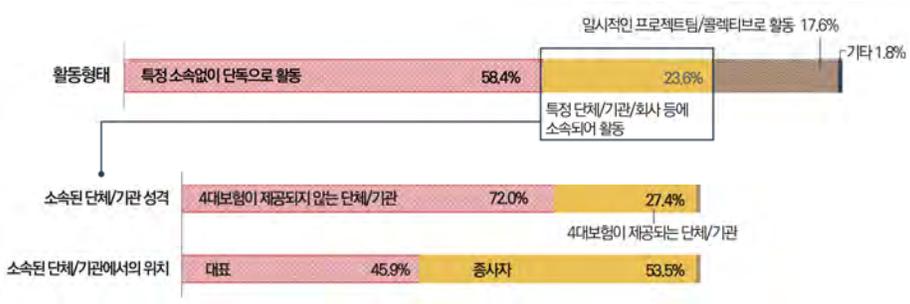
(단위: 명, %)

장르	활동										
	사례 수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및 매개자	교육자	연구자	문화 행정	실무 인력	기술 인력	평론가	기타
전체	666	65.3	17.0	7.4	5.3	2.1	1.1	0.9	0.6	0.3	0.2
연극	126	57.1	36.5	4.0	0.8	0.0	0.0	0.0	1.6	0.0	0.0
무용	36	47.2	33.3	5.6	11.1	2.8	0.0	0.0	0.0	0.0	0.0
음악	107	39.3	41.1	8.4	8.4	0.9	0.0	1.9	0.0	0.0	0.0
시각	185	85.4	0.5	5.9	4.3	2.7	0.0	0.5	0.0	0.5	0.0
다원	26	50.0	15.4	11.5	11.5	3.8	7.7	0.0	0.0	0.0	0.0
문학	89	86.5	0.0	1.1	4.5	3.4	2.2	1.1	0.0	1.1	0.0
만화/애니메이션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공공예술	10	20.0	10.0	70.0	0.0	0.0	0.0	0.0	0.0	0.0	0.0
출판	1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디자인	18	94.4	0.0	0.0	5.6	0.0	0.0	0.0	0.0	0.0	0.0
영화	24	70.8	4.2	12.5	0.0	4.2	0.0	4.2	4.2	0.0	0.0
장르 한정되지 않음	31	48.4	6.5	16.1	9.7	3.2	9.7	0.0	3.2	0.0	3.2
기타	12	41.7	16.7	16.7	8.3	8.3	0.0	8.3	0.0	0.0	0.0

(2) 활동의 주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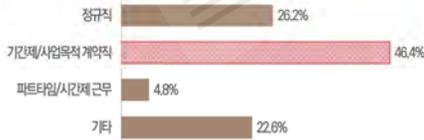
- 활동의 주된 형태는 특정 소속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 특정 소속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58.4%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단체·기관·회사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23.6%, 일시적인 프로젝트 팀이나 콜렉티브로 활동하는 경우가 17.6%로 나타남

- 특정 단체나 기관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4대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27.4%에 불과



[그림 8-1] 청년예술인 활동 형태 및 소속된 단체/기관

- 소속된 단체나 기관에서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계약직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용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경우가 절반보다 낮게 나타남
 - 고용형태는 기간제 혹은 사업목적 계약직(46.4%)이 가장 많았고, 정규직(26.2%), 기타(22.6%) 순으로 나타남
 - 고용 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계약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도 35.7%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준계약서가 아닌 형태의 계약도 7.1%로 나타남



[그림 8-2] 청년예술인 고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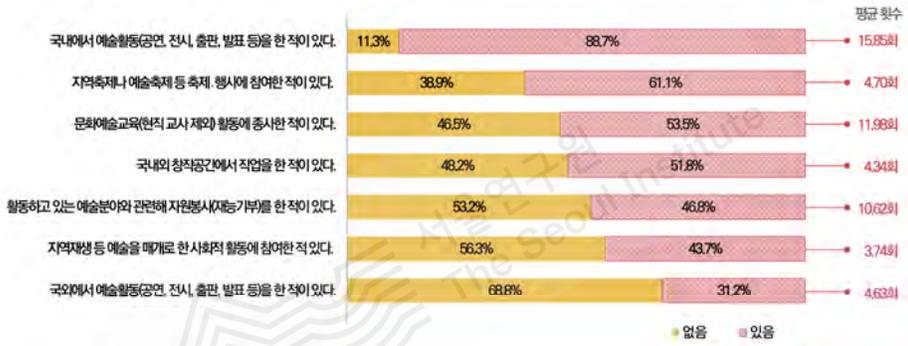


[그림 8-3] 청년예술인 고용 계약 형태

(3) 지난 1년간 참여한 (예술)활동

- 지난 1년간 활동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로 국내에서의 예술활동이나 축제행사, 문화예술교육, 창작공간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
 - 국내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축제·행사 참여 경험 61.1%,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

- 53.5%, 국내외 창작공간에서의 작업 경험 51.8%의 순으로 나타남
-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 46.8%, 지역의 사회적 활동 참여 경험 43.7%, 국외에서의 예술활동 경험 31.2%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
- o 지난 1년간 활동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예술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교육과 재능기부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 차지
 - 국내에서의 예술활동의 평균 횟수는 15.85회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교육 11.98회, 예술 분야 관련 자원봉사 10.62회로 나타남
 - 축제·행사 참여(4.70회), 국외 예술활동 참여(4.63회), 국내외 창작공간 작업 활동(4.34회), 사회적 활동 참여(3.74회) 등은 비교적 낮은 참여 횟수를 보임



[그림 8-4] 지난 1년간 참여한 예술활동

2) 예술활동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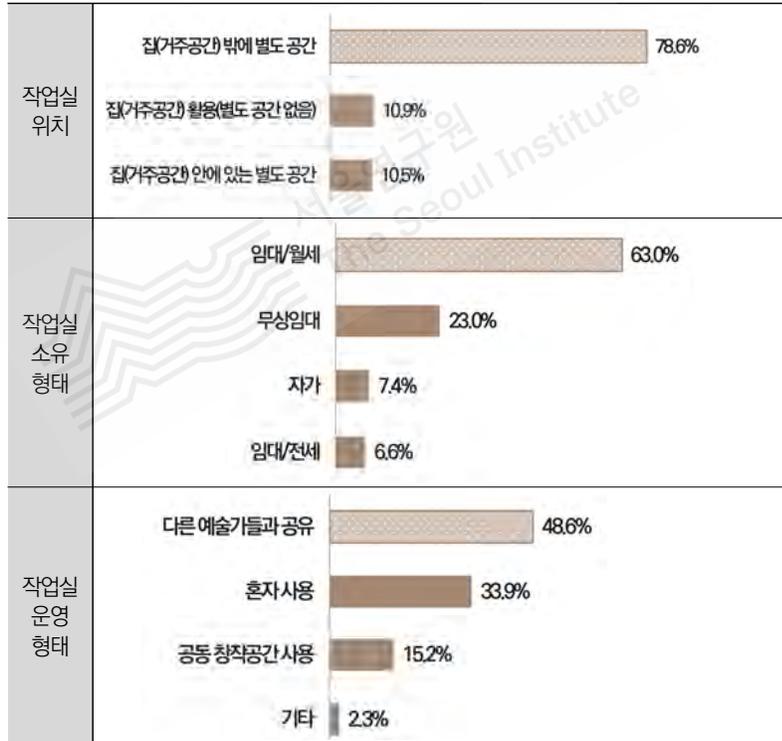
(1) 작업실 이용 형태

- o 작업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 38.6%로 전체의 약 1/3 정도 차지



[그림 8-5] 작업실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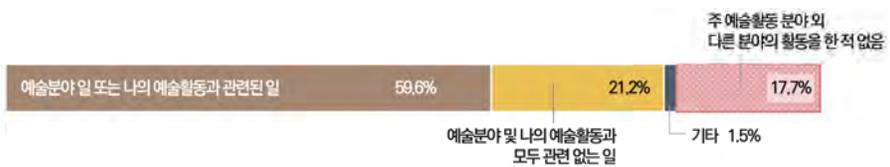
- 사용하는 작업실의 유형을 살펴보면, 작업실이 집 밖에 별도의 공간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월세 형태로 다른 예술가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다수
 - 집 밖의 별도의 공간을 작업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78.6%로 가장 많았고, 집 안에 별도 공간 없이 집을 활용하는 경우가 10.9%, 집 안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작업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10.5%였음
 - 작업실은 임대 혹은 월세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63.0%로 가장 많았고 무상임대가 23.0%, 자가 7.4% 순으로 나타남
 - 작업실을 다른 예술가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사용하는 경우도 33.9%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
 - 장르별로 보면, 연극과 무용은 작업실을 다른 예술가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악과 다원은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림 8-6] 사용하는 작업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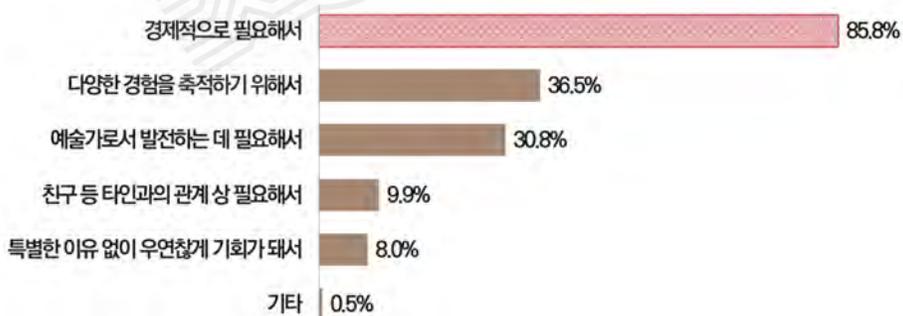
(2) 주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 경험

- 본인이 활동하는 주 예술활동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
 - 예술 분야의 일 또는 나의 예술활동과 관련된 일을 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 분야 및 나의 예술활동과 모두 관련 없는 일을 한 경우는 21.2%
 - 주 예술활동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에 불과



[그림 8-7] 주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 경험 여부

- 주 예술활동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을 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압도적으로 많이 꼽음
 - 그 외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36.5%), 예술가로서 발전하는 데 필요해서(30.8%),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상 필요해서(9.9%) 순으로 나타남



[그림 8-8] 주 분야 외 다른 분야 활동 경험 이유

(3)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 예술활동 경력 단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1.8%로 전체의 절반 정도
 - 경력 단절 횟수는 평균 2.1회, 기간은 평균 17.8개월로 나타남



[그림 8-9]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여부

- 예술활동 경력 단절의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등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78.8%)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그 외 예술활동에 지치거나 염증을 느껴서(25.2%), 학업 등 새로운 자기 발전에 도전하기 위해(19.1%) 순으로 나타남



주: 복수응답 문항

[그림 8-10]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

3_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1) 본인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1) 본인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생각)

-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평가는 높은 편

- 본인의 예술활동이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5점 척도에서 4.40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3.9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 반면, 예술활동 결과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
 - 예술활동을 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3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였으나 예술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결과에 대한 경제적 만족도는 1.67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예술활동을 하면서 나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는 항목 또한 4.62로 매우 높은 동의도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예술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남
 - 앞으로도 계속 예술활동을 하고 싶다는 항목의 동의도는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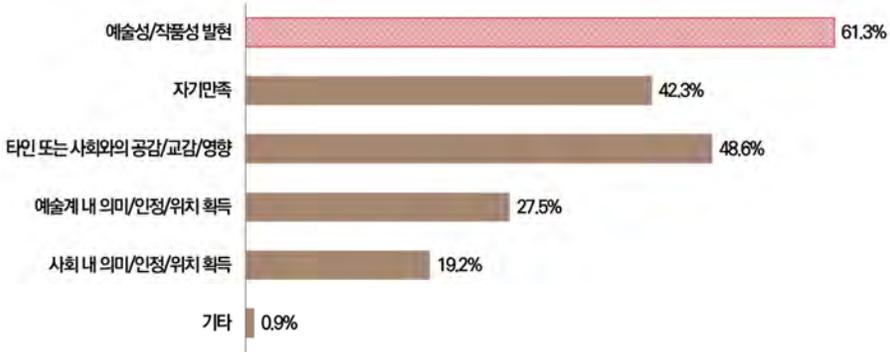


[그림 8-11] 본인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2) 본인 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²⁰⁾

-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예술성(혹은 작품성)의 발현을 꼽았음
 - 예술성 및 작품성 발현은 1순위에서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수치에서도 61.3%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타인 또는 사회와의 공감²⁰⁾이 4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만족(42.3%), 예술계 내 의미·인정·위치 획득(27.5%) 등의 순이었음

20) 본인이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1순위, 2순위를 질문.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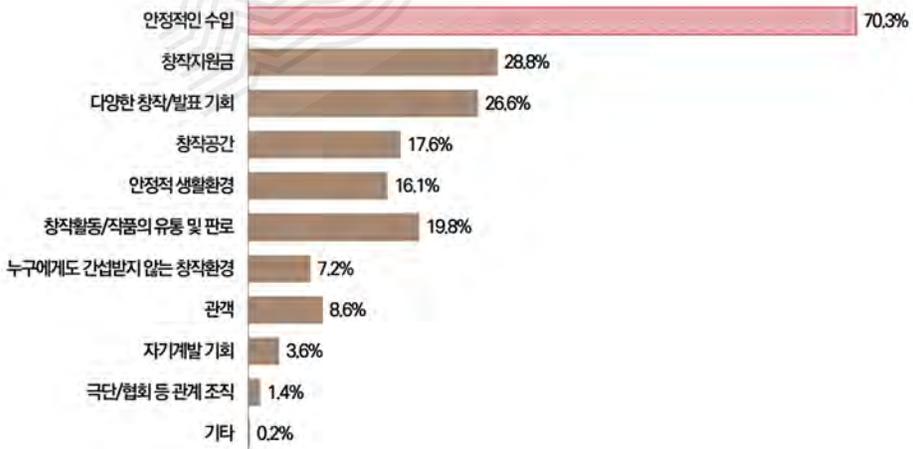


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

[그림 8-12] 본인 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3)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²¹⁾

-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정적인 수입은 1순위에서도 58.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수치에서도 70.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 외 창작지원금(28.8%)과 다양한 창작 및 발표 기회(26.6%), 창작활동 및 작품의 유통·판로(19.8%) 등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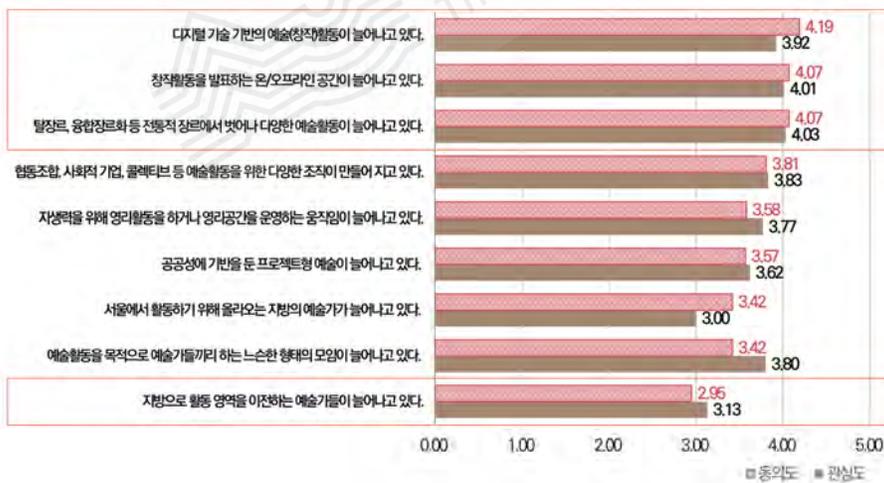
[그림 8-13]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21) 본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1순위, 2순위를 질문.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서 분석

2) 우리나라 예술계에 대한 인식

(1) 예술의 변화에 대한 동의도와 관심도²²⁾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예술의 변화 중 특히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공간, 전통적 장르에서 벗어난 다양한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 디지털기술기반의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항목은 동의도(4.19)와 관심도(3.92)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항목은 동의도가 4.07, 관심도가 4.01로 나타났으며, 융합장르화 등 전통적 장르에서 벗어난 다양한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항목은 동의도 4.07, 관심도 4.03으로 나타남
 - 그 외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예술가들끼리 하는 느슨한 형태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항목은 동의도(3.42)는 낮게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관심도(3.80)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지방으로 활동 영역을 이전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도와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8-14] 예술의 변화에 대한 동의도 및 관심도

22) 예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

(2) 예술계에 대한 평가²³⁾

- 예술계에 대한 평가는 현재와 미래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수치가 다 낮으나 특히 자생적 시장 존재 여부(1.93), 예술정책 결정시 예술계 의사 반영도(1.92), 예술관련 법 제도 충분도(1.92),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1.80) 등은 5.0점 척도에서 2.0을 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
 -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예술인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2.95),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2.87), 작품을 발표할 충분한 기회(2.82)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남
- 특히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미래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
 - 현재 우리나라 예술계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도는 1.76으로 매우 낮았으며, 미래에 우리나라 예술계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2.39로 현재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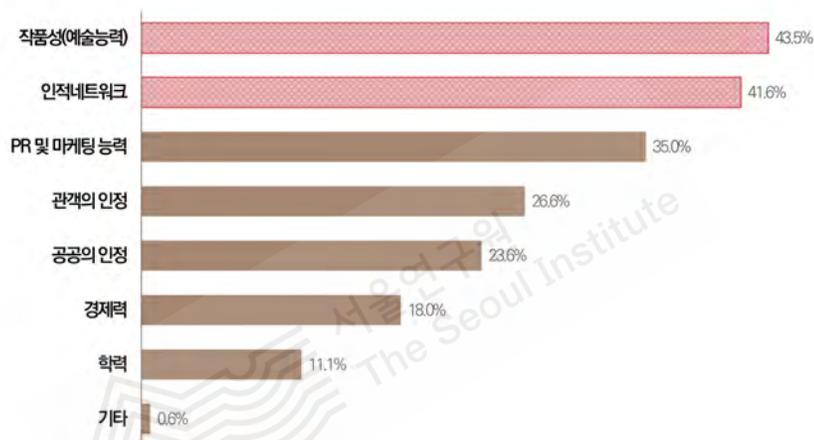


[그림 8-15] 예술계에 대한 평가(현재 및 미래)

23) 예술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8개의 항목의 동의도를 5점 척도로 질문

(3)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²⁴⁾

-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품성과 인적네트워크, PR 및 마케팅 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음
 - 특히 작품성(43.5%)과 인적네트워크(41.6%)를 성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으며, PR 및 마케팅 능력(35.0%)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이해 비해 관객의 인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임
 - 특히 1순위에서는 9.0%로 매우 낮은 동의를 보였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수치로는 26.6%의 비중 차지



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

[그림 8-16]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예술활동 중 부당한 경험

- 예술활동 중에 겪은 부당한 경험은 부당처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활동량보다 저임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선배나 동료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3.7%, 젠더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36.0%, 예술활동 관련해서 돈을 떼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0.6%, 저작권을 뺏기거나 도용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1.6%로 나타남

²⁴⁾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1순위, 2순위를 질문.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서 분석

- 부당한 경험을 겪은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배나 동료 등에게 당하는 폭력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선배나 동료 등에게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주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8%나 되었으며, 월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8.6%로 나타남
 - 젠더 폭력 또한 주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8%로 나타났으며, 부당처우는 월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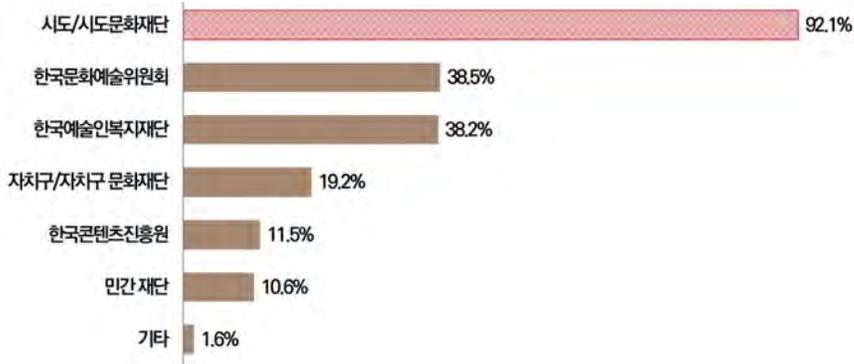
[그림 8-17] 예술활동 중 부당한 경험

4_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1)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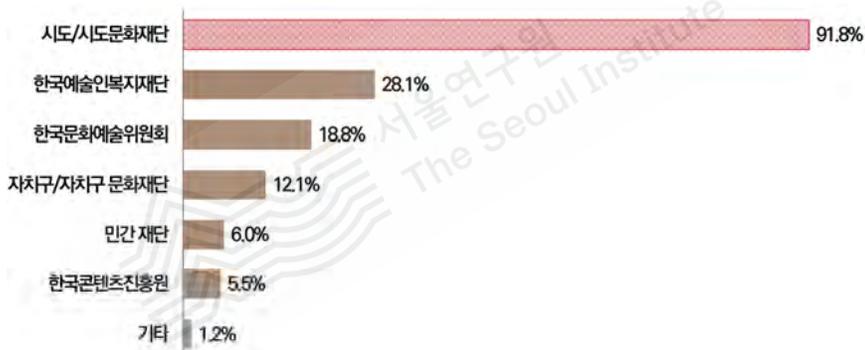
(1) 공공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경험

-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대부분
 - 공공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5.2%
 - 시도 또는 시도문화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가 92.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38.5%), 한국예술인복지재단(38.2%), 자치구/자치구 문화재단(19.2%)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8] 공공지원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기관

-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또한 대부분을 차지
 - 공공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94.8%
 - 선정된 기관은 시도/시도문화재단이 91.8%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2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18.8%)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9] 공공지원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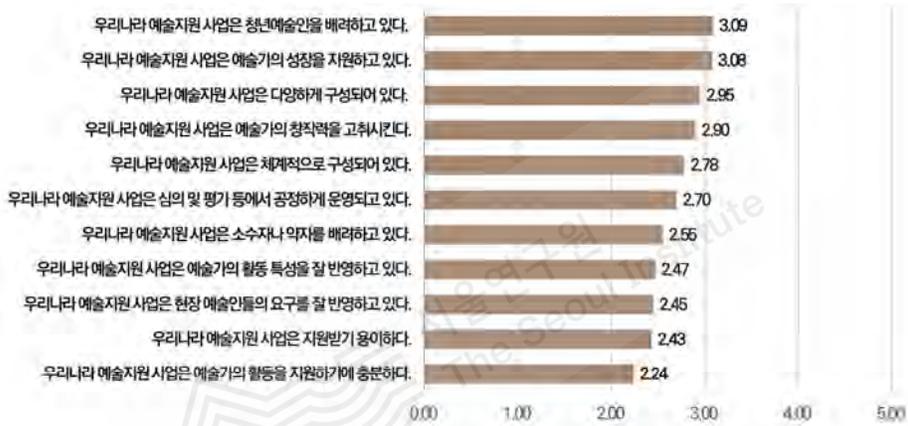
(2) 공공 지원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대부분은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 공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예술활동에 있어 공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0.6%,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6.2%로 대부분 공공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



[그림 8-20] 공공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이 나타남
 - 예술지원사업 체계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질문했는데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점수가 2.2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지원의 용이성(2.43), 현장예술인들의 요구 반영 정도(2.45), 예술가의 활동 특성 반영(2.47), 소수자나 약자 배려(2.55)에 대한 항목 역시 모두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이에 반해 청년예술인의 배려(3.09), 예술가의 성장지원(3.08) 항목은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



[그림 8-21] 우리나라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2)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1)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대부분
 - 전체의 90.5%가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을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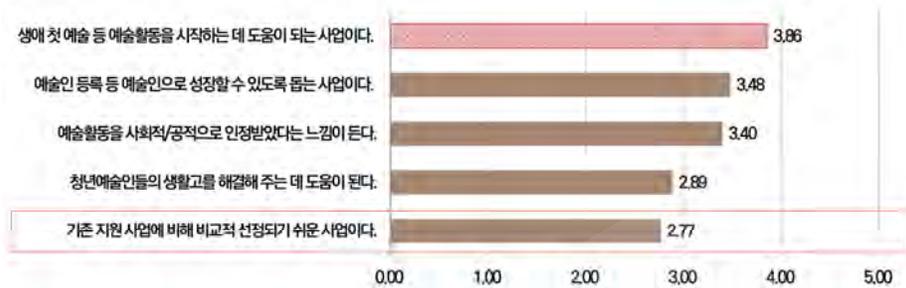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음

90.5%

모름 9.5%

[그림 8-22]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인지도

-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을 예술활동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생애 첫예술 지원사업 등과 같이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86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기존 지원사업에 비해 비교적 선정되기 쉬운 사업(2.77)이라거나 청년예술인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2.89)이라는 인식은 낮게 나타남



[그림 8-2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2)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과 활동 영역의 불일치

- 본인의 활동영역과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과 불일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4 정도
 - 재단 사업에 신청하면서 본인의 활동영역과 재단의 지원사업이 불일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3%
 -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다윈, 무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가 이러한 경험을 한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재단의 지원사업과 본인의 활동영역이 불일치한 이유로 ‘발표와 결과물 중심’의 지원사업, ‘장르 중심의 지원사업’ 항목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
 - 나의 주요활동이나 관심 있는 영역이 발표와 결과물 중심의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8.1%, 장르 중심의 기존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7.4%로 나타남
- 이러한 불일치를 경험했을 때 대처했던 방식으로는 지원사업에 맞추되 본인의 활동영역을 별도로 추진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원사업에 맞추되 내 활동 영역을 별도로 추진했다는 응답은 과반이 넘

는 비중(52.2%)을 차지했으며, 장르별로 보면 특히 시각 분야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지원사업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0%였으며, 지원사업에 맞춰 나의 활동영역을 바꿨다고 응답한 사람은 22.8%
- 이러한 불일치가 본인의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으로는 예술활동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예술활동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24.3% 차지. 오히려 새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응답은 19.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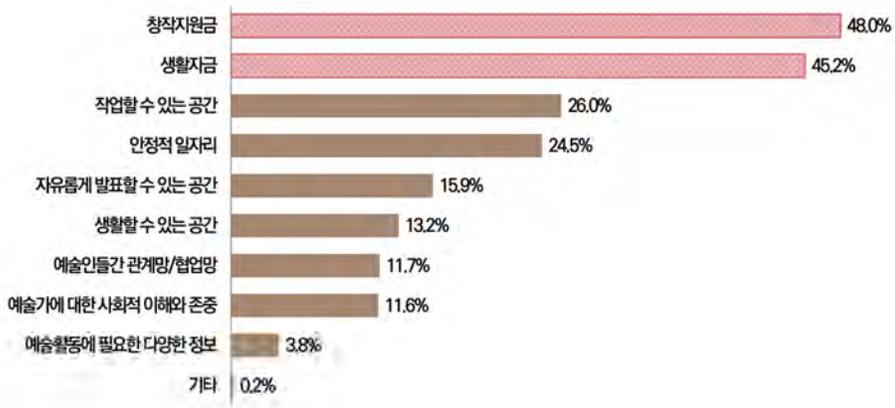
5_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

1) 청년예술인의 현재

(1)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²⁵⁾

-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창작지원금과 생활자금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창작지원금은 48.0%가, 생활자금은 45.2%가 꼭 필요한 항목으로 생각
 - 장르별로 보면, 창작지원금과 생활자금 모두 문학과 다원 쪽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보임. 다만, 시각은 창작지원금보다는 생활자금을, 연극과 음악은 생활지원금과 생활자금을 비슷하게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그 다음으로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6.0%였으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4.5%로 나타남
 - 장르별로 살펴보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무용 쪽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창작공간 등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시각과 다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²⁵⁾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1순위, 2순위를 질문.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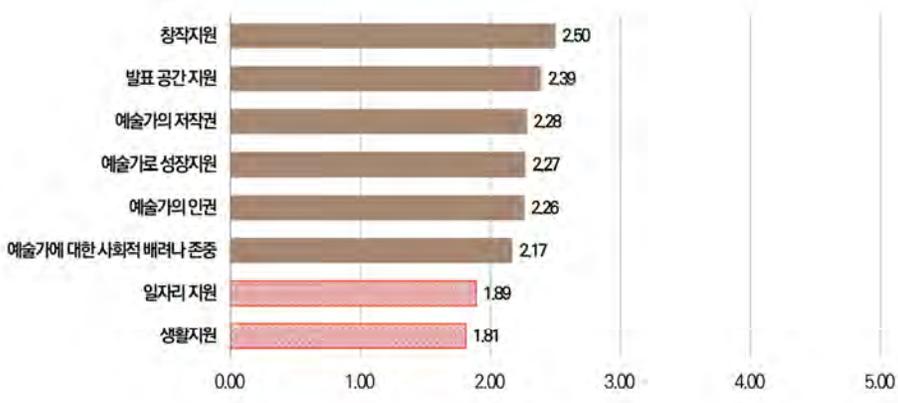


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

[그림 8-24] 서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2)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의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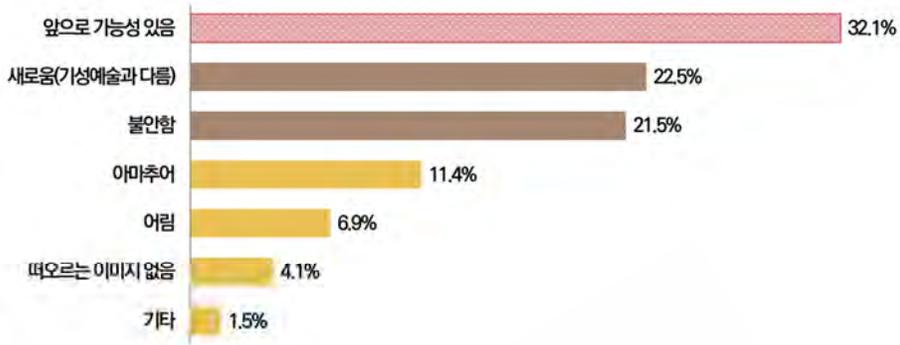
- 청년예술인으로 활동·생활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창작지원이 2.50일 정도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기반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
 - 발표공간 지원(2.39), 예술가의 저작권(2.28), 예술가로 성장지원(2.27), 예술가의 인권(2.26),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존중(2.17) 역시 2점대 초반의 낮은 수치를 기록
- 특히 일자리 지원과 생활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지한 응답자가 많음
 - 일자리 지원은 1.89, 생활지원은 1.81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음



[그림 8-25]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의 충분도

(3) 청년예술인에 대한 의견

- ‘청년예술인’의 이미지로 앞으로의 가능성, 새로움, 불안함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음
 - ‘앞으로 가능성이 있음’을 떠올린 사람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기성 예술과는 다른 ‘새로움’이 22.5%, 불안함이 21.5%로 나타남



[그림 8-26] 청년예술인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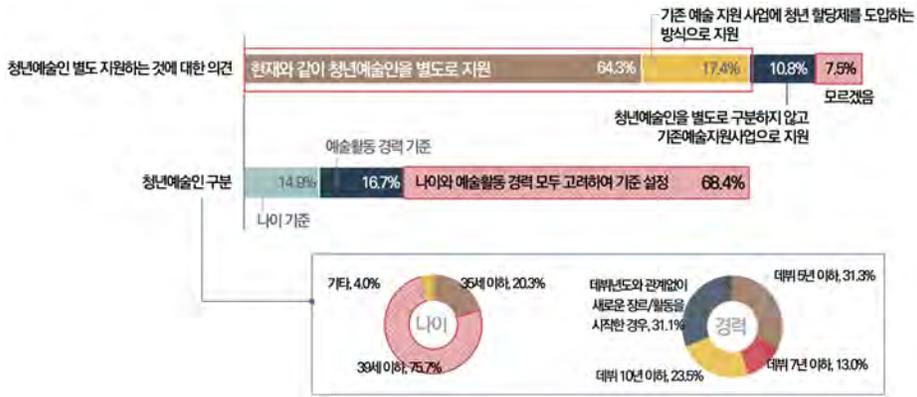
- 청년예술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45.5%
 -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37.2%,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8.3%
 -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9.7%에 달했음



[그림 8-27] 청년예술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

- 청년예술인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현재와 같이 청년예술인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3%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예술지원사업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원(17.4%), 청년예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 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10.8%) 순으로 나타남

- 청년예술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나이와 예술활동 경력 모두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나이와 예술활동 경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8.4%, 예술활동 경력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7%,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4.9%



[그림 8-28] 청년예술인 별도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청년예술인 기준

- 청년예술인의 범위에 학생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 차지
 - 학생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1.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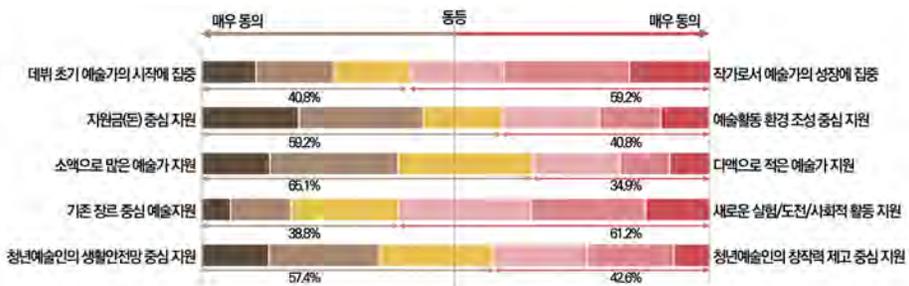
[그림 8-29] 청년예술인 범주에 학생 포함에 대한 의견

2) 청년예술인 정책의 방향

(1)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작가로서 예술가의 성장에 집중, △지원금 중심 지원, △소액으로 많은 예술가 지원, △새로운 실험·도전·사회적 활동 지원, △생활안전망 중심의 지원 등이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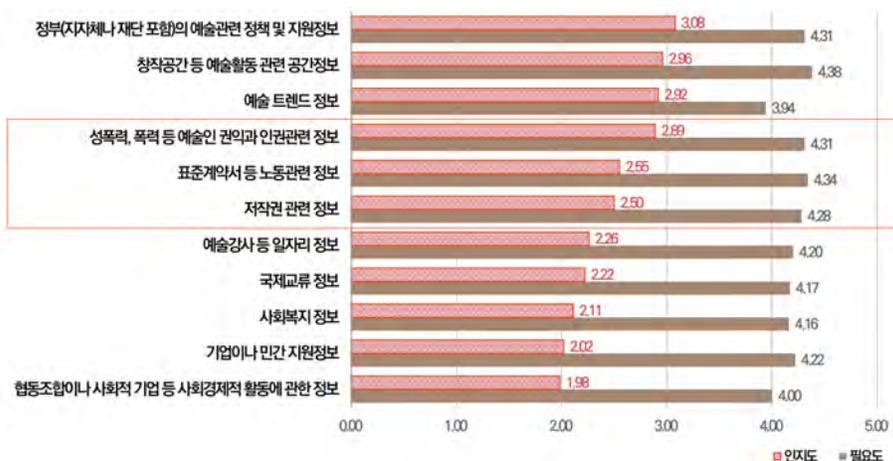
- 작가로서 예술가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는 59.2%에 달했으나 데뷔 초기 예술가의 시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8%
 - 예술가의 시작보다는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 후반일수록, 장르별로는 시각과 다원 쪽에서 많이 나타남
- 지원금 중심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59.2%, 예술활동 환경 조성 중심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
 - 환경 조성보다는 지원금 중심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장르별로는 다원, 연극, 문학 쪽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소액으로 많은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5.1%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액으로 적은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34.9%에 불과
 - 다액으로 적은 예술가를 지원하기보다 소액으로 많은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장르별로는 무용, 연극, 문학 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새로운 실험·도전·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38.8%로 나타남
 -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보다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장르별로는 다원, 무용, 음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청년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7.4%였으며, 청년예술인의 창작력 제고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2.6%
 - 청년예술인의 창작력 제고 중심의 지원보다는 생활안전망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장르별로는 영화, 문학, 연극 쪽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 차지



[그림 8-30]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

(2) 예술 관련 정보의 인지도 및 필요도

- 예술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항목인 정부의 예술관련 정책 및 지원정보가 3.08일 정도로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창작공간 등 예술활동 관련 공간정보(2.96)나 예술 트렌드 정보(2.92)에 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보통 수준으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1.98), 기업이나 민간의 지원정보(2.02), 사회복지 정보(2.11) 등은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임
- 반면, 예술 관련 정보의 필요도는 높게 나타남
 - 예술 트렌드 정보(3.94)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필요도가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
 - 예술활동 관련 공간 정보(4.38), 표준계약서 등 노동 관련 정보(4.34), 정부의 예술 관련 정책 및 지원 정보(4.31), 예술인 권익과 인권 관련 정보(4.31)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예술인 권익과 인권 관련 정보, 노동관련 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은 인지도에 비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성폭력·폭력 등 예술인 권익과 인권 관련 정보, 표준계약서 등 노동관련 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의 인지도는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필요도 부분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바, 인지도에 비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항목이라 볼 수 있음



[그림 8-31] 예술 관련 정보의 인지도 및 필요도

(3) 청년예술인 정책/지원심사에 있어 청년당사자의 참여 필요

- 청년예술인 정책과 지원심사 결정에 있어서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 청년예술인 정책과 지원 심사 결정에 청년당사자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4.8%,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은 35.9%
 - 필요 없다는 의견은 9.2%로 매우 적게 나타남



[그림 8-32] 청년예술인 정책 및 지원심사에 있어 청년당사자 참여의 필요도

4부

결론



09

청년예술정책 방향 제언



1_연구 결과 종합

2_정책 방향 제언

09. 청년예술정책 방향 제언

1_연구 결과 종합

1)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방향 논의 종합

- 서울시는 2017년부터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2019년에는 그 규모가 90억 원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원이 집중된 상황.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크리에이터지원 등 사업 유형 역시 다양하게 전개
- 그러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규모나 방안들이 증가한 반면,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성장이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계
 - 청년예술인들의 실태나 현안의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고,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 청년예술(인)은 다면적인 특성이 존재하며, 청년예술인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
 - 청년예술인들은 이행기의 특성상 불안정하고 열악한 면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특성 또한 공존하며, 이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 우리 연구에서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예술인의 이미지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음’(32.1%)과 ‘기성예술과는 다른 새로움’(22.5%) 등 긍정적 인식이 높음
 - 그러나 청년예술인의 이미지를 ‘불안하다’(21.5%)고 판단하거나 ‘아마추어’(11.4%)라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 역시 상존

- 서울에서 예술계에 막 진입하는 청년예술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신(scene)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능성: 보편적 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년예술인 또한 새로운 장르 및 형태의 예술활동 가능성을 내포. 이에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세대론’보다는 ‘새로운 예술론’ 관점에서 청년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 막연함: 우리나라 예술인 대부분이 예술대학 졸업생인데, 예술대학의 실기 중심 교육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음. 즉, 졸업 후 창작공간 상실, 창작금 부재 등으로 인한 난맥상이 발생하며, 인권이나 노동권 등에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취약성이 드러남
 - 취약성: 우리나라 예술지원구조 특성상 모든 예술가가 동등한 지원구조 하에 심사를 받으며, 청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구조가 필요
 - 서울 집중성: 서울은 예술활동과 생활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예술활동 기회와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의 밀집 경제적 특성 상 많은 예술가들이 서울에 집중. 특히 청년예술인은 새로운 기회를 희망하며 서울에 밀집하는 경향. 이에 예술계 전체 발전을 위해 청년예술지원이 필요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청년예술인의 여건에 맞는 지원과 당사자주위에 기초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 청년예술인캠프를 위한 준비모임과 준비위원회,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포럼, 서울청년예술인회의로 이어지는 연속 논의를 진행
 - 전문가 중심 논의에서 출발하여 청년예술인 당사자들의 참여 범위와 수준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청년예술인들이 주도하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형성
- 논의의 주요 쟁점은 청년예술인의 규정, 지원사업의 혁신 방향, 당사자주의 구현 등
- 특히 청년예술인 사업 논의에 앞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개념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청년을 물리적 나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적됨
 - 청년예술인은 기성예술에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배제된 것을 받아들이는 개념, 또는 기성예술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흐름이나 가능성을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혁신방향은 예술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생태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당사자성이 특히 중요하며, 기존 예술 지원체계에서 수용될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실험과 시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
 - 또한 청년세대는 공정성, 과정 중시 등을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므로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참여와 소통감각 필요
 - 청년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이 중요하며, 청년예술지원 정책은 청년예술정책으로 재설계되는 것이 필요
-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작은 사업을 설계하여 운영해보는 것도 좋은 거버넌스 전략 중 하나
 - 심사제도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고민이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청년예술인 정책과 지원심사 결정에 청년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 필요 없다는 의견이 9.2%로, 서울 청년예술인들도 당사자성의 확보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

2) 청년예술정책 당사자 주체 형성

(1) 당사자 주체 형성의 배경과 형성 과정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예술인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정책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가장 강조됨
- 실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 당사자들의 이해와 욕구에 부합하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고려
 - 청년청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운영하여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정책을 발의하는 등 청년 주체들의 다각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지금까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등 지원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청년예술인 당사자와의 거버넌스 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지원사업 시행의 대상에 머물러 있어, 당사자성이 취약한 상황
- 이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청년예술인의 당사자성 회복과 거버넌스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
- 청년예술인 당사자성 회복과 거버넌스 형성은 청년예술(가)이라는 공통된 의제를 공론적 관점에서 토론해 나갈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
 - 당사자 주체의 형성 과정은 적절한 주체의 발굴과 공공적 담론을 형성할 신뢰가 필요
 - 이는 몇 명의 청년예술인이 모이거나 일회적 회의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형성되어가는 과정중심적인 과제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조사와는 별도의 축으로 청년예술 당사자 주체 형성을 위한 6단계의 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결실로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출범하였음
-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청년예술인캠프) 준비모임을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7회 진행
 -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청년예술인캠프)은 정책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 청년예술인 스스로가 정책을 구상하는 자리
 -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청년예술 주체를 발굴·형성할 수 있는 기획팀을 구성하여 라운드테이블 준비모임을 운영
 - 청년예술 의제 및 거버넌스 형성방안, 청년예술지원사업과 정책방향,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조직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
- 청년예술인 라운드테이블(청년예술인캠프)의 본격 추진을 위해 청년예술인 캠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주도로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포럼>과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각 1회씩 개최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이자 공론장임
 - 2019년 11월 11일 청년예술인 당사자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한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개최되어 청년예술인 거버넌스로서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구성을 공표하였으며, 생활지원·공공성·창작 지원·협업망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 앞으로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주체로 활동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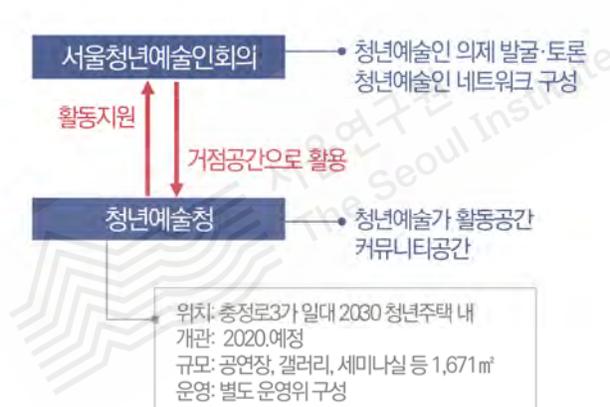
[표 9-1] 청년예술 당사자 주체 형성 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시기	2019년 4월~6월	2019년 7월~8월	2019년 9월	2019년 10월~11월	2019년 11월 11일	2019년 11월 12일~현재
미션	-주체 발굴	-1차 청년예술인 의제 토론 -청년예술인 주체 발굴	-청년예술인 의제 사회화	-청년예술인 주체 형성 -1차 청년예술인회의 개최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구성 공표 -청년예술인 의제 토론	청년예술당사자 주체 형성 <서울청년예술인회의> → 서울문화재단 협력하에 운영 중 -2020년 별도 사업비로 운영 -청년예술청과 연계해 재단의 거버넌스 주체로 활동 예정
방식	-전문가 등과 회의하며 공공적 담론 형성	-청년 스스로의 토론 유도 -자기의제발굴/공유	-전문가+청년 예술인 발표토론	-청년예술인 당사자 중심 준비위 구성 -위원장 주도 토론	-연구 결과 및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구성과정 발표 -생활지원, 공공성, 창작지원, 협업망 등 4개 주제 토론	
사업	전문가 포럼 개최	청년예술인캠프 준비모임	공개토론회 개최	격주 회의 개최		
참여	-청년예술인 3인	-청년예술인 5인(청년청 연계 1인)	-발표3명+토론 4명 -청년예술인 60여 명 참석	-청년예술인 10명	-청년예술인 50여 명 참석	
추진 형태	전문가 포럼	청년예술인캠프 준비모임	서울청년예술인 정책포럼	청년예술인캠프 준비위원회	서울청년예술인 회의	<서울청년 예술인회의>

2)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구성과 역할

- 서울의 청년예술정책 당사자 주체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이를 주관할 10인의 기획위원으로 구성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매년 반기별 회의 개최 예정
 - 청년예술인 정책의제 발굴 및 토론, 서울문화재단 주요 정책 리뷰, 청년 예술활동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예술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예술인 당사자들이 서울 청년예술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 역할
 - 또한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가 활동공간이자 커뮤니티공간인 청년예술청(2020년 7월 개관 예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활

- 등 거점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상생관계 유지
- 청년예술인 당사자 주체 형성 과정에서 발굴된 10인의 청년예술인이 기획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주관
 - 역할: 청년예술인회의 주관, 청년예술인 의제 발굴 및 정책 의제화, 청년 예술청 등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협의 등
 - 구성: 강정아(독립기획자), 박도빈(동네형들 공동대표), 신민준(예술대학 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민주(기획/비평가), 정진세(극작가/비평가), 김재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옥민아(공공연희 단장), 장일수(연극인),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현재 구성된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향후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의 참여 확대가 보장되는 진행형의 열린 거버넌스 구조임



[그림 9-1]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청년예술청의 관계

2_정책 방향 제언

1) 기본방향: 거버넌스 중심의 청년예술정책 추진체계 형성

- 현재의 정책생산체계는 지원기관이 주도하는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정책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한계
 - 서울문화재단에서 수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문화재단이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 옴
 - 이에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요구 및 예술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청년예술인의 현실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향후 지향해야 하는 방식은 거버넌스 중심 정책생산체계로,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서울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실행 가능
 -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기획위원은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주관하는 한편, 시행되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새로운 사업 설계에 수용하는 순환체계를 형성함
- 이처럼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형성은 청년예술인의 생태여건 개선 및 성장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그림 9-2]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형성

2) 정책방향: 새로운 예술 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기회 제공

- 기존의 청년예술인 정책은 세대론에 입각함. 즉 예술인 중에서도 예술활동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예술인의 어려움이 특히 크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
 - 세대론의 기본 관점은 청년예술인 세대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는 것. 이에 따라 창작활동, 주거 등 생활문제, 노동문제 등 청년세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함
 - 주요 지원방식으로 청년예술 수당(청년예술단), 청년예술활동지원 등이 이루어짐
 - 이는 청년세대라는 분명한 정책대상이 있고, 이에 따라 청년예술가 생활안정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기 용이하였기 때문에 정책설계 후 다수의 청년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세대론에 입각한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은 청년예술인을 포함한 전체 예술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순 지원이라는 비판 대두
 - 예술지원 효과에 대한 구체적 상 없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단순 지원함에 따라, 지원과 예술적 성과 간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움
 - 또한 청년세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성예술과 분리라는 의도치 않은 대립구도를 초래. 또한 청년수당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청년수당과 통합지원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
-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청년예술을 세대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예술론” 관점이 제기됨
 - “새로운 예술론”은 청년예술을 청년이라는 세대가 수행하는 예술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 신(scene)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예술 신(scene)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관점
 - 이는 관성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이 예술의 근본적 속성이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음에 초점을 둔 것
 - 새로운 예술론의 관점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고 예술의 모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개편이 필요
 - 그 결과 새로운 예술 신(scene)이 형성되고, 장르주의로부터 벗어난 뉴 장르 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이는 예술활동을 본질적으로 활성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

- 다만, 이와 같은 접근에서는 지원대상이 청년세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는 예술인들이라는 모호한 대상을 정책대상화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
- 또한 기존 장르지원사업 내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새로운 예술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가능

[표 9-2] 청년예술지원 정책 방향 비교: 세대론 VS 새로운 예술론

구분	세대론	새로운 예술론
기본 관점	청년예술 세대의 문제현안	젊은 세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 신(scene)
지원 방향	창작활동, 주거 등 생활문제, 노동문제 등 세대의 구조적 문제 해결	새로운 예술 신(scene)의 지원육성
지원 방식	청년예술수당, 청년예술활동지원	새로운 도전과 실험 예술의 모호성 확대
장점	청년예술가 생활 안정 분명한 대상 집단 다수 청년예술인 혜택	새로운 예술 신(scene) 육성 장르주의로부터 벗어난 뉴장르 예술 육성
단점	단순지원 예술적 성과로 연동가능성 희박 청년수당과 유사 - 통합지원 필요성 제기	지원대상의 모호성(비청년그룹 포함) 기존 장르지원사업 내 별도의 지원트랙으로도 형성 가능

- 한편 우리 연구의 청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 청년예술인들이 청년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세대론’보다는 ‘새로운 예술론’을 지지함이 확인됨²⁶⁾
 - 서울시 청년예술지원 정책은 작가로서 예술가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데뷔 초기 예술가의 시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실험과 도전·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존 장르 중심 예술지원보다 높았음
 - 지원방식으로는 청년예술인의 창작력 제고 중심 지원보다는 청년예술인의 생활안전망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다액으로 적은 예술가를 지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많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예술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을 청년예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안함
 - 즉 작가로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함

26) 8장의 [그림 8-30]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참조

- 또한 지원 방식은 안정적으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소액 다건 방식으로 지원함



[그림 9-3] 청년예술정책의 기본 정책방향

3) 정책대상: 나이와 경력을 모두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예술인의 범위는 나이와 예술활동 경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나이의 경우, 범위를 39세까지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 경력의 경우 데뷔년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술계에 막 입문한 신진 예술인이나 경력 단절 예술인, 장르변경 예술인 등의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기까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 우리나라의 각종 예술인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등록제도>를 통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근 3~5년 동안 전시나 발표 실적 등이 필요
- 기존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에서는 지원대상 기준이 주로 연령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청년예술인의 활동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
 - 예를 들어 서울청년예술단 지원사업의 경우, 35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단체가 대상. 이에 비해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함
- 이에 청년예술정책 대상 선정 기준에서 청년예술인의 연령 범위를 통일하고, 청년예술인의 활동 특성(속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함
 - 신진 예술인, 경력 단절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예술인, 새로운 활동을 위해 장르 변경을 시도하는 예술인 등이 모두 청년예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예술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예술인을 나이 19~39세 사이의 예술가로서, 예술인 등록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신진 예술가, 경력 단절 예술가,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위해 장르를 변경하는 예술가로 설정할 것을 제안



[그림 9-4] 청년예술정책의 정책대상(청년예술인의 범위)

4) 지원내용: 창작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예술활동에 필요한 정보 지원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있어 창작지원금의 중요성이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서울문화재단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예술활동 환경 조성 중심 지원보다는 지원금 중심 지원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위한 정보는 인지도에 비해 필요도가 매우 높게 나와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²⁷⁾
 - 특히 정부(지자체나 재단 포함)의 예술관련 정책 및 지원정보, 창작공간 등 예술활동 관련 공간 정보, 예술 트렌드 정보, 성폭력·폭력 등 예술인 권익과 인권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 표준계약서 등 노동 관련 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예술강사 등 일자리 정보 등 예술관련 노동권이나 일자리 관련 정보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음
 - 또한 국제교류 정보, 사회복지 정보, 기업이나 민간 지원 정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동 정보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예술활동을 위해 이들 정보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제반 정보들이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7) 8장의 [그림 8-31] 예술 관련 정보의 인지도 및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참조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년예술정책에서 담아야 하는 지원 내용은 창작 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술가로서 활동을 위한 충분한 정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예술노동권 관련 정보, 일자리 정보, 기업이나 민간의 지원정보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

5) 지원체계: 청년예술가와 전업예술가로 나눠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울시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청년예술가와 전업예술가 지원체계의 두 트랙으로 제안하고자 함
- 청년예술가 지원은 예술가로의 진입 지원 및 새로운 도전과 실험 기회 제공이 목표
 - 19세~39세 사이의 예술인으로서, 신진 예술인이거나 경력 단절 예술인, 장르 변경 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안정적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과 생활자금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술가로서 활동을 위한 성장 지원 및 필요 정보 제공에 주력
 - 청년예술가 지원을 거쳐 전업예술가 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
- 청년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예술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완결된 기획을 바탕으로 한 지원보다는 예술인 또는 예술인 모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과정 중심 지원이 필요
 - 결과물보다는 과정적으로 시도했던 실험적 활동 및 리서치의 기록 등을 근거로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학습공동체> 사업,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불가사의한 자율학습모임&프로젝트> 등이 참고 가능

[실험과 도전 기회제공 참고사례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4년 <예술인학습공동체>²⁸⁾

- 목적
 - 예술창작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가 조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인, 예술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교육하고 예술의 가치 확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이 가능한 예술단체
 - 최소 5명 이상의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한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실험과 도전 기회제공 참고사례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4년 <예술인학습공동체>²⁹⁾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 8개월
 - 지원규모 : 약 55개 단체 선정, 참여단체별 1천만 원 ~ 3천만 원 지원
 - 세부내용 : 예술가치 확산연대망 구축 등 주제 탐색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상호관계·체험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설계·수행. 공동체 구성원 이외의 예술인(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워크숍 공개강연·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발표
- 특징
 - 작품제작 및 발표 중심의 지원사업과 달리 예술인들의 일상적인 상호학습의 과정을 지원
 - 예술인의 장르별·훈련 프로그램보다는 학습주제별 실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 그러나 예술인들에게도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능 개발 위주의 사업이 주로 진행되었고 2016년에 폐지됨
- 참고 : 2014년 심사평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자존 기반이 무너지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조건을 만드는 예술인들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 자신이 자생, 자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 선행 노력의 진정성에 비추어 지원사업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로 다가와야 한다. 본말이 전도된 기금지원사업 때문에 예술인들의 야생성이랄까, 예술의 본질이랄까 하는 문제가 현재까지도 불거져왔다. 기금 없이는 예술이 없다, 라는 중독과 금단의 문제는 자본주의에 예술이 길들여져온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들이 자생의 조건을 다시 획득하기 위한 자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도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위원 일동은 예술인 자신의 역량강화의 참신한 계획,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접근, 예술과 비예술(인문, 미디어, 기타 등등) 사이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재미, “무늬만 학습”이 아닌 “진정한 체득” 등등을 심의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³⁰⁾

[실험과 도전 기회제공 참고사례 2]

2014~2016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불가사의한 자율학습모임&프로젝트>³¹⁾

- 목적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실험’을 주제로 자발적인 자율학습모임과 시범 프로젝트 실행 기회 제공
- 대상
 -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한 자율학습모임(최소 3인 이상, 관련 지원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도전자 우대)
 -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싶은 모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 8개월
 - 지원규모 : 자율학습모임 최대 150만 원, 최대 7개 모임
프로젝트 최대 500만 원, 최대 3개 모임
- 세부내용
 - 지역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사, 연구, 탐구, 학습, 시범 프로젝트 활동을 희망하는 모임을 지원하며, 실험성을 가진 아이디어 개발과 콘텐츠 발굴을 도움.
 - 선정된 모임은 활동비를 비롯하여 컨설팅, 네트워킹,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며 추후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교육자,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음(2016,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획지원사업 결과자료집 ‘불가사의한 사람들’)

28) 2015년에는 <예술인 맞춤형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됨.

29) 2015년에는 <예술인 맞춤형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됨.

30)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실험과 도전 기회제공 참고사례 2]

2014-2016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불가사의한 자율학습모임&프로젝트>³²⁾

◦ 특징

- 중앙 단위 지원사업 구조 안에서 실행해보지 못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원(2019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이 일반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달리 교육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 학습과정을 지원
- 예술강사 및 예술교육단체 외에 예술가, 기획자 등의 확장된 주체의 참여를 전제
- 사업의 최종 목표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로 두지 않고 문화예술교육과 연결 가능한 문제의식의 발견, 주제의 탐구, 방법론 실험 등으로 전제. 이에 따라 활동의 결과보다 과정 기록을 성과로 평가
- 선정단체/모임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섭외 가능
- 2016년의 경우 선정단체/모임 스스로 '이것이 너무 불가사의하지만은 않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며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한 행정절차도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지원 및 관계망/연결망 활성화 지원이 필요

- 역량강화의 목표를 일시적 사업 성과에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활동 동력 마련으로 설정 필요. 선정자/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괄적 교육보다는 개별 특성 및 활동에 따른 컨설팅 및 멘토링 진행이 바람직
- 관계망/연결망은 새로운 관계망이나 연결망의 형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간의 관계망과 연결망을 활성화하여 각자의 활동에서 장기적 관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목적

[역량강화 참고사례 1] 2019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쌉수야 어딴니>³³⁾

◦ 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의 성장 발판 마련

◦ 대상

- 주제에 대한 활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그룹(2명 이상)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각(고민)을 구체화하거나 실행하고 싶은 자
- 예술의 사회적·교육적 관점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 7개월
- 지원규모 : 6개 단체 최대 300만 원 활동비 차등 지원
- 세부내용 : 지원자가 생각하거나 구현하고 싶은 자유주제 트랙, 지역의 특성을 연계·활용한 기획주제 트랙 등 두 가지 주제로 접수 및 선정. 참여자별 활동 과정 기록 지원, 온라인 홍보 및 공동자료집 발간, 도움자료 공유, 컨설팅비 별도 지원

31) 2017년에는 <자율학습모임 시시하지만 즐거운 일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학습연구모임 3355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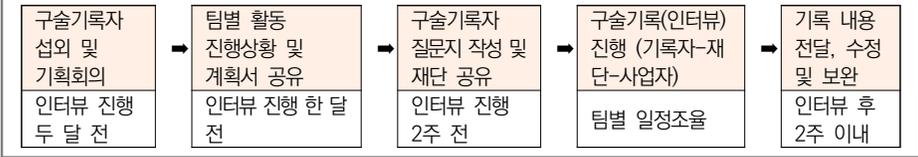
32) 2017년에는 <자율학습모임 시시하지만 즐거운 일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학습연구모임 3355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 중.

33) 2018년부터 동일 사업명으로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지원사업

[역량강화 참고사례 1] 2019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쌩수야 어딴니>³⁴⁾

- 특징
 - 2019년부터 활동비 지원방식이 시상금에서 지원금으로 변경됨. 참여자가 스스로 필요한 컨설팅트를 조사·선정하여 매칭하는 방식으로 컨설팅 과정 및 매칭 방식 개선. 참여자의 사업 활동을 대담 인터뷰를 통한 구술기록 지원 도입(최선영, 2019).
 - 외부 전문가로 2명의 구술기록자 섭외 후 선정단체팀별 활동 과정에 따른 객관적·주관적 관점의 세부내용 기록. 사업 전·후의 활동들이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적극적 기록. 교육소재, 대상, 매체 등을 주로 다루게 된 배경 등을 재정립. 과정에서 생긴 고민이나 변화 등을 옆에서 읽어주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구술기록 지원 운영방법

[표 9-3] <쌩수야 어딴니> 구술기록 지원 운영방법



[역량강화 참고사례 2] 2019 시흥시 <멘토스쿨>³⁵⁾

- 목적
 -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청년단체들이 지역의 가능성을 연계해 구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시작과 도약이 가능하도록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
 - 지역 고유의 문화 매개인력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문화발전 기반 마련
 - 문화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사업 발굴 및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대상
 - 시흥시 거주 만 34세 이하의 문화예술 관련 청년·단체 중 데뷔 10년 이하의 단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 4개월
 - 지원규모 : 5개 단체 개별 멘토링
- 세부내용
 - 맞춤형 분야별 전문가 5명(팀)을 1:1로 매칭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스쿨>을 제공하여 초기 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겪는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진행의 애로사항을 해소
 -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멘토들을 매칭하여 청년의 현재 고민과 활동적 의미를 함께 찾아가. 총괄멘토가 단체 선정부터 멘토링 및 모니터링을 거쳐 결과공유회까지 사업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모색
- 특징
 -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이후 서류 접수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지원예정자가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진단·분석하는 컨설팅 제공. 총괄멘토가 프로그램 구성부터 기획, 심사, 중간 워크숍과 점검, 최종 간담회까지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조율
 - 2019년도 참여자 후기를 살펴보면,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질문, 새로운 관점이 향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최선영, 2019)
 - 전문가의 멘토링 외에도 참여자들이 상호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을 시도하여 청년들의 자기학습 역량을 강화. 전문가 강의보다는 선정단체 중심의 좌담회를 진행하고 대화를 기록하여 이것을 토대로 각자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2019년 워크숍을 통한 좌담회에서는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상과 달리 경험하거나 발견한 것들’, ‘지원사업과 별개로, 혹은 지원사업 이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등의 주제로 대화를 진행함

34) 2018년부터 동일 사업명으로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지원사업

[관계망/연결망 활성화 참고사례] 2017 서교예술실험센터 <고무동력기記>³⁶⁾

- 목적
 - 활동 10년 전후의 동력이 소진된 시각예술가와 비평가, 기획자의 자기발전을 도모
- 대상
 - 활동 10년 전후의 시각예술가 및 비평·기획자 15명 내외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 3개월
 - 지원규모 : 소정의 모임지원비 1인당 10만 원, 모임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자료집 제작, 시각예술가 및 기획·비평가에게 이미지 사용료와 원고료 지급
- 세부내용 :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공동운영단이 진행
 - ① 출발 모임 1회, ② 참가자 그룹핑(시각예술가 x 비평가 x 기획자), ③ 3개의 그룹별 4회 이상의 자율 모임, ④ 도착 모임 1회 순서로 진행
 - 자율 모임의 기록을 온라인에 공유. 모임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 결과물 도출(시각예술가의 경우 작품 에스키스, 비평·기획자의 경우 A4 3매 분량의 글)
 - 작가 10명, 기획자 4명, 비평가 2명 등 서로 다른 시각예술인이 출발모임을 통해 3개의 그룹을 형성. 그룹별로 두 달 가량의 자유모임 운영. 전시와 비평, 작가-기획자 매칭 워크숍 등 탐색의 결과를 자신의 방식으로 공유
- 특징
 - 문화예술계 현장의 변화 및 요구 반영이 용이하며, 수직적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수평적 상호학습과 교류가 가능함. 또한 예술활동을 아우르는 주제로서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 스스로 현장에서의 예술활동·창작 동력을 모색·탐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최선영, 2019)
 -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진 작가들이 5년, 10년 후에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왜 동료들과 만나도 점차 작업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되는가, 나는 이대로 계속 작업을 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공동운영단이 본 활동을 기획함. 이에 따라 <고무동력기記>가 이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복돋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³⁷⁾
 - 시각예술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매개로 연결가능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스스로 활동의 동력을 찾고 관계형성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작품 발표 이전에 창작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함

- 전업예술가 지원은 예술가로서의 자립 및 전문예술가로서의 성장과 (국제적) 활동 지원이 목표
 - 전문예술가로서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성장지원, 자립지원, 사회적 활동 지원 등 3단계로 구성
 - 성장지원 단계(5년)는 예술가로서 성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며, 자립지원 단계(3년)는 성장 가능성이 입증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통한 자립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실현을 지원함.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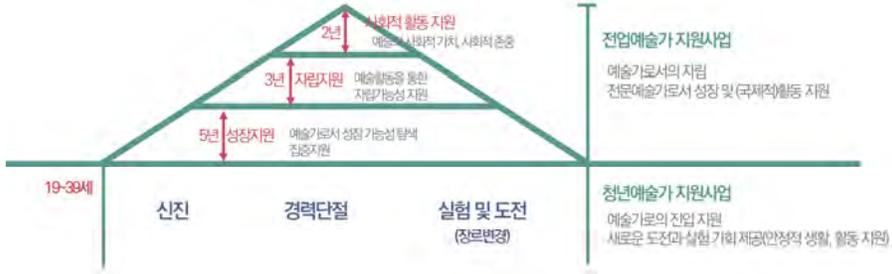
35)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전단계부터 연동되어 진행되는 청년 대상 멘토링 전담 사업

36)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 기획한 아고라의 일부로 진행됨. 아고라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관련한 재교육 및 동료 예술가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2017년의 아고라는 수직, 일방적 교육이 아닌 수평, 상호적 교육을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함. (출처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5기, 2017. "아고라 s01: 고무동력기記" 발간집, 서교예술실험센터: 6.)

37)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식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seoulartspace/5562>

활동 지원 단계(2년)는 예술활동을 통해 자립이 가능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상징적 지원 단계

- 이처럼 서울시 예술인 지원정책은 예술활동 진입단계에서 성장 및 자립을 거쳐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재편될 필요가 있음



[그림 9-5] 서울 예술인지원정책의 지원체계(안)

- 특히 그 가운데 청년예술인 정책 개선방안은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당사자 거버넌스의 미비함이나 분산된 지원체계의 비효과성, 지원 목표의 불명확함 등을 극복하여, 청년예술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책구조 형성이 핵심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하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사업을 형성 및 발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음. 이를 통해 당사자주위에 입각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내용적으로도 적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가성예술과 분리 미비한 당사자 거버넌스	자립방식	(서울청년예술인 회의)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하에
35세 이하 또는 39세 이하 등 사업마다 다른 기준	지원대상	19세-39세 이하 신진, 경력단절, 장르변경 예술가
분산된 지원체계	지원방향	새로운 예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지원
분명치 않은 목표체계	지원내용	창작과 생활 자금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술가로서 활동을 위한 성장과 필요 정보 제공 주력

지원의 목적성, 체계성, 내용적 풍부성, 거버넌스 제고
청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정책 구조 형성

[그림 9-6] 서울시 청년예술정책의 향후 방향(종합)

참고문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6,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획지원사업 결과자료집: 불가사의한 사람들」.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9,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 김보라·나보리·성연주·최선영, 2019, 「경기형 포스트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연구」, 경기문화재단.
- 김보름, 천혜정, 2016, “청년예술창업가들의 공간 전유 - 이태원 우사단로10길 사례 연구”, 「문화정책논총」, 30(1).
- 김선애, 강주희, 2015, “청년예술가 일자리 실태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예술연구」, 11.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 김선기, 옥미애, 임동현, 2018,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획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0.
- 김태윤, 2018, “밀레니얼 세대 도시 청년 음악가들의 창조적 하위문화 생산”, 「대중음악」, 22.
- 김태희, 2018, “확대되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서울시와 예술가의 동상이몽”, 「연극평론」, 88.
- 남은정 외, 2018, 「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참여예술가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문화재단.
- 남은정 외, 2018, 「2018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예술인(단체)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박영정, 2015,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해광, 2018, “문화는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문화와사회」, 26(1).
- 서울시, 2017, 「2017 서울청년예술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성수아, 2018, “청년작가 지원에 관한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및 진로사례 조사”.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이동연 외,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연구」, 서울문화재단.
- 이용복,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공연 직접지원제도 현황 연구 : 창작산실 연극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문, 2016, “예술기업가정신으로 바라본 젊은 예술가들의 기업가적 활동 양상 및 특성 :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홍경, 2017, “유희공간에서 피어난 청년문화 공간 - 베를린의 ‘젊은 세입자들’ 프로젝트”, 『독일 문학』, 58(3).
- 정승인 (2018).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연, 2017, “1990년대 이후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사례 연구 : 시각예술 공공문화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예술종합학교, 2015, 「청년 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 사업 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한정찬, 2014, “청년 예술가들”,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_설문지

2019년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의견조사

조사 전 드리는 말씀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연구원>은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 및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예술인의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시간은 약 15~2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조사인 만큼 응답해 주신다면 재단은 반드시 책임성을 갖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통된 의견은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상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는 결과처리 후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책임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임미혜

공동책임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기획팀 배소현(02-3290-7075)

※ **본 설문에 참여하신 응답자에게** 소정의 상품권(1만 원권의 스타벅스 e-기프트 카드)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응답 후 꼭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는 상품권 제공 후 폐기됩니다.**

A. 활동상태와 여건

※ 다음은 귀하의 예술활동 상태와 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귀하가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나만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창작자(창작자, 연출가, 극작가, 드라마투르그, 안무가, 작곡가, 문인 등)
- ② 실연자(배우, 연주자, 무용수, 성악가 등)
- ③ 기획자 및 매개자
- ④ 평론가(예술 및 문화평론 등)
- ⑤ 연구자(문화, 예술 관련 연구 활동)
- ⑥ 교육자(예술강사 등 예술교육 관련 활동)
- ⑦ 기술인력(무대디자인, 조명, 오디오 등 실연 관련 기술 활동)
- ⑧ 실무인력(일반운영, 홍보, 마케팅, 정산 등)
- ⑨ 문화행정(재단, 협회 등 문화예술관련 행정업무 수행)
- ⑩ 기타()

A2 귀하가 주로 활동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나만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연극 ② 무용 ③ 음악 ④ 시각 ⑤ 다원
- ⑥ 문학 ⑦ 만화애니메이션(게임 포함) ⑧ 공공예술 ⑨ 출판 ⑩ 디자인
- ⑪ 영화 ⑫ 특별한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활동 ⑬ 기타()

A3 귀하가 활동하는 주된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특정 소속 없이 단독으로 활동(☞A4로 이동)
- ② 특정 단체, 기관, 회사 등에 소속되어 활동(☞A3-1로 이동)
- ③ 일시적인 프로젝트팀, 콜렉티브로 활동(☞A4로 이동)
- ④ 기타()

A3-1 귀하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어떤 성격입니까?

- ① 4대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단체기관
- ②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단체기관
- ③ 모름

A3-2 귀하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귀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 ①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A4번로 이동)
- ②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A3-3으로 이동)
- ③ 기타()

B. 예술활동과 예술계에 대한 인식

※ 다음은 귀하의 예술활동과 귀하가 몸담고 있는 예술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1

귀하의 예술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예술활동을 하면서 나의 예술적 능력에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활동을 하면서 나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결과에 대해 심리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결과에 경제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예술활동은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예술활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예술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예술활동하는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B2

귀하가 본인의 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 | | |
|-----------------------|---------------------|
| ① 자기만족 | ② 예술계 내 의미/인정/위치 획득 |
| ③ 사회 내 의미/인정/위치 획득 | ④ 예술성/작품성 발현 |
| ⑤ 타인 또는 사회와의 공감/교감/영향 | ⑥ 기타() |

B3

귀하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 | | | |
|----------------------|----------------------|-----------------|
| ① 안정적인 수입 (비예술활동 포함) | ② 창작공간 | |
| ③ 창작지원금 | ④ 다양한 창작/발표기회 | ⑤ 극단, 협회 등 관계조직 |
| ⑥ 자기계발 기회 | ⑦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창작환경 | |
| ⑧ 창작활동/작품의 유통 및 판로 | ⑨ 관객 | |
| ⑩ 집 등 안정적 생활환경 | ⑪ 기타() | |

B4-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예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탈장르, 융합장르화 등 전통적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술(창작)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예: 웹, 유튜브, 거리, 공원, 건물옥상 등)	①	②	③	④	⑤
4. 자생력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거나 영리공간을 운영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콜렉티브, 프로젝트 팀 등 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공공성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형 예술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예술가들끼리 하는 느슨한 형태의 모임(학습모임, 교류모임 등)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방으로 활동 영역을 이전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해 올라오는 지방의 예술가가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4-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예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보통	약간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탈장르, 융합장르화 등 전통적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술(창작)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예: 웹, 유튜브, 거리, 공원, 건물옥상 등)	①	②	③	④	⑤
4. 자생력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거나 영리공간을 운영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콜렉티브, 프로젝트 팀 등 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공공성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형 예술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예술가들끼리 하는 느슨한 형태의 모임(학습모임, 교류모임 등)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방으로 활동 영역을 이전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해 올라오는 지방의 예술가가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5-1 귀하는 우리나라 예술계의 현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우리나라 예술계는 자생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 예술계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에서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청년예술인에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예술 관련 법률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예술정책 결정 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B5-2 귀하는 우리나라 예술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미래 우리나라 예술계는 자생적 시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미래 우리나라 예술계는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미래 우리나라에서 예술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미래에는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미래 청년예술인에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에는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미래에 예술 관련 법률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미래에는 예술정책 결정 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D2-1 귀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기존 지원사업에 비해 비교적 선정되기 쉬운 사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생애 첫 예술 등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예술인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인 등록 등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예술활동을 사회적/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신청한적 없음 (☞D5로 이동)
- ② 신청한 적은 있지만 지원금을 받은 적은 없음 (☞D4로 이동)
- ③ 지원금을 받은 적 있음(☞D3-1로 이동)

D3-1 귀하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항목	지원 받았음	지원 받지 않았음
1. 최초예술지원	①	②
2. 서울청년예술단	①	②
3.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①	②
4. 서울청년예술단 X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예술치유허브 연희문학창작촌 삼일로창고극장	①	②
5. 서울청년예술단 X 자치구	①	②
6.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①	②
7.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소한기부	①	②

D3-2

귀하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아래의 사업이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작품활동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항목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많이 도움됨
1. 최초예술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서울청년예술단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청년예술단 X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예술치유허브 연희문학창작촌 삼일로창고극장	①	②	③	④	⑤
5. 서울청년예술단 X 자치구	①	②	③	④	⑤
6.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①	②	③	④	⑤
7.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소한기부	①	②	③	④	⑤

D3-3

귀하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아래의 사업이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예술가로서 성장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항목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많이 도움됨
1. 최초예술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서울청년예술단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청년예술단 X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예술치유허브 연희문학창작촌 삼일로창고극장	①	②	③	④	⑤
5. 서울청년예술단 X 자치구	①	②	③	④	⑤
6.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①	②	③	④	⑤
7.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소한기부	①	②	③	④	⑤

D3-4 귀하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아래의 사업이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생활고 해결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항목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많이 도움됨
1. 최초예술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서울청년예술단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청년예술단 X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예술치유허브 연희문학창작촌 삼일로창고극장	①	②	③	④	⑤
5. 서울청년예술단 X 자치구	①	②	③	④	⑤
6.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①	②	③	④	⑤
7.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소한기부	①	②	③	④	⑤

D4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자신의 활동영역과 재단의 지원사업 영역이 불일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있음(☞D4-1로 이동)
- ② 없음(☞D5로 이동)

D4-1 그렇다면 불일치한 경험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나의 주요 활동 혹은 관심있는 영역은 '장르' 중심의 기존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음
- ② 나의 주요 활동 혹은 관심있는 영역은 '발표와 결과물' 중심의 기존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음
- ③ 기타 ()

D4-2 재단사업과 귀하의 활동영역이 불일치할 때 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 ① 지원사업에 맞춰 나의 활동영역을 바꿨음
- ② 지원사업에 맞추되, 내 활동영역은 별도로 추진했음
- ③ 지원사업을 포기했음
- ④ 기타()

D4-3 이런 불일치가 귀하의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무런 영향이 없었음
- ② 내가 새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음
- ③ 내 예술활동의 정체성을 약화시켰음
- ④ 기타()

E. 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

※ 다음은 미래 청년예술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하는 서울에서 청년예술인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1순위, 2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 ① 창작지원금 ② 생활자금 ③ 안정적 일자리
- ④ 주택 등 생활할 수 있는 공간 ⑤ 창작공간 등 작업할 수 있는 공간
- ⑥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⑦ 예술인 간 관계망이나 협업망
- ⑧ 예술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⑨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존중
- ⑩ 기타()

E2 귀하는 현재 본인이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창작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예술가로 성장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일자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발표 공간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존중	①	②	③	④	⑤
7. 예술가의 인권	①	②	③	④	⑤
8. 예술가의 저작권	①	②	③	④	⑤

E5-3

귀하는 서울문화재단이 청년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음의 양측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A에 동의할수록 ① 방향으로, B에 동의할수록 ⑥ 방향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A	←----- -----→						B
데뷔 초기 예술가의 시작에 집중	①	②	③	④	⑤	⑥	작가로서 예술가의 성장에 집중
지원금(돈) 중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예술활동 환경 조성 중심 지원(작업실, 주거지원 등)
소액으로 많은 예술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다액으로 적은 예술가 지원
기존 장르중심 예술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새로운 실험과 도전, 사회적 활동 지원
청년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중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예술인의 창작력 제고 중심 지원

E6-1

귀하는 평소 예술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정부(지자체나 재단 포함)의 예술관련 정책 및 지원정보	①	②	③	④	⑤
2. 창작공간 등 예술활동 관련 공간정보	①	②	③	④	⑤
3. 국제교류 정보	①	②	③	④	⑤
4. 예술강사 등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5. 기업이나 민간 지원정보	①	②	③	④	⑤
6. 사회복지 정보	①	②	③	④	⑤
7.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	①	②	③	④	⑤
8. 예술 트렌드 정보	①	②	③	④	⑤
9. 저작권 관련 정보	①	②	③	④	⑤
10. 표준계약서 등 노동관련 정보	①	②	③	④	⑤
11. 성폭력, 폭력 등 예술인 권익과 인권관련 정보	①	②	③	④	⑤

F4 귀하의 주요 활동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수도권(경기, 인천) ③ 그 외 지역

F5 다음은 귀하의 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F5-1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F5-2 귀하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친구 또는 동료 ③ 자녀
④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 ⑤ 형제자매 ⑥ 손자녀
⑦ 기타()

F6 다음은 귀하의 소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지난 1년 동안(2018.1.1.~2018.12.31.)의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예술활동 관련 소득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2018.1.1.~2018.12.31.) 총 소득 만원
지난 1년(2018.1.1.~2018.12.31.) 예술활동 관련 소득 만원

F7 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① 안 받았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석사 과정
⑦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업
② 수료
③ 재학
④ 휴학
⑤ 중퇴

F8

귀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예술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재학 및 수료 경험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술계 중학교 ② 예술계 고등학교 ③ 예술계 대학교
 ④ 예술계 대학원 석사과정 ⑤ 예술계 대학원 박사과정
 ⑥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예술 전문교육을 받은 적 없음

F9

최종 교육 과정에서 예술 전문교육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전공분야와 현재 활동 예술 분야는 동일하십니까?

- ① 동일함 ② 동일하지 않음 ③ 최종 교육 과정에서 예술 전문교육을 받지 않음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약소하지만 [1만 원권의 스타벅스 e-기프트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 없이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사례 지급 후 즉시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010 -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

SeTTA 2019 CR 09

발행일 2020년 2월 14일

발행처 서울싱크탱크협의회

ISBN 979-11-5700-543-7 (9333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서울연구원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에 속합니다.